

2023년 국가성평등보고서

2023. 12.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이동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효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송치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여성가족부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연구요약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국가성평등지수는 2009년 우리나라 성평등 실태와 개선 정도, 성불평등이 심각한 분야와 그 원인을 파악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 제고와 국가 경쟁력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
- 2023년 연구는 현행 국가성평등지수 지표체계에 따라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여 우리나라 성평등 변화를 살펴보고, 개편 지표에 대해 측정하고 이를 현행 지수와 비교함. 더불어 성격차지수(GGI), 성불평등지수(GII) 등 국제성평등지수를 분석하여 한국의 성평등 위치와 성평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의 전략적 정책 방향을 검토함.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연구내용은 크게 세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각 세부 내용을 분석함.

1.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및 추이 분석

- 2022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및 영역·분야별 최근 6년간 성평등 수준 분석
- 지수의 특징, 산정방안, 하위영역 및 분야, 세부지표의 내용분석, 자료원 정리

2. 개편 성평등지수의 품질진단과 시범 측정

- 개편 성평등지수의 세부 지표 검증 및 개선 연구
- 시범 측정

3.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성평등 위치 분석

- 국제성평등지수인 GGI, GII 등의 분석을 통해 한국 성평등 위치 파악
- OECD 회원국 등 주요 국가와의 성평등 수준 비교 분석

4. 양성평등 수준 변화 진단

- 국가성평등 수준 변화 원인 분석
- 영역별, 분야별 성평등 변화 원인 검토

□ 연구 방법

- 첫째,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성평등 관련 방법론과 정책을 검토함. 성평등지수와 관련된 문헌 연구, 성평등지수 관련 방법론, WEF, UNDP 등 국제기구의 성평등지수 등에 대한 문헌을 분석함.
- 둘째, 지표별 성인지 통계를 수집·분석함. 분야별 성평등 지표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자료원을 수집함. 자료 수집은 국가통계포털 등 통계 DB와 부처의 행정통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부 통계는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수집함.
- 셋째,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함. 전문가 자문은 성평등지표 활용을 위한 자문, 최종 보고서 결과에 대한 자문과 국가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내용에 대해 자문을 얻음.

3.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구성

- 2023년도 국가성평등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제시한 정책영역별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로 지표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성됨.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영역	분야	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성별 임금 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
	교육·직업훈련	평균 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직업교육훈련경험 비율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비빈곤인구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장애인고용률

영역	분야	지표
	보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안전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 비율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가사노동 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문화·정보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성별 정보화 격차

□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 주요 개편 사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사회변화에 따른 성차별 현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

둘째, 사회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성평등 지표 포함 문제

셋째, 성평등에 대한 정책활용도 및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 못한 문제

○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는 동등한 권한, 자원의 동등한 접근, 평등한 관계를 목표로, 7개의 영역과 23개의 지표로 구성하며, 여성 폭력을 특별영역으로 관리하도록 구성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목표	영역	지표
동등한 권한	의사 결정	국회의원 비율
		장관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법원, 검찰, 경찰 고위직 비율
		관리자 성비

목표	영역	지표
자원의 동등한 접근	고용	고용률
		정규직 비율
		노동시장 직종 분리
		경력단절 여성 비율
	소득	임금격차
		빈곤율(비빈곤율)
		국민연금수급률
	교육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수명
		정신건강(스트레스 비인지율)
평등한 관계	돌봄	가사노동 시간
		육아휴직 참여
		노인돌봄 분담
	양성평등의식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성차별 경험률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폭력	특별영역으로 관리

4. 국가성평등지수의 산정 방법 및 특징

□ 국가성평등지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첫째, 투입보다 성과를 측정하는 지수임.

둘째, 성별 격차를 측정하는 지수임.

셋째,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점검하고 정책의 관리를 목적으로 측정되는 지수임.

□ 국가성평등지수는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걸쳐 산정됨.

단계 1. 지표의 수준이 최소 0과 최대 100으로 표준화

단계 2. 지표 값을 성비(Female-to-male ratio)로 전환

단계 3. 비율로 전환된 지표 값에 관련 가중치(Weight)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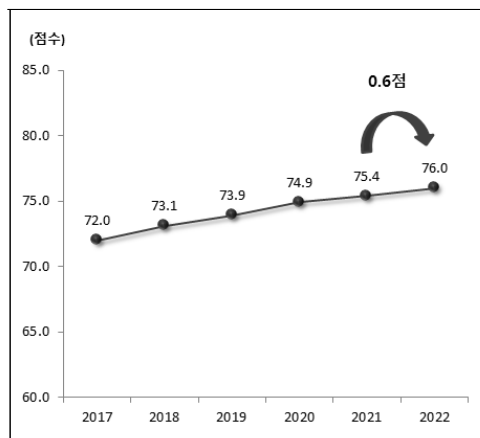
단계 4. 분야별 지수 추정치 산정

단계 5. 국가성평등지표의 복합지수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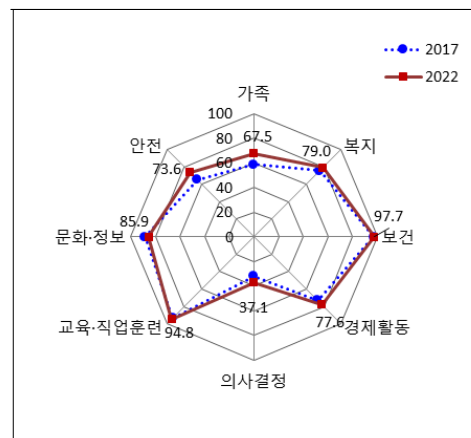
5.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추이

□ (총점) '22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는 76.0점으로, 전년(75.4점) 대비 0.6점 상승

〈연도별 성평등 변화 추이〉



〈분야별 수준 변화〉



□ (영역별)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83.4점)의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고,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76.7점), 사회참여 영역(69.8점) 순임.

□ (분야별) 8개 분야 중 보건 분야(97.7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의사결정 분야(37.1점)는 지속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저조

※ 보건(97.7점) > 교육·직업훈련(94.8점) > 문화·정보(85.9점) > 복지 (79.0점) > 경제활동 (77.6점) > 안전(73.6점) > 가족(67.5점) > 의사결정(37.1점)

※ (전년 대비 상승) 가족(2.2점 ↑), 문화·정보(1.4점 ↑), 경제활동(1.2점 ↑), 안전(0.8점 ↑), 교육·직업훈련(0.3점 ↑), 복지(0.3점 ↑), 보건(0.1점 ↑)

(전년 대비 하락) 의사결정(1.2점 ↓)

□ (지표별) 전체 25개 중 18개 지표 상승, 6개 지표는 하락, 1개 지표는 전년 동일

○ (상승) 육아휴직 성비(5.0점 ↑), 성별정보화격차(3.7점 ↑), 4급 이상 공무원 성비(3.4점 ↑),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2.8점 ↑) 등이 상승

○ (하락) 정부위원회 위촉직 성비(4.4점 ↓), 관리자 성비(3.3점 ↓), 여가시간 성비(1.0점 ↓) 등은 하락

6. 분야별 성평등 지표 추이와 특징

□ (경제활동 분야) '22년 77.6점으로 전년(76.4점) 대비 1.2점 상승

○ 상용근로자 성비가 가장 크게 개선되었으며, 경제활동참가율 및 성별 임금격차 성비 점수도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 ('21) 女 59.9/男 78.0 → ('22) 女 61.8/男 79.0

* 월급여총액(천원): ('21) 女 2,314/男 3,439 → ('22) 女 2,485/男 3,661

*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 ('21) 女 65.4/男 76.9 → ('22) 女 67.3/男 77.7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 점수〉

연도	경제활동 분야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성비
'21년	76.4	76.8	67.3	85.1
'22년	77.6	78.2	67.9	86.6
(증감)	1.2	1.4	0.6	1.5

□ (의사결정 분야) '22년 37.1점으로 전년(38.3점) 대비 1.2점 하락했으며, 여전히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음.

○ 4급 이상 여성공무원 증가로 공직에서 여성 대표성이 높아졌으나,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과 관리직 성비 점수는 감소

* 국회의원의 여성비율(%): ('21) 19.0 → ('22) 18.6

* 4급 이상 공무원(명): ('21) 女 1,672/男 6,807 → ('22) 女 1,848/男 6,714

* 관리직 중 여성관리자 비율(%): ('21) 16.3 → ('22) 14.7

*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 ('21) 39.8 → ('22) 38.2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점수〉

연도	의사결정 분야	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관리직 성비	정부위원회 위원
'21년	38.3	22.9	39.5	25.8	65.0
'22년	37.1	22.3	42.9	22.5	60.6
(증감)	-1.2	-0.6	3.4	-3.3	-4.4

- (교육·직업훈련 분야) '22년 94.8점으로 전년(94.5점) 대비 0.3점 하락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전년 대비 여성은 감소하였으나,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완전 성평등 수준 유지
 -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21) 女 77.4/男 70.3 → ('22) 女 76.6/男 70.3
 - * 평균교육연수(년): ('21, 추정) 女 12.1/男 13.2 → ('22, 추정) 女 12.2/男 13.2
 - 직업교육훈련 경험률은 남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여성의 감소폭이 남성에 비해 작아서 점수는 0.4점 상승
 - * 직업교육훈련 경험률(%): ('21) 女 45.4/男 49.6 → ('22) 女 45.0/男 48.9

〈교육·직업훈련 분야 성평등 점수〉

연도	교육·직업훈련 분야	평균교육연수 성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직업교육훈련 경험률 성비
'21년	94.5	92.1	100.0	91.5
'22년	94.8	92.6	100.0	91.9
(증감)	0.3	0.5	0.0	0.4

- (복지 분야) '22년 79.0점으로 전년(78.7점) 대비 0.3점 상승
- 빈곤율(시장소득 중위값 50% 기준)은 남녀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하나, 여성 상승율이 남성에 비해 다소 낮아서 성평등 점수는 소폭 상승
 - * 빈곤율(%): ('21) 女 22.6/男 18.9 → ('22, 추정) 女 22.8/男 19.1
 - 공적연금가입자 비율은 남녀 모두 전년 대비 높아졌고, 장애인 고용률은 여성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남성은 다소 감소
 - *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21) 女 63.3/男 70.4 → ('22) 女 65.0/男 72.0
 - * 장애인 고용률(%): ('21) 女 22.2 / 男 43.8 → ('22) 女 22.2 / 男 43.3

〈복지 분야 성평등 점수〉

연도	복지 분야	빈곤인구 성비	공적연금 가입률 성비	장애인 고용률 성비
'21년	78.7	95.4	90.0	50.7
'22년	79.0	95.5	90.2	51.3
(증감)	0.3	0.1	0.2	0.6

□ (보건 분야) '22년 97.7점으로 전년(97.6점) 대비 0.1점 상승하였으며,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

○ 건강 삶의 질 및 건강검진 수검률은 성별 격차가 감소하였으나, 스트레스 인지율은 성별 격차 증가

* 건강 삶의 질(EQ-5D): ('21) 女 0.962/男 0.972 → ('22, 추정) 女 0.964/男 0.973

* 건강검진 수검률(%): ('21) 女 73.6/男 74.8 → ('22, 추정) 女 75.0/男 75.8

* 스트레스 인지율(%): ('21) 女 28.1/男 24.7 → ('22, 추정) 女 28.0/男 24.2

〈보건 분야 성평등 점수〉

연도	보건 분야	건강 관련 삶의 질 (EQ-5D) 성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21년	97.6	99.0	98.4	95.5
'22년	97.7	99.1	98.9	95.1
증감	0.1	0.1	0.5	-0.4

□ (안전 분야) '22년 73.6점으로 전년(72.8점) 대비 0.8점 상승하였지만, 8개 분야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

○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남녀 모두 개선되고 성별 격차도 완화되었으나, 강력 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폭행) 피해자 성비는 하락

* 사회안전인식 비율(%): ('21, 추정) 女 28.6/男 36.5 → ('22) 女 29.7/男 37.0

*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피해자 비율(%): ('21) 89.2 → ('22, 추정) 89.2

〈안전 분야 성평등 점수〉

연도	안전 분야	전반적 사회 안전인식 성비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 비율
'21년	72.8	78.5	67.1
'22년	73.6	80.2	67.0
증감	0.8	1.7	-0.1

□ (가족 분야) '22년 67.5점으로 전년(65.3점) 대비 2.2점 상승

-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여전히 남성보다 긴 상태이나,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증가
 - * 가사시간(시간:분, 추정): 취업자 ('21) 女 2:26/男 0:51 → ('22) 女 2:27/男 0:52
비취업자 ('21) 女 3:52/男 1:08 → ('22) 女 3:53/男 1:09
 - * 육아휴직자(명): ('21) 女 81,516/男 29,039 → ('22) 女 93,245/男 37,884
-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비교적 큰 폭으로 2.8%p 상승하고,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완전 성평등 상태에서 0.5%p 상승
 - * 가족관계 만족도(%): ('21, 추정) 女 59.8/男 63.5 → ('22) 女 63.5/男 65.5
 - *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명): ('21) 106.5 → ('22) 105.3

〈가족 분야 성평등 점수〉

연도	가족 분야	가사노동시간 성비	육아휴직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
'21년	65.3	32.0	35.6	94.1	99.5
'22년	67.5	32.6	40.6	96.9	100.0
증감	2.2	0.6	5.0	2.8	0.5

□ (문화·정보 분야) '22년 85.9점으로 전년(84.5점) 대비 1.4점 상승

- 여가시간은 남성이 여전히 여성보다 많고, 만족도도 남성이 높음
 - * 여가시간(시간:분): 취업자 ('21) 女 2:32/男 3:13 → ('22) 女 2:23/男 3:04
비취업자 ('21) 女 4:20/男 6:24 → ('22) 女 4:11/男 6:15
 - * 여가만족도(%): ('21) 女 26.1/男 27.9 → ('22, 추정) 女 29.9/男 31.4
- 정보화 수준은 여성은 상승, 남성은 하락하여 성별 격차 감소
 - * 정보화 수준(%): ('21) 女 94.4/男 105.6 → ('22) 女 96.4/男 103.6

〈문화·정보 분야 성평등 점수〉

연도	문화·정보 분야	여가시간 성비	여가만족도 성비	성별 정보화격차
'21년	84.5	70.5	93.5	89.4
'22년	85.9	69.5	95.2	93.1
증감	1.4	-1.0	1.7	3.7

7.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수준과 추이

- (총점) '22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는 65.7점으로, 전년(65.5점) 대비 0.2점 상승
- (영역별) 7개 영역 중 교육 영역(95.4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의사결정(30.7점)과 돌봄(31.4점) 영역은 낮은 수준
 - ※ 교육(95.4점) > 건강(92.4점) > 양성평등의식(80.0점) > 소득(78.5점) > 고용(74.0점) > 돌봄(31.4점) > 의사결정(30.7점)
 - ※ (전년 대비 상승) 소득(2.0점 ↑), 양성평등의식(1.1점 ↑), 고용(1.0점 ↑), 교육(0.1점 ↑)
(전년 대비 하락) 의사결정(3.4점 ↓), (전년 동) 건강, 돌봄
- (지표별) 전년 대비 전체 23개 중 11개 지표 상승, 3개 지표는 하락, 9개 지표는 전년 동
 - (상승) 성별임금격차(3.4점 ↑), 4급 이상 공무원 성비(2.7점 ↑), 국민연금수급률 성비(2.6점 ↑) 등이 상승
 - (하락) 장관비율 성비(18.5점 ↓), 관리자 성비(3.3점 ↓) 등은 하락
 - * 전년과 동일한 지표는 일부 해당연도 통계가 부재하여 해당연도와 가장 가까운 통계 동일 적용
- (의사결정 영역) '22년 30.7점으로 전년(34.1점) 대비 3.4점 하락했으며, 7개 영역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음
 - 4급 이상 여성 공무원과 법원·검찰·경찰 관리자의 여성 비율은 상승하나, 장관, 국회의원,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하락
 - * 국회의원 여성 비율(%): ('21) 19.0 → ('22) 18.6
 - * 장관 여성 비율(%): ('21) 27.8 → ('22) 16.7
 - *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21) 21.5 → ('22) 23.2
 - * 관리직 중 여성 비율(%): ('21) 16.3 → ('22) 14.7
 - * 법원·검찰·경찰 관리자 여성 비율(%): ('21) 28.3 → ('22) 29.5

〈의사결정 영역 성평등지수 값〉

연도	의사결정 영역	국회의원 비율 성비	장관 비율 성비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관리자 비율 성비	법원·검찰· 경찰 관리자 비율 성비
'21년	34.1	22.9	38.5	44.0	25.8	39.4
'22년	30.7	22.3	20.0	46.7	22.5	41.8
(증감)	-3.4	-0.6	-18.5	2.7	-3.3	2.4

□ (고용 영역) '22년 74.0점으로 전년(73.0점) 대비 1.0점 상승

○ 정규직 비율 성비가 가장 크게 개선되었으며, 고용률, 노동시장 직종분리, 경력단절 여성 비율순으로 점수 상승

* 고용률(%): ('21) 女 57.7/男 75.2 → ('22) 女 60.0/男 76.9

* 정규직 비율(%): ('21) 女 52.6/男 69.0 → ('22) 女 54.0/男 69.4

* 노동시장 직종분리(턴칸지수): ('21) 43.5 → ('22) 42.7

* 경력단절여성비율(%): ('21) 17.4 → ('22) 17.2

〈고용 영역 성평등지수 값〉

연도	고용 영역	고용률(15~64세) 성비	정규직 비율 성비	노동시장 직종분리 ¹⁾	경력단절 여성비율 ²⁾
'21년	73.0	76.7	76.2	56.5	82.6
'22년	74.0	78.0	77.8	57.3	82.8
(증감)	1.0	1.3	1.6	0.8	0.2

□ (소득 영역) '22년 78.5점으로 전년(76.5점) 대비 2.0점 상승

○ 시간당 임금은 남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며, 성별 격차는 다소 감소

* 시간당 임금(원): ('21) 女 15,082/男 22,632 → ('22) 女 18,113/男 25,886

○ 국민연금 수급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상승 되어, 성별 격차는 감소

* 국민연금수급률(%): ('21) 女 38.5/男 57.1 → ('22) 女 41.4/男 59.1

* 빈곤율(%): ('21~'22) 女 22.6/男 18.9

〈소득 영역 성평등지수 값〉

연도	소득 영역	성별임금격차	비빈곤율 성비	국민연금수급률 성비
'21년	76.5	66.6	95.4	67.4
'22년	78.5	70.0	95.4	70.0
(증감)	2.0	3.4	-	2.6

□ (교육 영역) '22년 95.4점으로 전년(95.3점) 대비 0.1점 상승

○ 평균교육연수는 전년 대비 여성이 소폭 증가하여, 성별 격차는 감소

* 평균교육연수(년): ('21) 女 11.8/男 13.1 → ('22) 女 11.9/男 13.1

○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전년 대비 남녀 모두 상승하나,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완전 성평등 수준 유지

*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21) 女 70.5/男 66.6 → ('22) 女 72.4/男 68.0

〈교육 영역 성평등지수 값〉

연도	교육 영역	평균교육연수 성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성비
'21년	95.3	90.6	100.0
'22년	95.4	90.9	100.0
(증감)	0.1	0.3	-

□ (건강 영역) '22년 92.4점으로 전년대와 동일하며, 7개 영역 중 성평등 수준이 2번째 높은 수준

○ 주관적 건강상태와 스트레스 비인지율은 전년대와 동일하며, 건강수명은 남녀 모두 증가

* 주관적 건강상태(%): ('21~'22) 女 33.4/男 39.7

* 건강수명(세): ('20~'21) 女 64.9/男 64.0 → ('22) 女 66.6/男 65.1

* 스트레스 인지율(%): ('21~'22) 女 31.3/男 26.2

〈건강 영역 성평등지수 값〉

연도	건강 영역	주관적 건강상태 ¹⁾ 성비	건강수명 성비	스트레스 비인지율 성비 ²⁾
'21년	92.4	84.1	100.0	93.1
'22년	92.4	84.1	100.0	93.1
증감	0.0	-	0.0	-

□ (돌봄 영역) '22년 31.4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7개 영역 중 성평등 수준이 2번째 낮은 수준

○ 가사노동시간이 30.7점, 육아휴직 사용 31.7점, 노인돌봄 분담 31.7점으로 모든 지표에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가사시간(시간:분): ('19~'22) 취업자 女 2:24/男 0:49, 비취업자 女 3:50/男 1:06

* 육아휴직자(명): ('21~'22) 女 132,913/男 42,197

* 노인돌봄분담(%): ('20~'22) 女 75.9/男 24.1

〈돌봄 영역 성평등지수 값〉

연도	돌봄 영역	가사노동시간 성비	육아휴직사용자 성비	노인돌봄분담 성비
'21년	31.4	30.7	31.7	31.7
'22년	31.4	30.7	31.7	31.7
증감	-	-	-	-

□ (양성평등의식 영역) '22년 80.0점으로 7개 분야 중 3번째로 높은 수준

○ 성차별 경험률은 남녀 모두 하락하며, 성별 격차는 다소 감소

* 성차별 경험률(%): ('21) 女 10.4/男 4.6 → ('22) 女 7.6/男 3.1

○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점차 높아지며,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은 낮은 수준

*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 ('21) 82.7 → ('22) 84.6

*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20~'22) 60.1

〈양성평등의식 영역 성평등지수 값〉

연도	양성평등의식 영역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성차별 경험률 성비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21년	78.9	82.7	93.9	60.1
'22년	80.0	84.6	95.4	60.1
증감	1.1	1.9	1.5	-

8. 양성평등수준 변화 원인과 관리 방안

□ 분야별 성평등 변화 원인

- 국가성평등지수 변화와 분야별 개선 효과 분석은 국가성평등 수준은 2022년 76.0점으로 2017년 이래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국가성평등지수는 8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가중 평균을 통해 산정됨 따라, 각 분야가 성평등지수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야별 증감 수준과 가중치의 곱을 통해 파악함.
- 2017년 대비 분야별 성평등 변화가 국가성평등지수 개선(3.9점)에 미친 효과를 살펴 보면, 안전과 가족 분야의 효과가 0.97점으로 가장 높고, 경제활동 0.84점, 의사결정 0.66점, 복지 0.44점, 교육·직업훈련 0.21점, 보건 0.06점의 개선 효과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남. 즉, 경제활동의 경우 성평등 개선 수준은 의사결정보다 작았으나 국가성평등지수 개선에 미친 영향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문화·정보 분야의 변화는 국가성평등지수 개선에 0.21점 낮추는 효과를 보임.
- 전년 대비 국가성평등지수는 0.6점 상승하며, 분야별로 보면, 가족(2.2점), 문화·정보(1.4점), 가족(1.2점), 안전(0.8점), 교육·직업훈련(0.3점), 복지(0.3점), 보건(0.1점) 등의 순으로 성평등 개선이 있었고, 의사결정(-1.2점)에서만 성평등이 감소함. 이들 점수 개선이 국가성평등지수에 미친 영향을 보면, 가장 크게 개선된 가족이 0.24점으로 가장 컸고, 경제활동(0.23점), 문화·정보(0.11점), 안전(0.10점) 등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교육·직업훈련(0.04점), 복지(0.04점), 보건(0.01점)이 성평등 개선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의사결정 분야는 국가성평등지수를 0.16점 낮추는 요인이었음.

□ 성평등지수 활용과 관리 방안

- 첫째, 국가성평등지수는 지표의 관리기관과 협력하여 지표를 개선·관리방안 제언
- 둘째, 중앙행정 부처는 성평등 관리 지표에 대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과의 연계 분석이 필요성 제언

목 차

I.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과 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7
II. 국가성평등지수 개요	9
1. 지표의 특징과 구성	11
가.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변화와 법적 기반	11
나.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 및 분야별 지표구성	14
2. 산정 방법	16
3.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구성과 산정 방법	23
가.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별 지표구성	23
나.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산정 방법	28
III.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과 추이	35
1.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과 특징	37
가. 국가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추이	37
나. 정책영역 및 분야별 국가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38
2. 분야별 지표의 국가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44
가.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44
나.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	54
다. 성평등 인식·문화 영역	63
3.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측정 결과	71
가. 개편 국가성평등지수 수준	71
나. 영역별 국가성평등 수준	71
다. 현행과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성평등 차이와 원인	75

IV.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의 성평등 수준	77
1.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79
가.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소개	79
나. GG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84
2. 유엔개발계획의 성개발지수, 성불평등 지수, 성사회규범 지수	92
가. 성개발지수 소개	92
나. GD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96
다. 성불평등지수 소개	101
라. GI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107
마. 성사회규범지수 소개	111
바. GSNI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113
3. 국제성평등지수 비교와 한국 성평등 수준 차이	119
가.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 성평등 수준 차이 비교	119
나. 국제성평등지수에서 나타난 한국의 순위 해석 및 시사점	122
V. 양성평등수준 제고 전략	125
1. 분야별 성평등 변화와 개선 방향	127
가. 국가성평등지수 변화 원인 분석	127
나. 분야별 성평등 변화와 변화 요인	129
2. 국가성평등지수 활용과 관리 방안	138
■ 참고문헌	141
■ 부 록	145
〈부록 1〉 현행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설명	147
〈부록 2〉 현행 성평등지수의 분야별 성평등 지표의 통계표	151
〈부록 3〉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159
〈부록 4〉 여성폭력지표 통계표	162

표 목 차

〈표 I-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	6
〈표 II-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구성 변화	12
〈표 II-2〉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13
〈표 II-3〉 「양성평등기본법」 조항과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15
〈표 II-4〉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값 산정에 적용되는 조정치	18
〈표 II-5〉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별 가중치	19
〈표 II-6〉 2022년 추정 통계를 활용한 지표들	20
〈표 II-7〉 국가성평등지수 지표별 지수 산정 산식	21
〈표 II-8〉 국가성평등지수의 개편 과정	24
〈표 II-9〉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별 지표구성	27
〈표 II-10〉 여성폭력지표	27
〈표 II-11〉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값 산정에 적용되는 조정치	30
〈표 II-12〉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별 가중치	31
〈표 II-13〉 1년 이상 생산주기를 가진 통계의 최신연도	31
〈표 II-14〉 개편 국가성평등지수 지표별 측정 방법	32
〈표 III-1〉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성평등지수 변화	54
〈표 III-2〉 인권·복지 영역 성평등지수 변화	63
〈표 III-3〉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 성평등지수 변화	70
〈표 III-4〉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별 성평등	71
〈표 III-5〉 의사결정 영역 지표별 성평등 수준	72
〈표 III-6〉 고용 영역 지표별 성평등 수준	72
〈표 III-7〉 소득 영역 지표별 성평등 수준	73
〈표 III-8〉 교육 영역 지표별 성평등 수준	73
〈표 III-9〉 건강 영역 지표별 성평등 수준	74
〈표 III-10〉 돌봄 영역 지표별 성평등 수준	74
〈표 III-11〉 양성평등의식 영역 지표별 성평등 수준	75
〈표 III-12〉 국가성평등지수의 개편에 따른 삭제, 신규, 대체 지표 점수	76

〈표 IV-1〉 GGI의 구성 및 각 영역별 지표	80
〈표 IV-2〉 GGI의 지표구성과 자료원	82
〈표 IV-3〉 GGI 산정 단계	83
〈표 IV-4〉 GGI 지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83
〈표 IV-5〉 한국의 GGI 수준 추이	86
〈표 IV-6〉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의 GGI 수준 추이	87
〈표 IV-7〉 교육적 성취 분야의 GGI 수준 추이	88
〈표 IV-8〉 건강과 생존 분야의 GGI 수준 추이	89
〈표 IV-9〉 정치적 권한 분야의 GGI 수준 추이	89
〈표 IV-10〉 OECD 국가 중 GGI 1위 국가와 한국간의 점수격차(2023년)	90
〈표 IV-11〉 OECD 회원국의 GGI 현황(2023년)	91
〈표 IV-12〉 기존 GDI와 새로운 GDI 비교	93
〈표 IV-13〉 GDI 영역과 지표	94
〈표 IV-14〉 GDI 지표별 자료원(2022년)	94
〈표 IV-15〉 GDI의 최대·최소값 설정	96
〈표 IV-16〉 한국의 GDI 수준	97
〈표 IV-17〉 기존 GDI의 한국 수준	98
〈표 IV-18〉 OECD 회원국의 GDI 현황(2022년)	99
〈표 IV-19〉 GII의 영역과 지표	103
〈표 IV-20〉 GII 지표별 자료원	104
〈표 IV-21〉 한국의 GII 수준 추이	108
〈표 IV-22〉 OECD 회원국의 GII 현황(2022년)	109
〈표 IV-23〉 영역 지표별 편견의 정의 및 판단기준	111
〈표 IV-24〉 한국의 GSNI 수준: 성별	114
〈표 IV-25〉 한국의 GSNI 수준: 영역별	115
〈표 IV-26〉 OECD 회원국의 GSNI	116
〈표 IV-27〉 국제성평등지수와 OECD 회원국(38개국) 내 한국의 현황	121
〈표 IV-28〉 국제성평등지수 비교	123
〈표 V-1〉 국가성평등지수 변화	127
〈표 V-2〉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별 개선 효과	128
〈표 V-3〉 경제활동 분야 지표의 성평등 변화	129

〈표 V-4〉 의사결정 분야 지표의 성평등 변화	131
〈표 V-5〉 교육·직업훈련 분야 지표의 성평등 변화	132
〈표 V-6〉 복지 분야 지표의 성평등 변화	133
〈표 V-7〉 보건 분야 지표의 성평등 변화	134
〈표 V-8〉 안전 분야 지표의 성평등 변화	135
〈표 V-9〉 가족 분야 지표의 성평등 변화	136
〈표 V-10〉 문화·정보 분야 지표의 성평등 변화	137
〈표 V-1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별 관리와 생산기관	139

그 림 목 차

[그림 I-1]	본 연구의 주요 내용	5
[그림 II-1]	국가성평등지수 산정방법	16
[그림 II-2]	국가성평등지수의 프레임워크 변화	25
[그림 II-3]	개편 국가성평등지수 산정방법	28
[그림 III-1]	국가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37
[그림 III-2]	국가성평등지수 증감	38
[그림 III-3]	정책영역별 국가성평등 변화 추이	39
[그림 III-4]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추세	41
[그림 III-5]	여성 인권·복지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추세	42
[그림 III-6]	성평등한 의식·문화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추세	43
[그림 III-7]	성별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변화 추이	44
[그림 III-8]	임금성비 변화 추이	45
[그림 III-9]	성별 상용직 근로자 비율 변화 추이	46
[그림 III-10]	경제활동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46
[그림 III-11]	국회의원 여성 비율 변화 추이	47
[그림 III-12]	성별 4급 이상 공무원 변화 추이	48
[그림 III-13]	성별 관리자 변화 추이	49
[그림 III-14]	성별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변화 추이	50
[그림 III-15]	의사결정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50
[그림 III-16]	성별 평균 교육년수 변화 추이	51
[그림 III-17]	성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변화 추이	52
[그림 III-18]	성별 직업교육 훈련경험자 비율 변화 추이	53
[그림 III-19]	교육·직업훈련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53
[그림 III-20]	성별 공적연금 가입률 변화 추이	55
[그림 III-21]	성별 빈곤율 변화 추이	56
[그림 III-22]	성별 장애인 고용률 변화 추이	56
[그림 III-23]	복지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57

[그림 III-24]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지수 변화 추이	58
[그림 III-25]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변화 추이	59
[그림 III-26] 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변화 추이	59
[그림 III-27] 보건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60
[그림 III-28]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변화 추이	61
[그림 III-29] 성별 강력범죄(홍악범죄) 피해자 변화 추이	61
[그림 III-30] 안전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62
[그림 III-31] 가사노동 시간 변화 추이	64
[그림 III-32]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추이	65
[그림 III-33] 출산 순위별 출생성비 변화 추이	65
[그림 III-34] 성별 육아휴직자 수 변화 추이	66
[그림 III-35] 가족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67
[그림 III-36] 남녀 여가시간 및 여가시간 성비 변화 추이	68
[그림 III-37] 성별 여가만족도 변화 추이	68
[그림 III-38] 성별 정보화 격차 변화 추이	69
[그림 III-39] 문화·정보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70
[그림 IV-1] 한국의 GGI 수준 - 2023년	85
[그림 IV-2] 한국의 GGI 수준 추이 - 점수	85
[그림 IV-3] 한국의 GSNI 수준	113
[그림 IV-4] 한국의 GSNI 수준: 영역별	115
[그림 IV-5] 2010~2014년 대비 2017~2022년 편견 없는 사람 비율 개선 수준	118
[그림 V-1] 2022년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 변화	130
[그림 V-2] 2022년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변화	131
[그림 V-3] 2022년 교육·직업훈련 분야 성평등 변화	132
[그림 V-4] 2022년 복지 분야 성평등 변화	133
[그림 V-5] 2022년 보건 분야 성평등 변화	134
[그림 V-6] 2022년 안전 분야 성평등 변화	135
[그림 V-7] 2022년 가족 분야 성평등 변화	136
[그림 V-8] 2022년 문화·정보 분야 성평등 변화	137

부 표 목 차

〈부표 2-1〉 경제활동참가율	151
〈부표 2-2〉 성별 임금 격차(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151
〈부표 2-3〉 상용근로자	151
〈부표 2-4〉 국회의원	152
〈부표 2-5〉 4급 이상 공무원	152
〈부표 2-6〉 관리자 현황	152
〈부표 2-7〉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중앙행정기관)	152
〈부표 2-8〉 평균 교육년수	153
〈부표 2-9〉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53
〈부표 2-10〉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153
〈부표 2-11〉 빈곤율	154
〈부표 2-12〉 공적연금 가입자	154
〈부표 2-13〉 장애인고용률	154
〈부표 2-14〉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155
〈부표 2-15〉 건강검진 수검률	155
〈부표 2-16〉 생활 스트레스 인지율	155
〈부표 2-17〉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156
〈부표 2-18〉 강력범죄(흉악범죄) 피해자	156
〈부표 2-19〉 성별, 취업여부별 평균 가사노동 시간	156
〈부표 2-20〉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157
〈부표 2-21〉 가족관계 만족도	157
〈부표 2-22〉 육아휴직자	157
〈부표 2-23〉 성 및 취업상태별 여가시간	158
〈부표 2-24〉 여가만족도(전 연령)	158
〈부표 2-25〉 성별 정보화 격차	158
〈부표 4-1〉 성폭력 범죄 발생비	162
〈부표 4-2〉 여성 살해 발생	162

〈부표 4-3〉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 경험률	163
〈부표 4-4〉 지난 1년간 가정폭력 피해 경험률	163
〈부표 4-5〉 직장 성희롱 피해 경험률	164
〈부표 4-6〉 성폭력 및 범죄피해 두려움	165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과 방법

3
5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2016년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여성정책 패러다임도 ‘여성 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1항¹⁾은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양성평등은 양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를 보장받고 동등한 지위에서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1995년은 북경 세계여성행동강령에서 각국에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정책전담 국가기구를 설치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성평등 정책을 1988년 정부장관실 주관에서 1998년 대통령소속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2010년 여성가족부로 확대되어 성평등 정책들을 담당하고 하고 있다.

하지만 성평등 정책이 양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발표하는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에서 2023년 발표 기준 146개국 중 105위²⁾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특히 성평등 수준은 경제참여와 기회와 정치적 권한 부여 영역에 성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반면에 UNDP가 매년 인간개발보고서를 통해 발표하는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는 2022년 191개국 중 15위를 보여주어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두 성평등지수가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서로 다르게 평가하는 것은 지수의 작성 목적³⁾이 서로 달라서, 측정하는 지표와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해외 국가⁴⁾들은 자국의 성평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성평등지수를 개발하였고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국가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성평등지수를 발표했고 2011년부터는 지역성평등지수를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성평등지수는 2015년 7월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

1) 국가법령정보센터(2023.10.5), <https://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

2) WEF(2023), The Global Gender Gap Index 2022

3) 성격차지수는 성평등을 성격차가 낮은 상태를 의미하며, 경제참여, 교육, 건강, 정치적 권한 등에서 성격차가 적을수록 성평등한 것이고, 이는 국가경쟁력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봄. 이에 비해 성불평등지수는 인간개발에서 성 불평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손실을 측정하는 지수로, 우리나라에서 성불평등지수가 낮다는 것은 인간개발에서 불평등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4) 노르웨이 통계청(2008), 독일 가족노인여성청년부(2011), 영국 성평등국 등의 국가는 성평등 지수를 개발하여 측정 발표하였음. 김정희·주재선·김수정·김은경(2019),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및 활용방안」, pp.32~41. 참조

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국가성평등지수를 공식으로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19조)를 마련하게 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1항은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개발 및 보급 사항에 성평등한 사회 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여성의 인권·복지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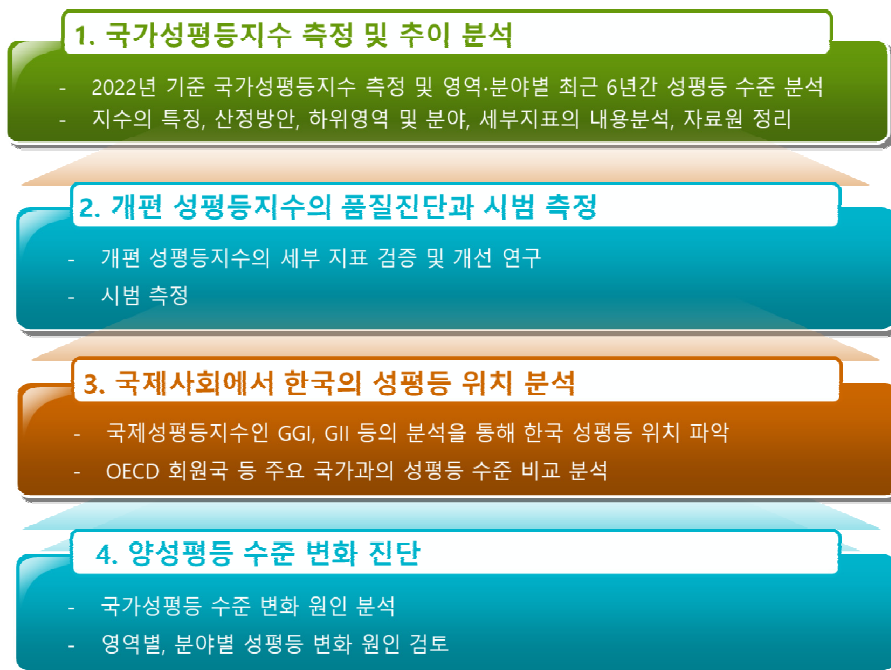
국가성평등지수는 3개 영역, 8개 분야, 25개의 지표체계로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개선 정도를 측정하고 성불평등이 심각한 분야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해 왔다. 하지만 국가성평등지수는 10년 이상 성평등 측정을 위해 활용되었던 지표들이 사회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활용도가 낮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이에 2019년에 기존 지표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연구를 추진하였다. 성평등 지표의 개편은 참여의 기회 보장, 자원의 동등한 접근과 인정을 통한 결과의 평등 보장이란 성평등 달성을 위한 3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별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영역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2020~2022년에는 전문가 자문, 공청회, 국가성평등지수 검토위원회를 거쳐서 지수의 영역과 지표, 여성 폭력영역의 핵심 지표를 잠정 확정하였다. 하지만 2023년은 측정 과정에 나타난 지표의 통계품질 문제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표가 수정되어 최종 측정 지표는 7개 영역 23개로 최종확정 하였다.

2023년 연구는 현행 국가성평등지수 지표체계에 따라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하위 지표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성평등 변화를 살펴보고, 개편안에 대해 측정하고 이를 현행 지수와 비교하고자 한다. 더불어 성격차지수(GGI), 성불평등지수(GII) 등 국제 성평등지수를 분석하여 한국의 성평등 위치와 성평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의 전략적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각 범주의 세부 내용은 [그림 I-1]과 같다.



[그림 I-1] 본 연구의 주요 내용

1)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및 추이 분석

본 연구는 국가성평등의 구성 지표들을 측정하고 영역·분야별 성평등 수준의 변화를 분석하여 국가성평등지수를 산정한다. 성평등 지표는 지표의 주기를 고려하여 그 변화 추이를 분석하며, 성평등지수와 영역별, 분야별, 지수별 수준에 대해 최근 6년간의 시계열 변화추이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영역별 구성 지표들의 변화를 주요 변수 등을 통해 국가 성평등지수와 영역별 변화 특징과 원인을 추적하고 지표별 분석을 통해 국가 성평등지수의 변화 원인을 파악하고 영역별 변화의 특성을 진단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가 성평등지수의 특성을 제시하고 지표구성과 산정 방법, 자료원 등을 구체적

으로 제시한다.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구성은 3개 영역, 8개 분야, 25개의 지표로 측정되며, 구체적인 구성 내용은 <표 I-1>과 같다.

<표 I-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

영역	분야	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성별 임금 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
	교육·직업훈련	평균 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직업교육훈련경험 비율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비빈곤 가구주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장애인고용률
	보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가사노동 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문화·정보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성별 정보화 격차

2) 개편 성평등지수의 품질진단과 측정

본 연구는 개편 성평등지수의 지표에 대해 품질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지표의 경우 자문을 통해 수정·보완하고자 한다. 개편 지수의 지표는 측정 방법, 통계 주기, 지표의 중복성, 자료원 등에 대해 통계 활용 가능성과 측정 문제를 진단하여, 통계품질에 문제가 되는 지표에 대해 대안을 찾아 제시한다. 또한 개편 성평등지수는 보완 후 측정을 통해 현행 지수와 종합지수, 영역별 지수 수준 등을 비교 분석한다.

3)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성평등 위치 분석

본 장은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 값이 성평등 수준을 어느 정도 나타내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을 분석한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성평등지수 중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 성개발지수(Gender Development Index), 젠더규범지수(Gender Social Norms Index, GSNI)와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GI)의 특징과 한국의 수준을 분석한다.

4) 양성평등수준 변화 진단

이 장에서는 국가성평등지수의 변화 원인과 영역별 변화의 특성을 통해 국가성평등의 변화 원인을 진단한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성평등 관련 방법론과 정책을 검토한다. 성평등지수와 관련된 문헌 연구, 성평등지수 관련 방법론, WEF, UNDP 등 국제기구의 성평등지수 등에 대한 문헌을 분석한다.

둘째, 지표별 성인지 통계를 수집·분석한다. 영역별 성평등 지표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자료원을 수집한다. 자료 수집은 국가통계포털 등 통계 DB와 부처의 행정통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부 통계는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수집한다.

셋째,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한다. 전문가 자문은 성평등지표 활용을 위한 자문, 최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대한 자문과 국가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내용에 대해 자문을 얻는다.

II

국가성평등지수 개요

1. 지표의 특징과 구성	11
2. 산정 방법	16
3.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구성과 산정 방법	23

1. 지표의 특징과 구성⁵⁾

가.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변화와 법적 기반

국가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성 불평등이 심각한 분야를 진단하여 성평등 정책 수립과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다. 이 지수는 2009년도에 여성 및 사회지표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전문가 및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분야와 지표 초안을 구성하였고, 법적 기반이 구축되면서 분야와 지표들이 조금씩 변경되어왔다. 이에 지표구성의 변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표 II-1>과 같다.

2009년 지표구성은 8개 분야 226개의 성평등지표 풀(pool)을 학계 및 정부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제안 받아, 자문회의, 분야별 전문가집단(교수, 연구자, 행정공무원 등) 대상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대표 지표 21개, 관리 지표 83개로 확정되었다. 여기서 대표 지표란 우리나라 전체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변화 추이, 변동 요인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과 동시에, 국가성평등지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를 의미한다. 이에 대표 지표는 분야별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가의 조사결과와 통계의 측정 가능성, 품질, 주기 등을 고려하여 21개를 선정하였다. 대표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83개)들은 관리 지표로 분류하였고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성불평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009년에 개발된 지표는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에 걸쳐 약간씩 구성상의 변화가 있었다. 개편된 지표는 성평등 수준이 완전 평등상태에 도달하거나, 성평등 측정의 적합성, 통계의 품질 문제 등을 고려하고 당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하였다. 2016년 이후도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있었으나, 2019년 성평등지수에 대한 전면 개편 연구가 진행되고 이후 성평등 지표 확정을 위한 TF 등이 구성됨에 따라 지수 측정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 단, 2018년은 복지 분야의 빈곤 가구주 비율을 성별 빈곤 인구로 변경하였다. 지표를 가구 단위의 빈곤에서 개인 단위의 빈곤으로 변경하고 빈곤 기준선을 최저소득 이하의 절대 빈곤에서 중위 소득 50% 이하 상대빈곤으로 변경하였다.

5) 주재선 외(2021), 「2021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p.11~16. 인용

〈표 II-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구성 변화

연도	지표구성 개편 내용
2009년	○ 최초 8개 분야 226개 지표폴 구성 후 자문회의를 통해 8개 분야 149개 지표 구성 ○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200명)하여 대표 지표 21개, 관리 지표 83개, 분야별 가중치 측정 ○ 최종 8개 분야(가족, 보건, 복지, 경제활동·소득,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안전) 21개의 대표 지표로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2010년	○ 8개 분야 20개의 지표로 지수 산정 - '성별 건강수명' 지표가 생산주기가 불규칙하고 완전 평등수준 도달로 삭제 -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성별 격차'를 '건강 관련 삶의 질(EQ-5D)'로 대체 - '인구 10만명 당 범죄 피해자 성별 격차'를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 피해자 비율'로 대체 - '성별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을 '상용직 근로자 비율'로 대체
2012년	○ 8개 분야 21개의 지표로 지수 산정 - '건강보험 입원급여 수급자의 성비'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급자의 성비'로 지표명 변경 - 보건 분야에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지표 추가
2014년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국가성평등지수 작성의 법적 근거 마련 ○ 8개 분야 23개의 지표로 지수 산정 - 가족 분야에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와 '육아휴직 성비' 지표 추가 - 문화·정보 분야에서 '성별 정보화 격차'를 추가하고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성비' 삭제 - 보건 분야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급자 성비' 삭제
2016년	○ 8개 분야 25개의 지표로 지수 산정 - 의사결정 분야에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을 '4급 이상 공무원 비율'로 수정하고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 추가 - 보건 분야에서 '스트레스 인지율' 추가
2018년	○ 복지 분야 빈곤지표 측정 방법 변경 - 성별 빈곤가구수를 성별 빈곤인구로 변경함. 즉, 가구 단위 빈곤 지표를 개인 단위 빈곤으로 변경하고 빈곤 기준선을 최저소득 이하의 절대 빈곤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상대 빈곤 기준선으로 변경

자료: 주재선 외(2022), 『2022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12. 인용

국가성평등지수는 법적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 2009년 첫 개발 시 국가성평등지수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의 '3-2-1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를 토대로 성평등지표를 통하여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산정·발표되었으나, 2015년 7월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공표되면서 법적 근거(제19조)를 갖게 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19조는 ①항을 보면, 국가성평등지표는 세 개의 영역 즉,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5조는 국가성평등지수의 구체적 측정 분야를 규정하고 있다.

〈표 II-2〉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공표 등) ①여성가족부 장관이 조사·공표하는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이하 “국가성평등지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이하 “지역성평등지수”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2. 보건, 복지 및 인권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3. 의사결정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4.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22.11.1.), <https://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

국가성평등지수는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복합지수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과 성격을 가진다.

첫째, 국가성평등지수는 정책의 투입(Input)보다 성과(Outcome)를 측정하도록 개발되었다. 성평등지수는 지수의 목적에 따라 투입지표와 성과지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성평등지수 중 OECD의 사회제도와 젠더지수(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SIGI)는 성 불평등을 초래하는 전통, 사회적 규범, 문화적 관습 및 제도와 같은 투입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하지만 대부분 국제성평등지수는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성평등을 측정한다. 성평등 수준의 국가별 비교를 위해서 측정·발표되고 있는 WEF의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Social Watch의 성형평성지수(Gender Equity Index), UNDP의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와 성개발지수(Gender Development Index)는 물론 지금은 발표되지 않지만 2010년까지 가장 널리 활용되었던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또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측정되는 지수이다.

둘째, 국가성평등지수는 성별 수준(Level)보다 성별 격차(Gap)에 초점을 두고 측정된다. 성별 수준은 자원과 기회에 대한 남녀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하지만 수준은 한 국가의 개발 정도와 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단점으로 인해, 분야별 성평등 수준이 성취 정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가 있다. 국가성평등지수를 성별 격차로 산정한다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성격차 해소에 두고

추진한다는 의미이다. 여성의 수준 개선과 성 격차의 해소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성평등 정책의 지향점에 따라서 약간 달리 해석된다. 즉, 성평등 정책의 지향점을 수준 개선에 둔다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항상 낮은 수준의 지표 개선에 있을 것이고, 성격차 해소에 둔다면 남녀의 수준 차이가 큰 지표에 우선순위를 두고 개선하게 될 것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원칙적으로 두 목적을 모두 고려하고 있지만, 측정방법론 관점으로 볼 때, 성별 격차의 해소에 더 큰 관심을 둔 지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성평등지수는 성 격차가 감소할 때 성평등이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셋째, 국가성평등지수는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데 활용하는 지표와 함께 각 분야의 성평등 정도를 점검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측정된다. 이에 국가성평등지수는 성평등 달성 뿐만 아니라 여성 지위 및 권한 향상을 목적으로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성평등지수는 대표 지표와 관리 지표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대표 지표는 지수 산정에 활용하고 관리 지표는 성평등 변화를 점검하고 성평등 변화 원인, 성평등 정책 효과 등을 추적하기 위해 활용된다.

나.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 및 분야별 지표구성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제19조 ①항과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영역과 분야를 구성하고 있다.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구성은 3개의 정책영역, 8개 분야의 2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의 정책영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있는 영역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제3장 중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제4절 양성평등 문화확산이 국가성평등지수의 정책영역으로 구성되고, 분야는 시행령 15조에 따라 정책영역별로 배치하고 있다.

제3장 제2절 양성평등 참여와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제20조 적극적 조치,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2조 공직 참여, 제23조 정치 참여, 제24조 경제활동 참여, 제25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26조 일·가정 양립지원, 제27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제28조 여성인재의 관리·육성으로 구성되어 있다.⁶⁾ 이들은 시행령 15조에 따라 국가성평등지수에서는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분야와 연계 구성하였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장의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영역은 제29조 성차별의 금지, 제30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31조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방지 조치, 제32조 성희롱 실태조사, 제33조 복지증진, 제34조 건강증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시행령 15조에 근거하여 국가성평등지수 중 복지, 보건, 안전 분야에 연계되어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단, 시행령 15조는 복지, 보건, 인권으로

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

되어 있으나, 인권 분야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안전으로 좁혀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장의 제4절 양성평등 문화확산 등에 속하는 조항으로는, 제35조 양성평등한 가족, 제36조 양성평등 교육, 제37조 양성평등 문화조성, 제38조 양성평등주간, 제39조 여성친화도시, 제40조 국제협력, 제41조 평화·통일 과정 참여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시행령 15조에 의해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로는 가족과 문화·정보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정책영역과 분야를 연계한 후 지표는 정책영역의 성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하였다. 단, 지표의 선택은 통계의 주기, 품질, 안정성, 포괄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분야별 지표 구성은 2016년 일부 변경 후 2017년부터는 산정의 안정성을 위해 변경 없이 8개 분야 25개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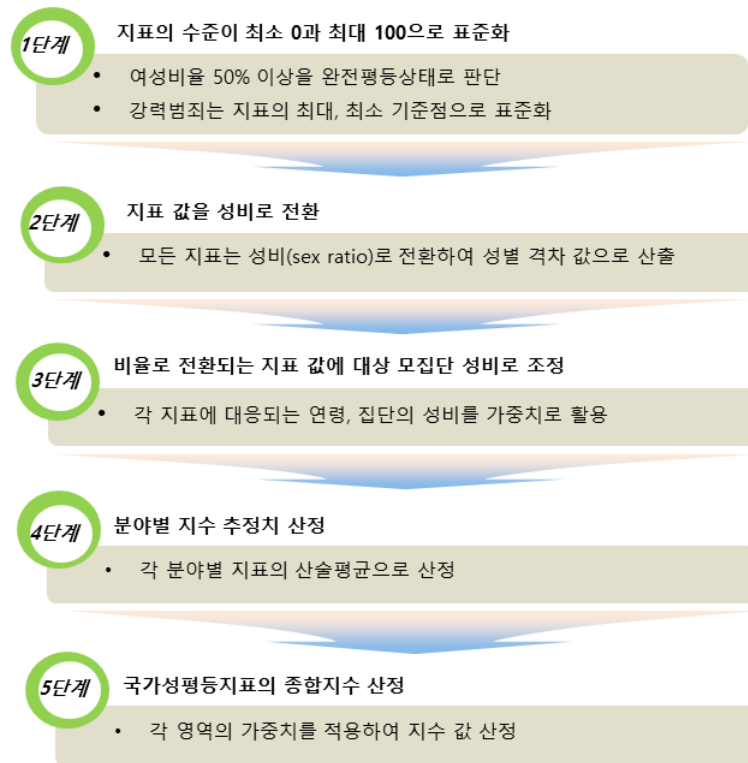
〈표 II-3〉 「양성평등기본법」 조항과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정책영역	분야	지표
① 성평등한 사회참여 - 「양성평등기본법」 제2절 - (양성평등 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성별 임금 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
	교육·직업훈련	평균 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직업교육훈련경험 비율
② 여성의 인권·복지 - 「양성평등기본법」 제3절 -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	복지	비빈곤인구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장애인고용률
	보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안전	전반적 안전의식 비율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 비율
③ 성평등 의식·문화 - 「양성평등기본법」 제4절 - (양성평등 문화확산 등)	가족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비율 육아휴직자 비율
	문화·정보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성별 정보화 격차

자료: 주재선 외(2022), 「2022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15. 인용

2. 산정 방법)

국가성평등지수는 다음의 5단계를 거쳐 복합 지수로 산정된다.



[그림 II-1] 국가성평등지수 산정방법

단계1은 지표를 표준화(Normalization)하는 단계이다. 표준화는 지표값을 성평등 최저점 '0'에서 최고점 '1(혹은 100)'로 만드는 과정이다. 모든 지표는 남녀의 비율 50% 지점에서 완전 성평등 기준점 '1(혹은 100)'을 만족하며, 지표의 최저치와 최고치를 제한하지 않는다. 단, 강력범죄피해자와 같은 부정적 지표는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한하고 있다. 최대-최소치를 설정한다는 것은 지표의 수준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으로 강력범죄피해자의 경우 10만 명당 최대치는 300명⁸⁾으로 제한했고 최소치는 피해자가

7) 주재선 외(2022), 「2022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p.16-22에서 인용 및 수정

8) 최대치를 300명으로 제한한 이유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7개 시도의 강력범죄자의 10만명 당 발생 건수는 여성의 경우 최소 48.8명, 최대 140.7명이고 남성의 경우 최소 9.1명,

없는 0명으로 두었다. 지표 값이 최대치에 가까울수록 높은 페널티를 받아 0에 가깝게 되고, 역으로 최소치에 가까울수록 1에 수렴하게 된다. 이 지표의 표준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⁹⁾

$$I = [(Max(x) - x) / (Max(x) - Min(x))]$$

단계2는 지표 값을 성비(Female-to-male ratio)로 전환하는 단계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수준 자체보다 여성과 남성의 성취 수준을 보여주기 위해 지표 값을 남녀의 성비로 전환한다.

단계3은 성비로 전환된 지표 값을 관련 대상 모집단으로 보정하는 단계이다. 성평등은 남녀가 동등한 권리, 의무, 기회를 얻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정한 성평등지표의 지숫값을 산정할 경우, 해당 성평등 지표의 대상이 되는 성별 인구로 조정한다. 국가성평등지수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보면 <표 II-4>와 같다.

경제활동 분야의 지표 중에서 상용근로자와 관리자의 경우 각각 15세 이상 남성 임금 근로자에 대한 여성 임금근로자 비율의 역수와 남성 취업자에 대한 여성 취업자 비율의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하고 있다.

가족 분야의 셋째 아 출생성비는 자연출생성비(Sex ratio at birth)를 조정치로 활용하고 있다. 성비 계산도 국제기구와 동일한 방식인 여성 대비 남성 비의 역수를 활용하며, 여기에 자연 출생 성비인 1.06을 가중치로 부여한다. 그리고 가사노동시간은 취업 여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과 비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 평균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최대 49.4명이었음. 이에 10만명 당 최대 발생 건수인 140.7명의 두 배를 수준인 300명을 페널티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두었음. 페널티 기준(300명)에 가까우면 점수가 크게 낮아지며, 이 기준을 넘어설 경우 성비와 관계없이 성평등 점수는 0점이 됨.

9) 지수의 표준화 방법은 기준점(reference point)으로부터 거리, 범주별 점수화, 서열화

$I = Rank(X)$, 정규화 $I = \frac{X - X_m}{\sigma}$, 최소-최대 $I = \frac{X - Min(X)}{Max(X) - Min(X)}$, 평균 이상과 이하의 점수화 등의 방법이 있음.

〈표 II-4〉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값 산정에 적용되는 조정치

분야별 성평등지표	조정치	분야별 성평등지표	조정치
경제활동 분야		교육·직업훈련 분야	
경제활동참가율	-	평균 교육연수	-
성별 임금 격차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
상용근로자 비율	임금근로자 성비 역수	직업교육훈련경험 비율	임금근로자 성비 역수
가족 분야		의사결정 분야	
가사노동 시간	취업상태별 평균 가사노동시간 활용	국회의원 비율	25세 이상 인구의 성비 역수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자연출생성비 1.06 역수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전체 공무원 수의 성비 역수
가족관계 만족도	-	관리자 비율	취업자 성비 역수
육아휴직자	-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	-
보건 분야		복지 분야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	비빈곤인구 비율	-
건강검진 수검률	-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18~59세 인구 성비 역수
스트레스 인지율	-	장애인고용률	-
문화·정보 분야		안전 분야	
여가시간	취업상태별 평균 여가시간 활용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
여가만족도	-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 비율	전체 인구 성비 역수
성별 정보화 격차 (디지털정보화격차)	-		

주: 성비는 지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여성/남성」 비율을 나타냄.

의사결정 분야의 경우는 지표를 2016년에 5급 이상 공무원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교체하였다. 4급 이상 직급의 공무원 성비 ‘(4급 이상 여성 공무원)/(4급 이상 남성 공무원)’에 대해 가중치, 즉 남녀공무원 성비의 역수인 ‘(전체 남성 공무원 수/전체 여성 공무원 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동 분야 지표인 국회의원 비율과 관련된 가중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선거권 행사 연령인 25세 이상 인구 성비의 역수이다.

복지 분야의 지표인 공적연금가입자 비율은 18~59세 인구 성비 역수를 가중치로 적용하였다. 이외 문화·정보 분야의 지표인 여가 시간의 가중치는 20세 이상 인구의 성비

역수이고, 안전 분야의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성비를 가중치로 설정하였다. 또한, 여가시간은 앞서 가사노동시간과 동일하게 취업상태의 영향을 고려하여 취업자의 여가시간과 비취업자의 여가시간을 평균한 값을 활용하고 있다.

단계4는 분야별 점수를 산정하는 단계이다. 분야별 지수값은 단순 평균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국제성평등지수 중 WEF의 GGI는 각 하위분야 지수에 속하는 지표의 가중치를 이용해서 분야별 지수 값을 산정한다. 이때 가중치는 지표 값의 표준편차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해서 남녀격차가 큰 국가는 상대적으로 큰 페널티를 받도록 설계하였다¹⁰⁾. 이와 같은 방식은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차이가 작은 지표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케 할 수 있으나 한 국가의 지수 산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볼 수 없다. 이에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별 지수는 모든 지표 값의 개선 정도를 동일한 가치로 보고 단순 평균하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단계5는 국가성평등지수 값을 산정하는 단계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서로 다른 8개 분야의 구성 지표들로 구성된 복합지수(Composite Index)로, 분야별 가중치를 활용하여 산정된다. 국가성평등지수의 가중치는 계층적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이란 통계적 방법을 통해 산출하였다. 계층적 분석법은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해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가성평등지수의 가중치는 2009년 성평등 관련 전문가인 교수, 연구자,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분석 결과 상대적 가중치는 경제활동 0.19, 의사결정 0.13, 교육·직업훈련 0.14, 복지 0.13, 보건 0.10, 안전 0.12, 가족 0.11, 문화·정보 0.08이었다. 본 연구에서 성평등지수의 최종 지표 값은 개별 분야별 지표 값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표 II-5〉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별 가중치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0.19	0.13	0.14	0.13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0.10	0.12	0.11	0.08

10) GGI의 교육 분야의 지표 중에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을 보면 2012년 지수의 경우 상대적으로 표준편차가 적은 초등학교 취학률(표준편차: 0.060)의 가중치가 0.459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중등학교(표준편차: 0.120) 0.230, 고등교육기관(표준편차: 0.228) 0.121순이었음(WEF(2012), p.5.)

한편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 산정원칙은 2022년 기준의 통계를 활용한다. 하지만 국가성평등지수 중 일부 지표의 경우 생산주기가 1년 이상(2년 혹은 5년)이며, 1년 주기인 경우에도 2023년 11월 말까지 공표되지 못한 통계가 있다. 이 경우 본 연구에서는 외삽법(extrapolation)을 이용한 추정치를 활용하고 있다. 외삽법은 일반적으로 5년의 평균 변화를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하나, 2년 주기는 두 조사의 평균 변화를 통해 산정했다. 반면 1년 주기로, 최근 통계가 발표되지 않을 경우, 지난 5년 평균 변화를 적용하여 2022년 통계를 추정하여 활용하였다.

〈표 II-6〉 2022년 추정 통계를 활용한 지표들

지 표	추정 방법	주기
가사노동 시간의 성비	2014년과 2019년의 평균변화를 적용	5년
여가시간의 성비	2014년과 2019년의 평균변화를 적용	5년
평균 교육연수 성비	2015년과 2020년의 평균변화를 적용	5년
빈곤률 성비	2016년과 2021년의 평균변화 적용	1년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2016년과 2021년의 평균변화 적용	1년
건강검진수검률 성비	2016년과 2021년의 평균변화 적용	1년
스트레스인자율 성비	2016년과 2021년의 평균변화 적용	1년
강력범죄피해자 성비	2016년과 2021년의 평균변화 적용	1년

〈표 II-7〉 국가성평등지수 지표별 지수 산정 산식

분야 및 분야별 지표	지표 값 계산방법	계산 산식	비고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X = [F / M]$	15~64세 인구
성별 임금격차	남녀 근로자의 임금 성비	$X = [F / M]$	
상용근로자 비율	대상 남녀 임금근로자 비율로 조정된 상용근로자 성비	$X = W_m/f \times [F / M]$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25세 이상 남녀 인구 비율로 조정된 국회의원의 성비	$X = W_m/f \times [F / M]$	전국구+지역구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대상 성별 공무원 인원 비율로 조정된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X = W_m/f \times [F / M]$	
관리직 비율	대상 성별 취업자 비율로 조정된 관리직 성비	$X = W_m/f \times [F / M]$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비율 성비	$X = [F / M]$	
교육·직업훈련			
평균 교육연수	평균 교육연수의 성비	$X = [F / M]$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고등교육기관(전문대 이상) 진학률 성비	$X = [F / M]$	
직업교육훈련경험 비율	임금근로자 중 직업교육훈련경험이 있는 비율의 성비	$X = [F / M]$	
복지			
비빈곤인구 비율	대상 남녀 인구 비율로 조정된 비빈곤인구 성비	$X = W_m/f \times [F / M]$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18~59세 남녀 인구 비율로 조정된 연금가입자 성비	$X = W_m/f \times [F / M]$	
장애인고용률	장애인고용률 성비	$X = [F / M]$	
보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	$X = [F / M]$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X = [F / M]$	

분야 및 분야별 지표	지표 값 계산방법	계산 산식	비고
스트레스 인지율	비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X = [F' / M']$, $F'=100-F$, $M'=100-M$ 여기서 F와 M은 여성과 남성의 스트레스 비인지율	스트레스 비인지율로 변경 후 산정
안전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사회 안전 인식에 대한 성비	$X = W_m/f \times [(F / M)]$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강력범죄로 부터 안전한 남녀 비율의 성비(역수) ¹¹⁾	$X = [S_m / S_f](-1)$ S_m 혹은 $S_f = [(300 - x)/300]$ 으로 표준화	Max(x)=300 Min(x)=0
가족			
가사노동 시간	취업상태를 고려한 가사시간 성비 (역수) ¹²⁾	$X = (T_{Em} + T_{Nm}) / (T_{Ef} + T_{Nf})$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자연출생성비(1.06)로 조정된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X = [M / F] \times \frac{1}{1.06}$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X = [F / M]$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자 성비 (역수)	$X = [M / F]$	
문화·정보			
여가시간	취업상태를 고려한 여가시간 성비 ¹³⁾	$X = [(LT_{Ef} + LT_{Nf}) / (LT_{Em} + LT_{Nm})]$	
여가만족도	여가만족도 성비	$X = [F / M]$	
성별 정보화(디지털정보화) 격차	인터넷과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한 성비	$X = [F / M]$	

주: 1) F, M은 각각 해당 지표 여성지표 값과 남성지표 값을 나타냄.

2) W_m/f : 가중치(Weight)로써 해당 지표의 적용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여성인구/남성인구)의 역수, ‘T’는 100을 나타냄.

11) S_f , S_m 은 상대적으로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한 남녀비율, p_f , p_m : 지표 대상 인구의 여성비율, 남성비율을 나타냄.

12) T_{Em} , T_{Nm} , T_{Ef} , T_{Nf} : 각각 남성취업자, 남성비취업자, 여성취업자, 여성비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을 나타냄.

13) LT_{Em} , LT_{Nm} , LT_{Ef} , LT_{Nf} : 각각 남성취업자, 남성비취업자, 여성취업자, 여성비취업자의 여가시간을 나타냄.

3.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구성과 산정 방법

가.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별 지표구성

국가성평등지수는 2019년에 변화된 사회와 성평등 이슈를 고려하여 지표의 전면 개편을 실시하게 된다. 지표의 변경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⁴⁾. 첫째, 기존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는 사회변화에 따른 성차별 현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젠더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현행 지수의 안전 지표는 일반적인 안전에 대한 의식 측정이나 강력범죄피해자의 성비 등에 국한되어 있다. 현재의 지표로는 그 동안 누적된 심각한 젠더폭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에 적합성이 부족하며, 젠더폭력의 측정에서 있어서도 폭력피해자의 성별 격차가 아니라 젠더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구성이 필요했다.

둘째, 사회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셋째 아출생 성비나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성비 등을 들 수 있다.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 지표는 참여 여부가 아니라, 변화하는 산업 및 노동시장에서 성별화되고 있는 직업훈련의 내용을 반영하여 노동시장 진입 및 경력 형성에서 나타나는 성불평등을 측정하거나 교육과 직업훈련에서의 성별분리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과 문화 분야는 성불평등을 파악하기에 적절치 않은 지표들로 구성되어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가족 분야의 지표 중 셋째아 출산율은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저출산 시대에 지표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며, 가족관계 만족도, 여가 만족도, 정보화 격차 등은 가족 내의 성불평등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성평등지수 전면 개편의 또 다른 배경은 성평등지수에 대한 정책 활용도와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국가성평등지수는 대표 지표와 관리 지표를 구분하여, 대표 지표는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면서 성평등지수 산정 지표로 활용하고, 관리 지표는 부처별로 연계 관리하는 방안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성평등지수는 대표 지표를 활용한 산정 이외 관리 지표는 부처별 협력 부족으로 정책개선 도구로서 역할이 낮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성가족부는 2019년 국가성평등지수의 개편 논의와 기초 연구를 추진하였고, 2020년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 타당성 검증과 가중치 설정,

14) 개편 사유는 김경희·주재선·김수정·김은경(2019),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및 활용방안」, pp. 5~6 내용을 인용 및 요약 정리한 것임.

공청회 등을 거쳤다. 그리고 2021년 개편안에 대해 지수검토위원회를 통해 재차 지표를 검토·보완하고 이를 관계부처와 지자체 의견 조회, 정책자문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친 후 2022년 1월 최종안에 대해 양성평등위원회가 심의·확정하였다. 그리고 2023년은 젠더 의식 영역의 명칭과 지표의 통계적 문제로 인해 영역 명과 일부 지표를 변경하였다. 젠더 의식 영역은 명칭에 있어 다소 명확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의식 영역으로 영역 명을 변경하였다. 또한 양성평등의식 영역 지표 중 노동시장성평등태도는 통계 품질 문제로 인해 삭제하고,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과 성차별 경험률을 양성평등의식 영역에 새로 추가하여 보완하였다.

〈표 II-8〉 국가성평등지수의 개편 과정

연도	지표
2019년	기초 연구 추진: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및 활용 방안
	자문단 구성, 포럼 2회, 토론회 1회 실시
2020년	전문가(86명)를 통한 지표 타당성 검증(7월)
	영역별 가중치 설정(7월)
	개편 성평등지수의 공청회 개최(11월 19일)
2021년	지수 검토위원회를 통한 검토·보완(4~7월) * 검토위원: 분야별 전문가 17명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조회(6~9월)
	정책자문위원회(여성정책 분과) 검토(8월)
2022년	양성평등위원회 심의·확정(1월)
2023년	젠더의식 명칭과 해당 지표 일부 수정 보완 * (변경) 젠더의식 → 양성평등의식 (추가)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과 성차별 경험률 추가, (삭제) 노동시장성평등 태도(사유: 통계 활용의 품질 문제)

개편 성평등지수는 성평등 개념에 대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이에 근거하여 시의성과 적합성을 갖춘 지표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성평등지수 프레임워크는 성평등을 권한 및 자원의 동등한 분배, 인정(recognition), 그리고 동등한 참여로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성평등 개념을 기반으로 3대 목표를 ‘동등한 권한’, ‘자원의 동등한 접근’, ‘평등한 관계’로 설정하고,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의사결정, 노동, 소득, 교육, 건강, 돌봄, 의식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23개의 지표 구성하여 구축하였다. 그리고 여성

폭력은 별도의 특별 지표로 설정하여 3개 분야의 6개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그림 II-2] 국가성평등지수의 프레임워크 변화

개편 성평등지수는 목표-영역-지표구성 체계는 <표 II-9>와 같다. 영역별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사결정 영역은 여성의 정치·사회·경제적 권한을 보여주는 영역으로 정치적 대표성, 행정적 대표성, 경제적 대표성을 고려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이 영역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낮은 성취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개선되어야 할 영역이다. 의사결정 영역 지표는 국회의원 비율, 장관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법원, 검찰, 경찰 고위직 비율, 관리자 성비 등 5개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고용 영역은 우리 사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보상은 개선되고 있으나, 개선 속도가 높지 않은 영역이다. 이 영역은 성평등과 관련하여 노동참여(기회)와 노동시장의 분절적 구조에 주목하고, 여성의 노동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률, 정규직 비율, 경력 단절여성 비율, 노동시장 직종분리를 지표로 선정하였다.

소득 영역은 임금 및 자산 소득과 같은 시장소득 분배의 평등과 사회소득의 재분배적 보장의 성평등을 고려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지표 구성은 측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성별 임금격차, 빈곤율, 국민연금수급률을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교육 영역은 교육 기회와 교육의 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하였다. 기존 지표 체계에서 교육은 평균 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직업훈련 경험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회 및 성취를 나타내는 지표로 평균 교육연수는 유지하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을 대신하여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을 대체하기로 하였다.

건강 영역은 기존 지표의 경우 여성의 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목표 하에 세 가지 지표인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을 사용하였으나, 2022년 지표는 젠더 이슈가 낮은 지표를 제외하고 건강 상태 중심으로 지표를 재편하여, 주관적 건강 상태, 건강수명, 스트레스 인지율로 구성하였다.

돌봄 영역은 유급 노동과 무급노동 모두 여성 집중과 평가절하가 두드러진 영역임에도 그동안 성평등 지표체계에서 돌봄 불평등 문제는 명시적으로 제기되지 못했다. 이에 가족 영역에 포함되어 있어 돌봄을 하나의 영역으로 드러내어 측정하게 되었다. 돌봄 영역은 돌봄의 평등한 참여와 공유, 그리고 돌봄노동에 대한 인정을 측정 개념으로 하여 구성 지표는 가사노동 시간, 육아휴직 참여, 노인돌봄 분담 등 3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양성평등의식 영역은 성평등지수 개편에 따라 돌봄과 함께 포함된 영역으로, 양성평등 의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영역이다. 양성평등의식 영역은 “의식”과 관련된 영역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표들과 구분되지만, 기존 성평등지수에서도 ‘가족관계 만족도’와 ‘여가만족도’ 등의 주관적 지표가 있었고,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에도 주관적 웰빙 영역에 삶의 ‘만족도’ 등 주관적 차원은 국가지표체계에 일부 반영됐다. 이에 개편 성평등지수는 성역할 규범과 성평등 의식 등 양성평등의식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의식 영역을 성평등을 측정하는 하나의 영역으로 구분했고 지표는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성차별 경험률,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구성하여 제안하였다.

한편 여성폭력 영역은 성별 격차가 아니라 폭력의 실태와 심각성 파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평등지수 점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고 핵심 지표로 별도 관리한다. 여성폭력 영역은 발생 현황, 피해 현황, 사회환경의 세부 영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대상 지표는 총 6개로 ‘성폭력 범죄 발생비’, ‘여성 살해 발생비’,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 경험률’, ‘지난 1년간 가정폭력(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률’, ‘직장 성희롱 피해 경험률’, ‘성폭력 및 범죄 피해 두려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지표인 여성폭력 지표는 성평등지수의 변화와 여성 폭력 변화를 연계 분석하고 여성의 폭력 실태와 심각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표 II-9〉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별 지표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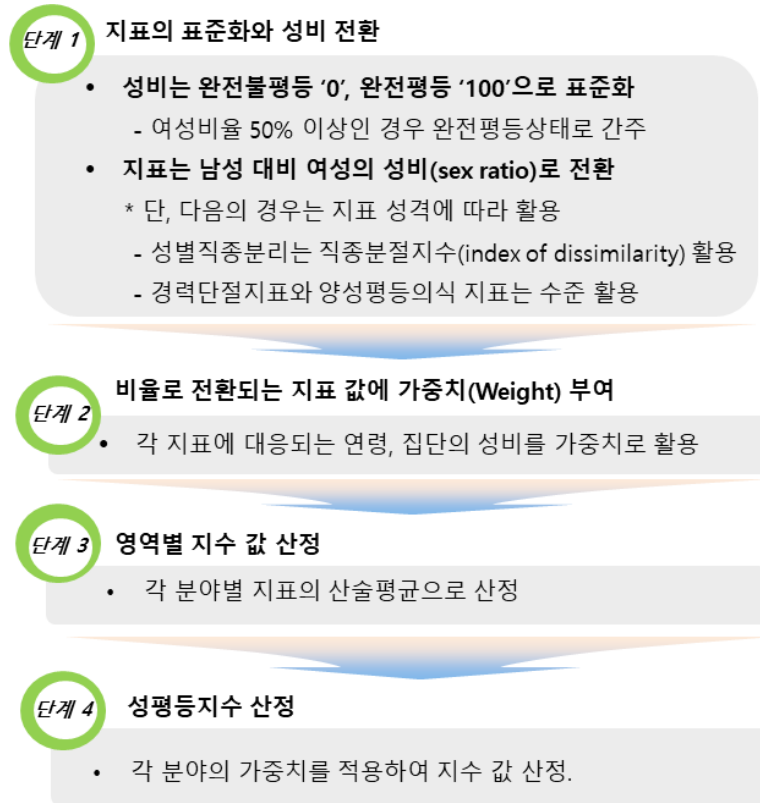
목표	영역	지표
동등한 권한	의사 결정	국회의원 비율
		장관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법원, 검찰, 경찰 고위직 비율
		관리자 성비
자원의 동등한 접근	고용	고용률
		정규직 비율
		노동시장 직종 분리
		경력단절 여성 비율
	소득	임금격차
		빈곤율(비빈곤율)
		국민연금수급률
	교육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수명
평등한 관계	돌봄	정신건강(스트레스 비인지율)
		가사노동 시간
		육아휴직 참여
	양성평등의식	노인돌봄 분담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성차별 경험률
	여성폭력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특별영역으로 관리

〈표 II-10〉 여성폭력지표

세부 영역	지표	자료원(주기)
발생현황	성폭력 범죄 발생비	경찰청, 경찰청범죄분석(1년 주기)
	여성 살해 발생비	경찰청, 경찰청범죄분석(1년 주기)
피해현황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 경험률	여성가족부, 성폭력안전실태조사(3년 주기)
	지난 1년간 가정폭력(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률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3년 주기)
	직장 성희롱 피해 경험률	여성가족부, 성희롱실태조사(3년 주기)
사회환경	성폭력 및 범죄 피해 두려움	여성가족부, 성폭력안전실태조사(3년 주기)

나.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산정 방법

개편 국가성평등지수는 다음의 4단계를 거쳐 지수를 산정한다.



[그림 II-3] 개편 국가성평등지수 산정방법

단계 1은 지표를 표준화(Normalization)와 성비로 전환하는 단계이다. 표준화는 지표의 점수 범위를 성평등 최저 '0'에서 최고 '100'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여기서 최고점수인 '100'은 완전평등상태라고 말하며, 여성 혹은 남성 비율이 50% 지점에서 나타난다. 단, 성평등지수는 여성의 수준을 개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표산정에서 여성 비율이 50% 이상이면 완전평등상태로 측정하였다. 반면 경력단절여성비율과 성별 직종분리 지표, 양성평등의식 영역의 가족 내 성역할 고정 관념과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은 여성 비율 50% 이상이 아닌 다른 방식을 선택하였다.

구체적으로 경력단절여성비율은 남성 통계가 없는 지표이다. 따라서 이 지표는 완전 불평등을 모든 비취업 여성이 경력단절을 사유로 이전 직장을 그만둔 상태로 보았고, 완전평등상태를 경력단절 사유로 그만 둔 비취업 여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보았다. 다음으로 성별 직종분리 지표는 성별 직종분리 현상을 분포의 차이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즉 성별로 직종의 분리가 전혀 없는 경우가 완전평등 상태이며, 성별이 직종으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을 때 완전불평등 상태가 된다. 직종분리 산정은 비유사 지수(Index of dissimilarity, ID)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산식을 통해 구한다.

$$ID = \frac{1}{2} \sum_i \left| \frac{M_i}{M} - \frac{F_i}{F} \right| \times 100$$

여기서 M_i = i 직업의 남성 취업자, M = 남성취업자, F_i = i 직업의 여성 취업자, F = 여성 취업자이다.

다음으로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과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은 성별 격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준을 파악해 성평등 정도를 측정한다. 왜냐하면 두 지표는 최근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젠더 의식 수준이 남녀 모두에서 정체되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젠더의식 지표는 격차를 측정하는 것보다 현재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성평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들 지표를 제외한 지표는 모두 성비(Female-to-male ratio)로 전환하여 측정한다. 성비는 격차와 수준의 변화를 모두 설명해 주는 방법론으로 일반적으로 남성을 기준으로 여성의 비율로 측정한다. 단지, 가사노동시간과 육아휴직 참여의 경우, 여성 보다는 남성의 상황 개선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역성비(Male-to-female ratio)를 통해 지표를 측정하였다.

단계 2는 성비로 전환된 지표 값을 관련 대상 모집단으로 보정 하는 단계이다. 성평등은 남녀가 동등한 권리, 의무, 기회를 얻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정한 성평등지표의 지숫값을 산정할 경우, 해당 성평등 지표의 대상이 되는 성별 인구로 조정한다. 예를 들어, 4급 이상 직급의 공무원 성비 '(4급 이상 여성 공무원)/(4급 이상 남성 공무원)'는 남녀공무원 성비의 역수인 '(전체 남성 공무원 수/전체 여성 공무원 수)'로 보정한다. 한편 가사노동시간은 취업 여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상 인구로 조정하는 방식이 아닌 취업자와 비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 평균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국가성평등 지수 중 성비 조정치를 부여한 영역과 지표는 <표 II-11>과 같다.

〈표 II-11〉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값 산정에 적용되는 조정치

영역	지표	조정
의사결정	국회의원	25세 이상 인구 역성비
	4급 이상 공무원	전체 공무원 역성비
	관리자 비율	취업자 역성비
소득	국민연금 수급률	60세 이상 인구의 역성비
돌봄	가사노동시간	취업상태별 가사노동 시간 평균(성별 취업비율 고려)

주: 성비는 지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여성/남성」 비율을 나타냄

단계 3은 영역별 점수를 산정하는 단계이다. 영역별 지숫값은 단순 평균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국제성평등지수 중 WEF의 GGI는 각 하위영역 지수에 속하는 지표의 가중치를 이용해서 영역별 지수를 산정한다. 이때 가중치는 지표 값의 표준편차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해서 성별 격차가 큰 국가는 상대적으로 큰 페널티를 받도록 설계하였다¹⁵⁾. 이와 같은 방식은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차이가 작은 지표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케 할 수 있으나 한 국가의 지수 산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볼 수 없다. 이에 국가성평등 지수의 영역별 지수는 모든 지표 값의 개선 정도를 동일한 가치로 보고 단순 평균하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단계 4는 국가성평등지수 값을 산정하는 단계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서로 다른 7개 영역의 구성 지표들로 구성된 복합지수(Composite Index)로, 영역별 가중치를 활용하여 산정된다. 국가성평등지수의 가중치는 계층적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이란 통계적 방법을 통해 산출하였다. 계층적 분석법은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해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가성평등지수의 가중치는 2020년 성평등 관련 전문가인 교수, 연구자, 공무원 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분석 결과 상대적 가중치는 의사결정 0.1434 고용 0.1761 소득 0.1635 교육 0.0809, 건강 0.0854, 돌봄 0.1683 양성평등의식 0.1824이었다.

15) GGI의 교육 분야의 지표 중에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을 보면 2012년 지수의 경우 상대적으로 표준편차가 적은 초등학교 취학률(표준편차: 0.060)의 가중치가 0.459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중등학교(표준편차: 0.120) 0.230, 고등교육기관(표준편차: 0.228) 0.121순이었음(WEF(2012), p.5)

〈표 II-12〉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별 가중치

영역	가중치	영역	가중치
의사결정	0.1434	건강	0.0854
고용	0.1761	돌봄	0.1683
소득	0.1635	양성평등의식	0.1824
교육	0.0809	-	-

한편 국가성평등지수 산정원칙은 2022년 기준의 통계를 활용한다. 하지만 국가성평등지수 중 일부 지표의 경우 생산주기가 1년 이상(2년, 3년, 5년)이며, 1년 주기인 경우에도 2023년 11월 말까지 공표되지 못한 통계가 있다. 이 경우 본 연구에서는 당해 11월 말 기준 최신 통계¹⁶⁾를 활용하고 있다.

〈표 II-13〉 1년 이상 생산주기를 가진 통계의 최신연도

지 표	주기	최신통계
가사노동 시간의 성비	5년	2019년
노인돌봄 분단	3년	2021년
가족내 성역할 고정관념	3년	2020년
건강수명	2년	2020년

16) 이와 같은 방법은 WEF가 성격차지수를 측정시 활용하는 방법이며, 대부분의 성평등지수는 국가간 비교에서 일정 시점 기준에서 가용한 최신 통계를 활용하여 성평등지수를 산정하고 있음.

〈표 II-14〉 개편 국가성평등지수 지표별 측정 방법

영역 및 구성 지표	지표 값 측정방법	산식 (백분율로 표시)	비고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25세 이상 성별 인구 비율로 조정된 국회의원의 성비	$X = W_m/f \times [F / M] \times 100$	전국구+지역구
장관 비율	장관 비율의 성비	$X = [F / M] \times 100$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공무원 인원 비율로 조정된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X = W_m/f \times [F / M] \times 100$	
법원/검찰/경찰 관리자 비율	법관, 검찰, 총경 이상 경찰관 합의 성비	$X = [F_t / M_t] \times 100$ Ft=여성 법관+검찰+총경이상 경찰관 Mt=남성 법관+검찰+총경이상 경찰관	
관리자 비율	임금근로자로 조정한 관리자 성비	$X = W_m/f \times [F / M] \times 100$	
고용			
고용률	15~64세 고용률 성비	$X = [F_r / M_r] \times 100$ Fr=여성 고용률, Mr=남성 고용률	15~64세
정규직 비율	(100-비정규직 비율) 성비 * 비정규직 비율은 성별임금근로자로 조정한 비정규직 성비	$X = [(100- F_r) / (100-M_r)]$ Fr=여성 비정규직비율, Mr=남성 비정규직비율	
노동시장 직종분리	성별 상이성지수(Index of Dissimilarity)로 산정된 값 * 산정에 활용된 직종은 중분류	$ID = \frac{1}{2} \sum_i \left \frac{M_i}{M} - \frac{F_i}{F} \right \times 100$	ID는 상이성지수
경력단절여성 비율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가족돌봄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비율 * 측정 지표는 비취업이 경력단절 사유가 아닌 비율 활용	$X = 100 - F_r$ Fr=경력단절여성 비율	수준으로 측정
소득			
임금격차	시간당 임금에 대한 성비	$X = [F / M] \times 100$	

영역 및 구성 지표	지표 값 측정방법	산식 (백분율로 표시)	비고
비빈곤율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중위 50% 이하 소득자 비율 성비	$X = [(100-Fr) / (100-Mr)] \times 100$ Fr=여성 빈곤율, Mr=남성 빈곤율	
국민연금 수급률	60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의 공적연금수급자 비율	$X = W_m/f \times [F / M] \times 100$ F, M=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	
교육			
평균 교육 연수	평균 교육 연수의 성비	$X = [F / M] \times 100$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고등교육기관(전문대 이상) 취학률 성비 산식: $\frac{\text{고등교육기관 재학생}}{18 \sim 21 \text{세 인구}} \times 100$ * 휴학생 제외	$X = [Fr / Mr] \times 100$ Fr=여성 대학취학률, Mr=남성 대학취학률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좋은 편이다'로 응답한 비율의 성비	$X = [Fr / Mr] \times 100$	
건강수명	기대여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수명의 성비	$X = [F / M] \times 100$	
스트레스 비인지율	만 19세 이상 인구의 스트레스 비인지율 성비	$X = [(100-Fr) / (100-Mr)] \times 100$ Fr=여성 스트레스 인지율 Mr=남성 스트레스 인지율	스트레스인지비율을 비인지비율로 변경 후 측정
돌봄			
가사노동시간	취업자 비율로 조정한 가사노동시간(가정관리+돌봄노동) 역성비	$X = W_f/m \times [(M' / F')] \times 100$ M', F'는 남성 혹은 여성 취업자의 평균가사노동시 간과 비취업자의 평균가사노동시간을 단순평균한 값(성별 취업률 보정을 위해 활용)	남성 대비 여성의 비중으로 산정

영역 및 구성 지표	지표 값 측정방법	산식 (백분율로 표시)	비고
육아휴직사용비율	당해연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 역성비	$X = [M / F] \times 100$	남성 대비 여성의 비중으로 산정
노인돌봄분담	노인돌봄분담시간의 역성비	$X = [M / F] \times 100$	남성 대비 여성의 비중으로 산정
양성평등의식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여성 인권이 존중되는 수준	$X = Tr$ Tr은 '매우 존중된다'와 '존중되는 편이다'의 비율	수준으로 측정
성차별 경험률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받은 차별 * 신체적/언어적폭력, 일자리관련 차별, 시설 이용 등의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등 포함	$X = [Fr / Mr] \times 100$ Fr=여성 성차별 경험 Mr=남성 성차별 경험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12세 이상 인구 중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비동의(전혀 동의하지 않음+동의하지 않음)하는 비율 * 성역할 고정관념 4개 질문에 대한 비동의 비율 평균으로 계산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가족 돌봄(자녀, 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X = Tr$ Tr은 응답자의 성역할 태도에 대해 비동의하는 비율	수준으로 측정

주: 1) F, M은 각각 해당 지표 여성지표 값과 남성지표 값을 나타냄.

2) W_{m/f}: 가중치(Weight)로써 해당 지표의 적용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여성인구/남성인구)의 역수, 'T'는 100을 나타냄.

Ⅲ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과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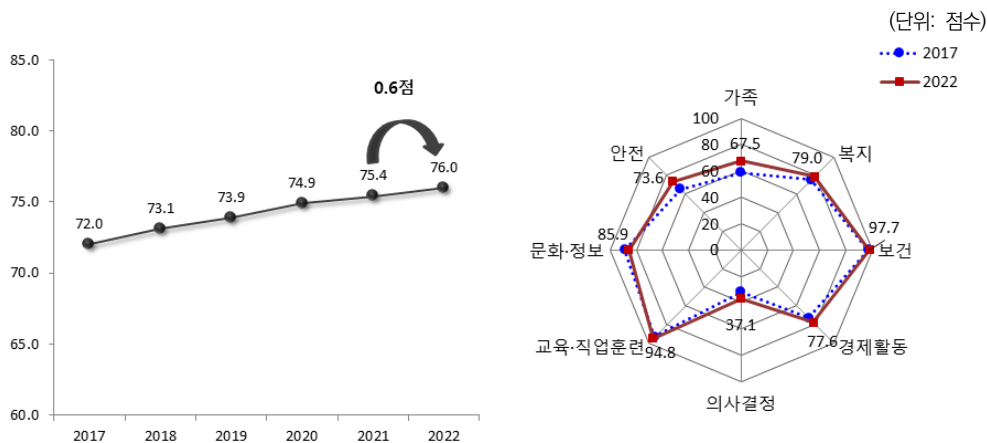
1.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과 특징	37
2. 분야별 지표의 국가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44
3.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측정 결과	71

1.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과 특징¹⁷⁾

가. 국가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추이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¹⁸⁾은 2022년 기준 76.0점이다. 국가성평등 수준은 2017년 72.0점이라 2022년까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은 전년 대비 0.6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분야별 국가성평등지수 값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보건 분야가 97.7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직업훈련 분야(94.8점), 문화·정보 분야(85.9점), 복지 분야(79.0점), 경제 활동 분야(77.6점), 안전 분야(73.6점)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의사결정 분야는 37.1점으로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고, 가족 분야(67.5점)는 성평등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70.0점 이하로 나타난다.



[그림 Ⅲ-1] 국가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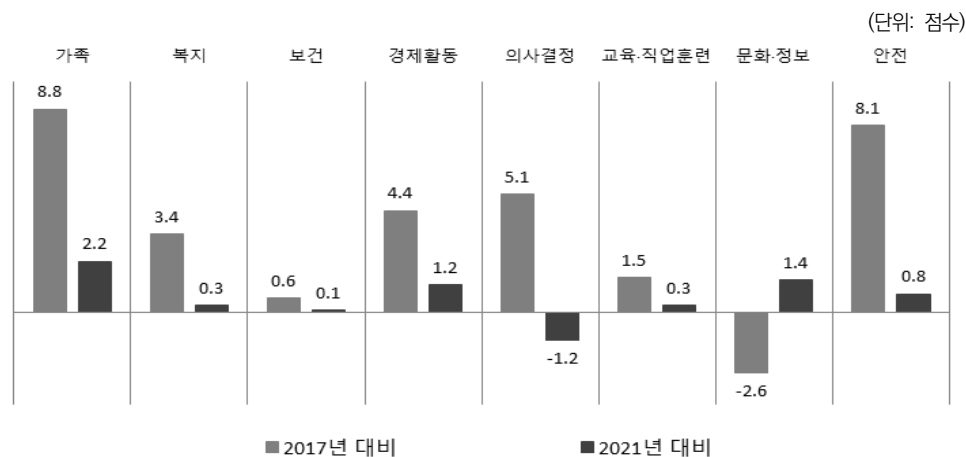
국가성평등지수는 매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2017년과 2021년을 비교하여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그림 Ⅲ-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2017년과 비교해 보면,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는 가족 분야로 8.8점 상승하였다. 다음으로 많이 개선된 분야는 안전 분야 8.1점, 의사결정 분야 5.1점, 경제활동 분야 4.4점, 복지 분야 3.4점, 교육·직업훈련 분야 1.5점, 보건 분야 0.6점 순이었다.

17) 본 보고서의 Ⅲ장은 국가성평등지수 측정을 수행해 온 주재선이 작성한 원고를 재구성 함.

18) 본 보고서에 제시된 모든 연도는 지표의 통계 생산연도를 기준으로 제시함.

이에 비해 문화·정보 분야는 2017년과 비교하여 오히려 2.6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해 보면, 2017년 이래 국가성평등지수가 상승하는 이유는 가족, 안전, 의사결정, 경제활동, 복지 분야의 상승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2021년 대비 국가성평등지수의 증감을 살펴보면,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안전 분야에서 개선되고, 의사결정 분야에서 하락하였다. 2021년 대비 가족 분야는 2.2점이 상승했고 문화·정보(1.4점 ↑), 경제활동(1.2점 ↑), 안전(0.8점 ↑), 교육·직업훈련(0.3점 ↑), 복지(0.3점 ↑), 보건(0.1점 ↑) 순으로 소폭 개선되었다. 반면 의사결정 분야는 1.2점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II-2] 국가성평등지수 증감

나. 정책영역 및 분야별 국가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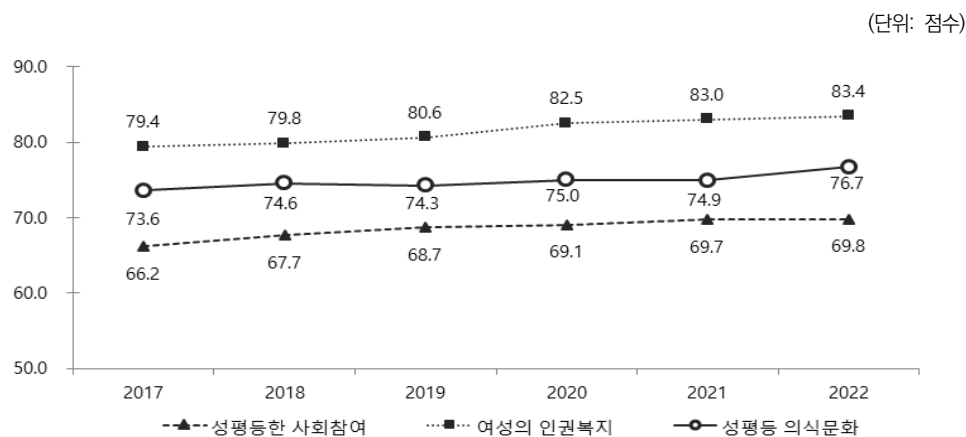
정책영역별 국가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으로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83.4점)의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고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76.7점),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69.8점)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분야로 측정되며, 이 영역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7년 66.2점에서 2022년 69.8점으로 3.6점 상승한다. 이와 같은 상승은 세 분야 모두의 상승에 기인한 것이지만 특히 의사결정과 경제활동 분야의 동기간 상승이 높았기 때문이다. 의사결정 분야는 2017년 32.0점에서 2022년 37.1점으로 5.1점 상승했고, 경제활동 분야는 2017년 73.2점에서 2022년 77.6점으로 4.4점 상승하였다. 한편 전년 대비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0.2점 상승하였는데, 상승의 주된

원인은 경제활동 분야의 개선이다. 세 분야 중 경제활동 분야는 전년 대비 1.2점 개선되었으며,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0.3점 개선된다. 반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중 의사결정 분야는 1.2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가족과 문화·정보 분야로 측정되는 영역이다. 이 영역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7년 73.6점에서 2022년 76.7점으로 지난 5년간 3.1점 상승했다. 지난 5년 간 이 영역에서의 성평등 개선은 가족 분야의 성평등 개선 때문이다. 가족 분야는 2017년 58.7점에서 2022년 67.5점으로 동기간 8.8점 상승했다. 그러나 가족 분야의 높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의 전반적인 개선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못한데, 그 이유는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 수준 하락 때문이다. 문화·정보 분야는 2017년 88.5점에서 2022년 85.9점으로 동기간 2.6점 하락하였다. 전년 대비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1.8점 상승하는데, 이는 가족 분야와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이 전년 대비 각각 2.2점, 1.4점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복지, 보건, 안전 분야로 구성되어있다. 이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세 개 영역 중 가장 높고 성평등 수준도 지속해서 상승하는 영역이다. 이 영역의 성평등 지수 값은 2017년 79.4점에서 2022년 83.4점으로 동기간 4.0점 개선되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2017년 대비 안전 분야가 8.1점 상승하여 성평등 수준이 가장 크게 개선되었고 복지 분야(3.4점↑), 보건 분야(0.6점↑)의 개선이 다음으로 높았다. 2021년과 비교해 보면, 안전 분야가 0.8점, 복지 분야가 0.3점, 보건 분야가 0.1점 상승한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이 영역의 성평등은 전년 대비 0.4점 개선한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Ⅲ-3] 정책영역별 국가성평등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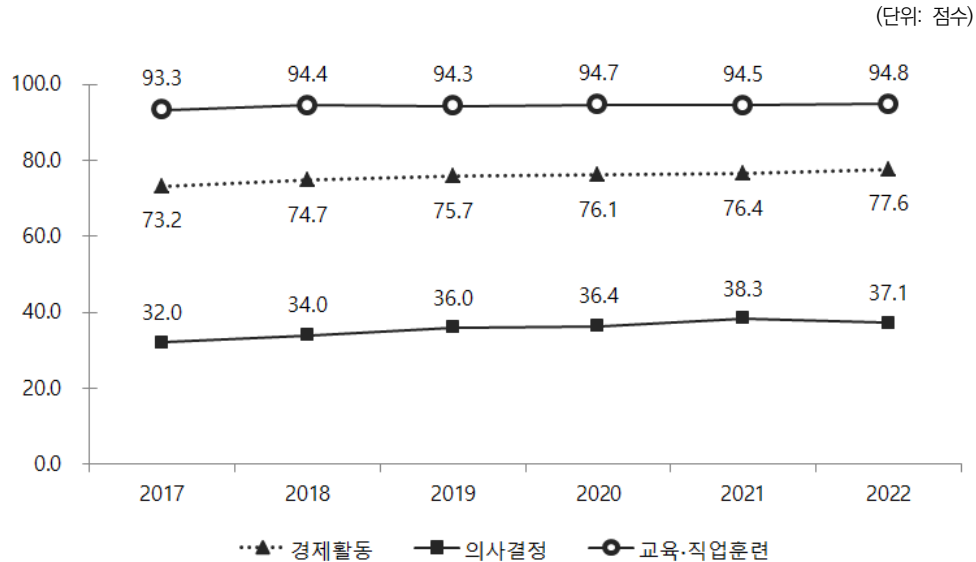
1)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경제활동 분야, 교육·직업훈련 분야, 의사결정 분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2022년 기준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교육·직업훈련 분야로 94.8점이고, 경제활동 분야 77.6점, 의사결정 분야 37.1점 순이다.

연도별 성평등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활동 분야는 2017년 73.2점, 2019년 75.7점, 2021년 76.4점으로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며 2022년 77.6점으로 전년 대비 1.2점 상승한다. 경제활동 분야의 점수 상승은 세 개의 지표 모두가 개선되어 나타난다. 2017년 대비 경제활동 참가율, 임금 성비, 상용직 비율은 각각 2.8점, 3.2점, 6.1점 개선된다. 특히 상용직 비율 성비 개선은 지난 5년간 높은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을 끌어 올리는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2년은 COVID-19 상황에서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하는 시기로, 경제활동참가율과 상용직 비율 성비가 전년 대비 1.4점과 1.5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 임금 격차는 2019년 이래 계속 악화되다가 2022년 전년 대비 0.6점 상승한다.([그림 III-10] 참고).

의사결정 분야는 2017년 32.0점에서 2022년 37.1점으로 5.1점 상승한다. 의사결정 분야의 상승은 4급 이상 공무원의 성비 개선이 주된 원인이다.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2017년 27.8점에서 2022년 42.9점으로 동기간 15.1점 상승한다. 관리자 성비는 2017년 19.3점에서 2022년 22.5점으로 3.2점 상승하며, 국회의원 성비는 2017년 19.9점에서 2022년 22.3점으로 2.4점 상승하는 반면,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는 동기간 동안 0.4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의사결정 분야는 2021년 대비 1.2점의 하락을 보이는데, 이는 전년 대비 4급 이상 공무원 성비(3.4점 상승)를 제외하고 국회의원 성비(0.6점 하락), 관리자 성비(3.3점 하락),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4.4점 하락) 등에서 하락했기 때문이다.([그림 III-15] 참고)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2017년 93.3점에서 2022년 94.8점으로 소폭 상승한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8개의 성평등 분야 중 두 번째로 높은 분야로, 세 지표 모두의 성평등 수준 변화가 높지 않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17년부터 완전평등상태(100.0점)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교육년수 격차는 점차 해소되어 성평등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 한편 직업교육훈련경험 성비는 2018년 이래 92점 전후로 등락하는 등 이 분야 지표는 전반적으로 성평등 변화가 크지 않은 가운데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그림 III-19] 참고)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4]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추세

2)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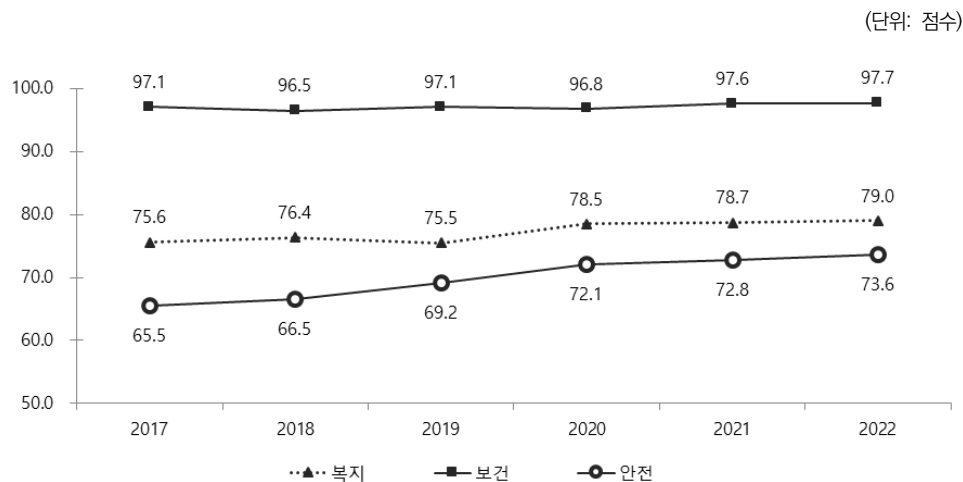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보건 분야, 복지 분야, 안전 분야로 측정된다. 2022년 기준 이 영역은 83.4점으로 세 영역 중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다. 분야별로 보면, 성평등 수준은 보건 분야가 97.7점으로 가장 높았고, 복지 분야는 79.0점, 안전 분야는 73.6점으로 모두 70점 이상의 성평등을 보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 분야는 2017년 97.1점에서 2022년 97.7점으로 동기간 0.6점 상승한다. 상승 원인을 살펴보면,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와 건강관련 삶의 질 지수가 5년 전과 비교하여 각각 2.0점과 0.3점 높아졌기 때문이다. 보건 분야를 구성하는 세 지표는 모두 95점 이상으로 높은 성평등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 분야는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비빈곤 인구 성비, 장애인 고용률로 구성되며, 2017년 75.6점에서 2022년 79.0점으로 3.4점 상승한다. 이 분야의 주된 상승 원인은 공적연금 가입자와 장애인 고용률의 개선 때문이다.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의 경우 2017년 84.0점에서 2022년 90.2점으로 6.2점 개선되며, 장애인 고용률 성비는 동기간 3.4점 상승한다. 비빈곤인구 비율은 성별 모두 빈곤율이 하락하면서, 성비는 2017년 94.9점에서 2022년 95.5점으로 0.6점 상승한다([그림 Ⅲ-23] 참고). 한편 2021년과 비교하여 복지 분야는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공적연금가입자, 비빈곤가구주 비율의

상승으로 0.3점 상승한다.

안전 분야의 구성 지표는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성비와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로 구성된다. 안전 분야는 2017년 65.5점에서 2022년 73.6점으로 8.1점 상승했다. 높은 성평등 상승의 주된 원인은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의 성비 개선 때문이다.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성비는 2017년 67.3점에서 2022년 80.2점으로 12.9점 개선된다.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는 2017년 63.6점 이래 성비가 등락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2022년 67.0점으로 3.4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전년 대비 안전 분야는 0.8점 개선되며, 지표별로는 전반적 사회 안전의식 성비가 1.7점 높아졌고,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는 0.1점 낮아졌다.([그림 III-30] 참고).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III-5] 여성 인권·복지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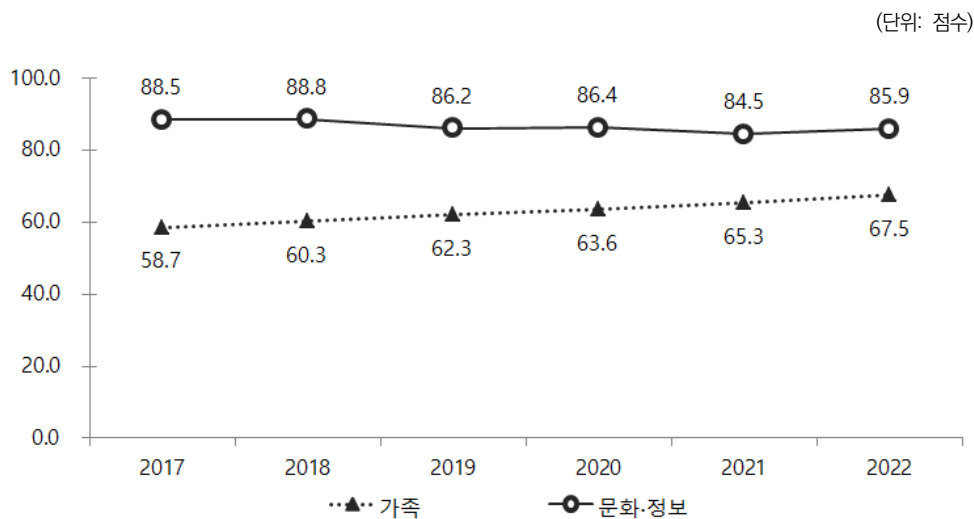
3) 성평등한 의식·문화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성평등한 의식·문화 영역은 가족 분야, 문화·정보 분야로 구성되며, 2022년 기준 76.7점으로 2017년 대비 3.1점 개선된다. 분야별로 보면 문화·정보 분야는 85.9점, 가족 분야는 67.5점이다.

가족 분야 성평등지수 값은 2017년 58.7점에서 2022년 67.5점으로 8.8점 상승하고, 점수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육아휴직 성비 개선으로 나타난다. 육아휴직 성비는 2017년 15.4점으로 매우 낮은 편이었으나 2022년 40.6점으로 크게 상승하여 성평등 정도는 동기간 25.2점 개선된다. 가사노동시간 성비, 가족관계만족도, 셋째아 출생성비는

동기간 각각 5.8점, 3.8점, 0.4점 개선된다. 한편 전년 대비 가족 분야 성평등은 2.2점 상승한다. 지표별로 보면, 전년 대비 육아휴직비율, 가족관계만족도, 가사노동시간 성비가 각각 5.0점, 2.8점, 0.6점 개선되어 가족 분야의 성평등은 2.2점 개선된다. ([그림 Ⅲ-35] 참고)

문화·정보 분야는 2017년 88.5점에서 2022년 85.9점으로 동기간 2.6점 하락한다. 2017년 대비 문화·정보 분야의 하락의 주된 원인은 여가시간 성비 때문이다. 여가시간 성비는 2017년 77.6점에서 2022년 69.5점으로 동기간 8.1점 감소한다. 여가의 양적 부분 뿐 아니라 질적 측면의 성평등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즉, 여가만족도 성비는 2017년 97.5점에서 2022년 95.2점으로 2.2점 낮아졌다. 단, 성별정보화격차는 2017년 90.4점에서 2022년 93.1점으로 2.7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전년 대비 문화·정보 분야 성비는 두 가지 구성 지표에서 성평등 수준이 상승하면서 성평등 수준이 1.4점 높아진다. 즉, 전년 대비 성별정보화격차는 3.7점, 여가만족도 성비 1.7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 하락이 비교적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Ⅲ-39] 참고)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Ⅲ-6] 성평등한 의식·문화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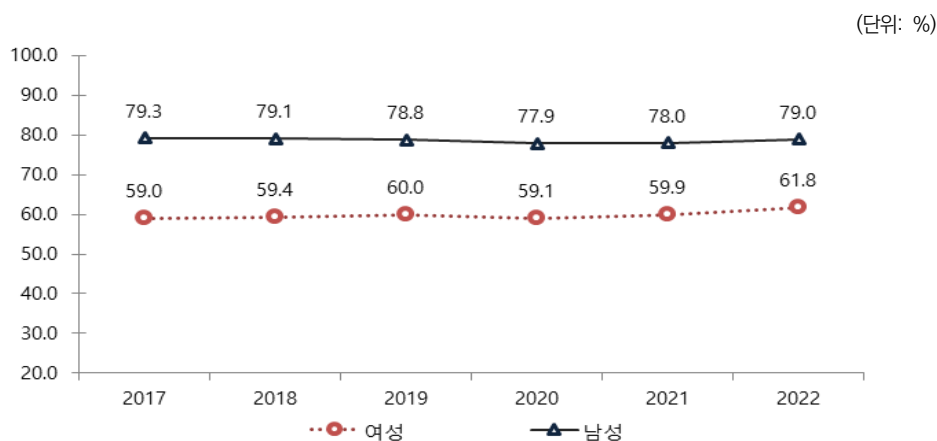
2. 분야별 지표의 국가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가.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1) 경제활동 분야

경제활동 분야는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임금 격차, 상용직 근로자 비율로 측정되며, 2022년 기준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이 다섯 번째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며, 2017년 73.2점에서 2022년 77.6점으로 2017년 대비 4.4점 상승하였다.

지표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경제활동 참가율(15~64세)은 노동시장의 참여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코로나 상황에서 소폭 하락하였지만, 2017년 59.0%에서 2022년 61.8%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전년 대비 1.9%p, 2017년 대비 2.8%p 상승한 수준이다. 반면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7년 79.3%에서 2020년 77.9%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1년을 시작으로 다시 상승하여 2022년 79.0%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2020년 대비 1.1%p 높아졌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 참가율의 성별 격차는 2017년 20.3%p에서 2022년 17.2%p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낮은 수준이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 유지, 성 평등한 직장문화와 성별 고정관념 해소, 더 나아가 여성 일자리 창출, 미래 유망 일자리로의 도약 등을 통한 노동시장 내 성 격차 해소는 중요한 과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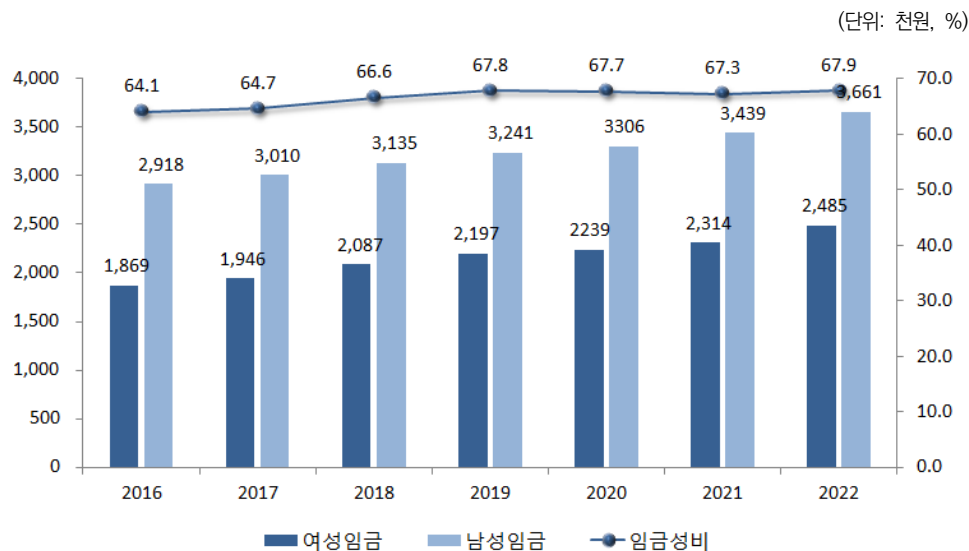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II-7] 성별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변화 추이

성별 임금 격차는 노동시장의 환경과 대우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지표로 활용되는 월급여액은 1인 이상 사업체의 정액급여와 초과급여의 합이며, 연간 상여금과 특별급여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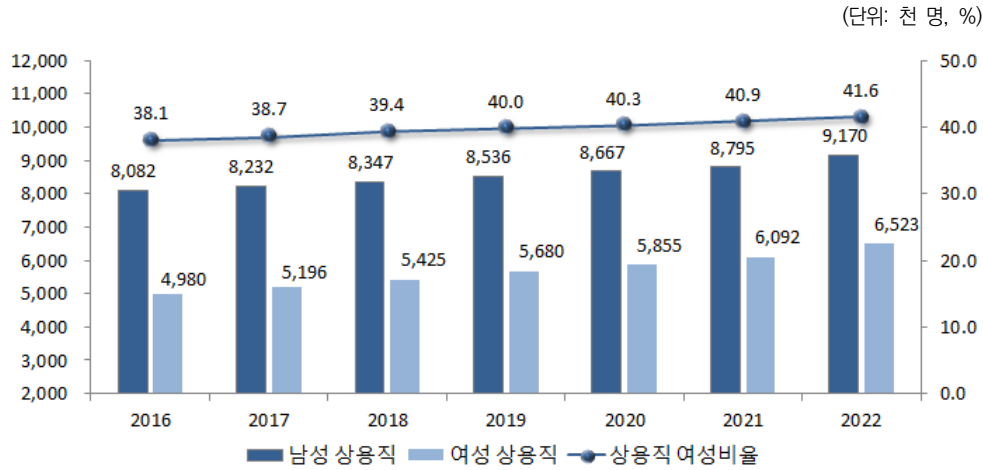
월급여액을 보면, 여성은 2016년 평균 1,869천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2년 평균 2,485천원으로, 지난 6년 동안 616천원 높아졌고, 남성은 2016년 평균 2,918천원에서 2022년 평균 3,661천원으로 동기간 743천원 높아졌다. 임금 성비는 2016년 64.1%에서 2022년 67.9%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의 임금 수준은 남성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그림 Ⅲ-8] 임금성비 변화 추이

경제활동 분야 중 상용직 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임시직 및 일용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근로 안정성이 높은 지위라 할 수 있다. 여성 상용직 근로자는 2016년 4,980천 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6,523천 명으로 6백 만 명을 넘어섰고, 남성 상용직 근로자는 2016년 8,082천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9,170천 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용직 근로자 중 여성 비율은 2016년 38.1%에서 2022년 41.6%로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상용직 여성 비율은 여전히 50%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여성 근로자의 고용 불안과 근로조건 차별 등이 중대한 과제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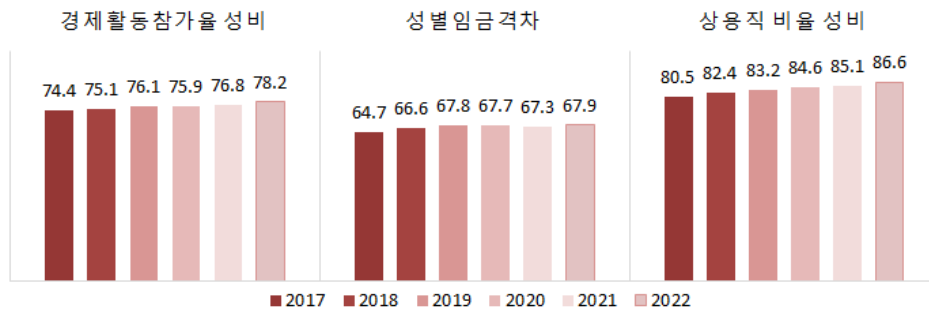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II-9] 성별 상용직 근로자 비율 변화 추이

경제활동 분야의 구성 지표는 세 지표 모두 성평등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는 2017년 74.4점에서 2022년 78.2점으로 동기간 3.8점 개선되었으며, 상용직 비율 성비는 2017년 80.5점에서 2022년 86.6점으로 6.1점 개선되었다. 두 지표 모두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반면 성별 임금 격차는 2017년(64.7점) 대비 2022년(67.9점) 3.2점 개선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감소했다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단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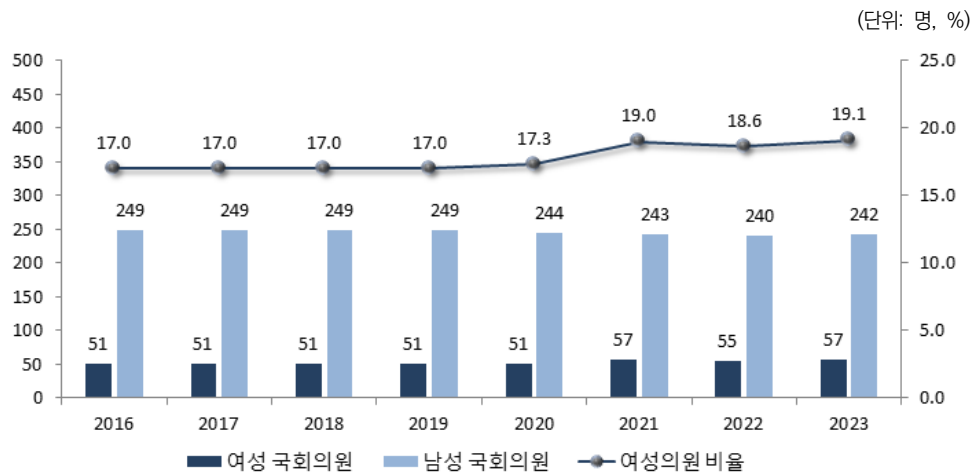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III-10] 경제활동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2) 의사결정 분야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성차별 해소 및 실질적인 평등 실현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정책 등 의사결정 행사에서 여성의 참여 정도를 지표화하고 그 권한을 측정하기 위해 국회의원 비율,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비율을 지표화하여 성평등 정도를 측정하였다. 2022년 기준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다. 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3년 이후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 오다 2022년 다소 하락하였다. 2017년 32.0점에서 2021년 38.3점까지 상승하였으나 2022년 37.1점으로 전년대비 1.2점 하락하였다.

지표별 성평등 수준을 보면, 국회의원 여성 비율은 입법기관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여성의 정치적 권한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지표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 국회의원은 4년 주기로 선출되며, 보궐선거 등으로 국회의원 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 국회의원 여성 비율은 2016년 17.0%대로 진입한 이후 2020년 국회의원 남성 수가 줄어들면서 비율이 소폭 상승한 후 2021년 19.0%, 2022년 18.6%, 2023년 19.1% 수준으로 다소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2021년 21대 총선에서의 19.0% 기록은 비례대표 후보 50% 여성 할당제에 기인한 것이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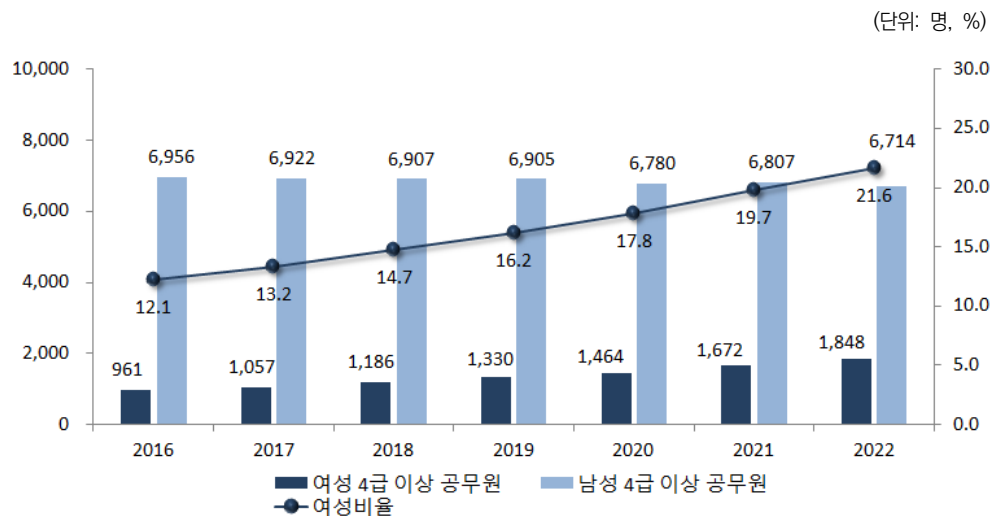


자료: 국제의원연맹, 홈페이지

[그림 Ⅲ-11] 국회의원 여성 비율 변화 추이

19) 김은경 외(2020), 「국회 여성 비례대표 의원의 역할인식과 활동성과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비율은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관리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행정영역의 관리직 지위에서 의사결정 권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2016년 12.1%에서 지속 상승하여 2022년 21.6%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1.9%p 높아진 수준이고, 2016년 대비 9.5%p 상승한 수준이다. 정부는 2018년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2022년까지 고위 공무원 여성 비율 10%,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 21% 이상 확대, 그리고 2018년 내 모든 중앙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 1명 이상 임용 추진을 계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2년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11.2% 달성(목표치 10.2%),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 26.4% 달성(목표치 24.5%) 등 양성평등 임용목표를 초과 달성한 상황이라고 발표하고 있다²⁰⁾. 그러나 2022년 행정부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39.1%²¹⁾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4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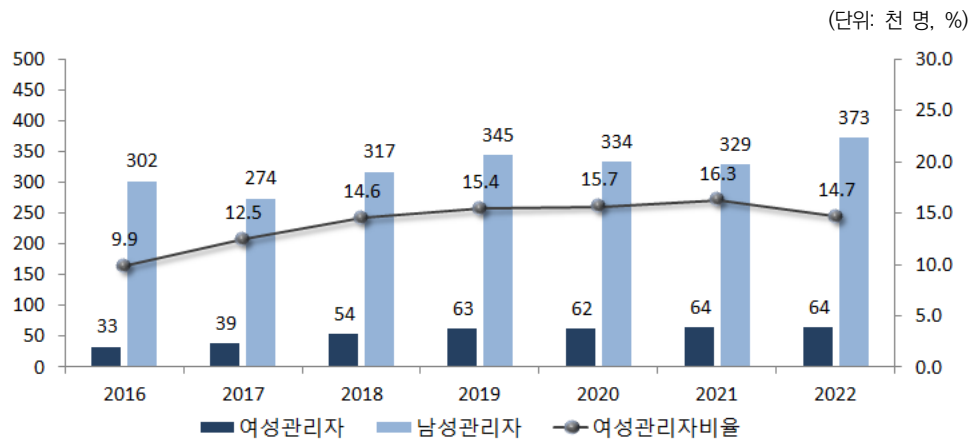
자료: 인사혁신처(각 연도), 「인사혁신통계연보」.

[그림 III-12] 성별 4급 이상 공무원 변화 추이

20) ‘공공부문 양성평등·장애인, 임용목표 초과 달성’(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3.9.19.일자)

21) 2023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 인사혁신처, p.20

관리자²²⁾ 비율은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 지휘, 조정하는데 직무 시간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직군의 비율이다. 여성 관리자 수는 2016년 33천 명에서 2022년 64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6년에 9.9%에서 2021년 16.3%까지 꾸준히 상승하다 2022년 14.7%로 전년대비 1.6%p 하락했다.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은 남녀고용 평등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가 잘 갖춰진 사업장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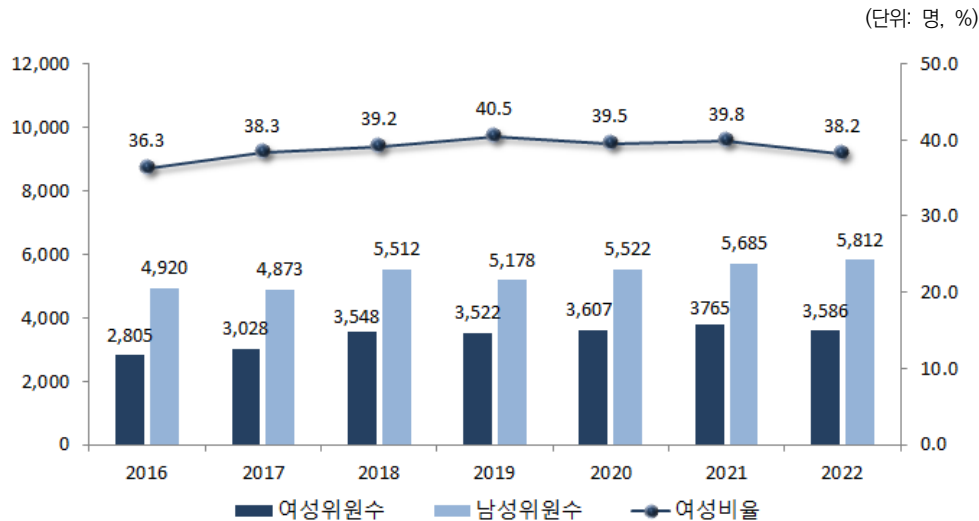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Ⅲ-13] 성별 관리자 변화 추이

마지막으로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변화를 보면, 여성 위촉 위원의 규모는 2016년 2,805명에서 2022년 3,586명까지 증가하였다. 2021년 3,765명까지 증가하였으나 2022년 다소 감소하였다. 여성 비율은 2016년 36.3%에서 2019년 40.5%까지 지속해서 증가하다 2020년 39.5%, 2021년 39.8%, 2022년 38.2%로 등락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 대비 1.6%p 하락, 2016년 대비 1.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22) 제7차 표준직업분류체계(201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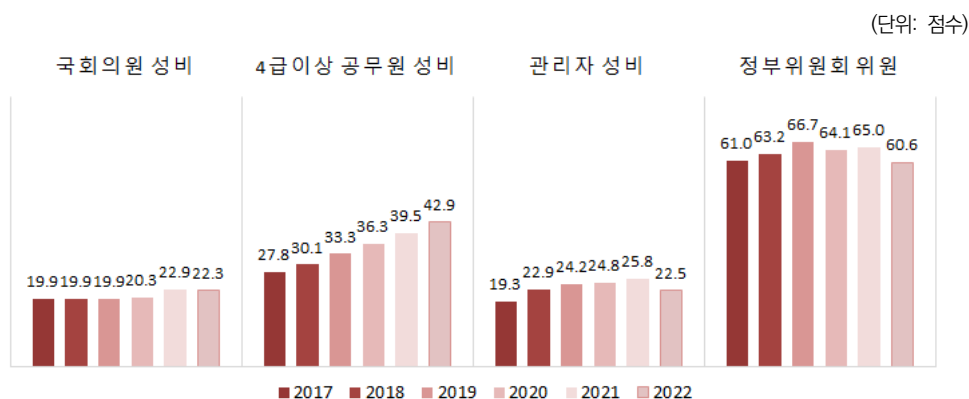
2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시행(2006년) 이후 여성 근로자 비율 6.92%p, 관리자 비율 10.7%p 증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11.25.)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그림 Ⅲ-14] 성별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변화 추이

의사결정 분야 지표들의 성평등 수준 변화를 보면, 국회의원 성비는 2017년 19.9점에서 2022년 22.3점으로 개선되었고, 4급 이상 공무원 성비는 2017년 27.8점에서 2022년 42.9점으로, 관리자 성비는 2017년 19.3점에서 2022년 22.5점으로(2021년 25.8점에서 감소) 개선된 반면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비율 성비는 2017년 61.0점에서 2022년 60.6점으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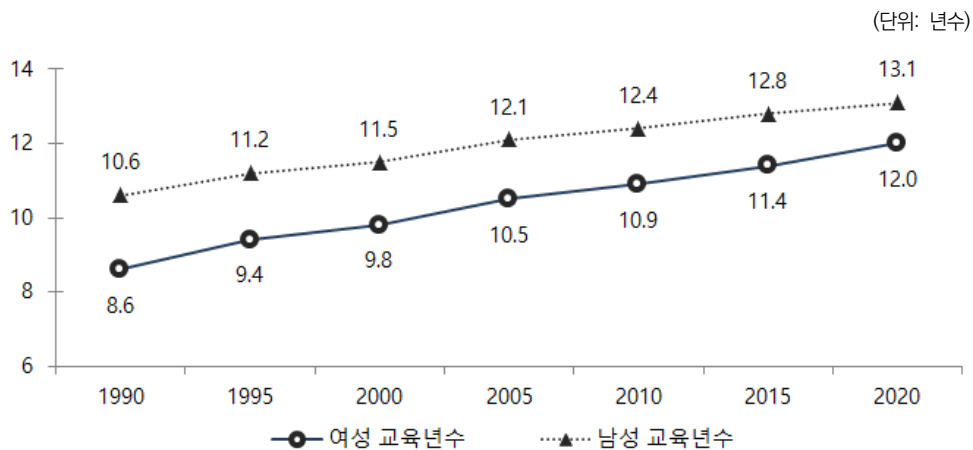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Ⅲ-15] 의사결정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3) 교육·직업훈련 분야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평균 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직업 교육·훈련 경험 비율로 측정되며, 2022년 기준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기는 하지만 2013년 이후 비교적 꾸준하게 개선되어 온 편이다. 2017년 93.3점에서 2020년 94.7점까지 상승하였으나 2021년 94.5점으로 감소, 2022년 다시 94.8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평균 교육년수²⁴⁾는 교육 기회의 충족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로 여성과 남성 모두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은 2005년 10.5년에서 2020년 12.0년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2005년 12.1년에서 2020년 13.1년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여성의 상승 정도가 더 높음에 따라, 남녀의 교육년수 차이는 2005년 1.6년에서 점차 좁혀져 2020년 1.1년으로 나타났다.



자료: 통계청(각 연도). 「한국의 사회지표」.

[그림 Ⅲ-16] 성별 평균 교육년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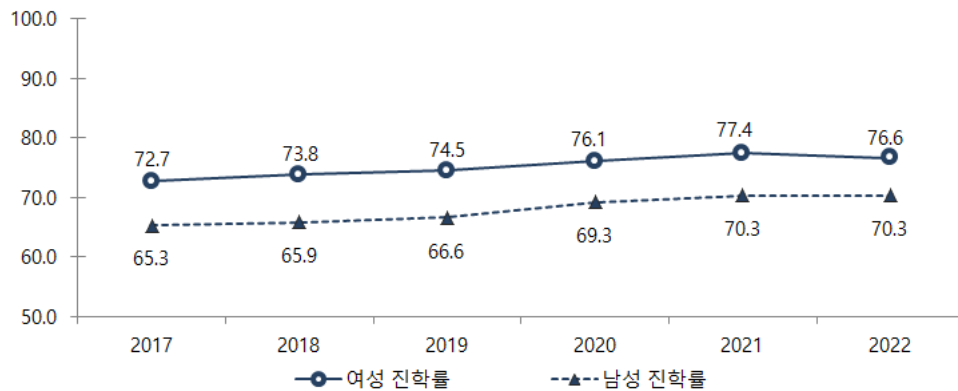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고등학교 졸업자 대비 대학 진학자 비율로 측정된다. 여성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17년 72.7%에서 점차 상승하다 2022년 소폭 하락하여 76.6%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0.8%p 하락한 수준이고, 2017년 대비 3.9%p

24) 재학생은 제외

증가한 수준이다. 남성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2년 70.3%로 전년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2017년 대비 5.0%p 상승한 수준에 해당한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교육 분야에서의 성 격차는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간주되곤 한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전공 분리, 인력 수급 불일치 등 다양한 정책과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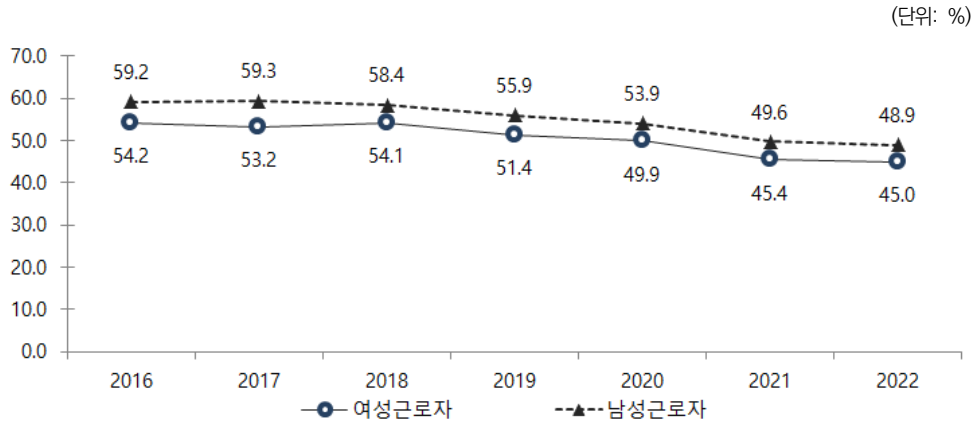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그림 III-17] 성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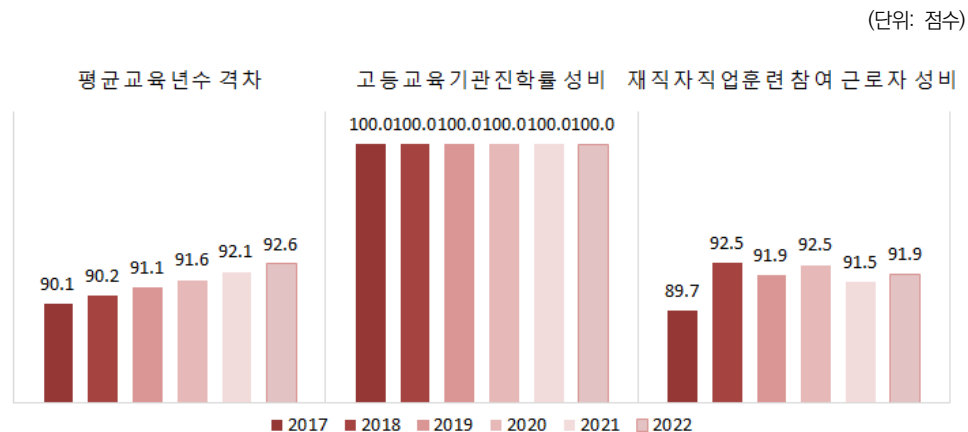
다음 직업교육·훈련은 자기계발 및 취업역량 강화, 노동시장 수급에 부응하여 여성 인력의 이동, 미래 유망 일자리로의 여성 진출 브릿지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거듭 부각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지표는 여성 근로자 중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말한다. 2016년 54.2%에서 등락을 거듭하지만, 2018년 이래 감소 추세를 유지하면서 2022년 현재 45.0%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년 대비 0.4%p 낮아진 수준이고, 2016년 대비 9.2%p 하락한 수준이다. 남성의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은 2016년 59.2%에서 2017년 59.3%로 상승하다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여 2022년 현재 48.9% 수준으로 낮아졌다. 남녀 모두가 하락하는 추세로 성별 비율의 차이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2016년 5.0%p, 2022년 3.9%p).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Ⅲ-18] 성별 직업교육 훈련경험자 비율 변화 추이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전반적으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 평균 교육년수의 성비는 2017년 90.1점에서 2022년 92.6점으로 개선되었으며,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여성의 진학률이 더 높게 나타나면서 2017년 이래 완전 성평등 수준(100.0)을 유지하고 있다. 재직자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의 성비는 2017년 89.7점에서 2018년 92.5점까지 상승하였으나 이 후 등락을 거듭하다 2022년 91.9점으로 2017년 대비 2.2점 상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Ⅲ-19] 교육·직업훈련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이상에서 살펴본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2021년 대비 2022년 성평등지수 변화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 III-1>과 같다. 성평등한 사회참여영역의 3개 분야 중에서 2021년 대비 경제활동 분야는 1.2점,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0.3점 상승한 반면 의사결정 분야는 1.2점 낮아졌다. 경제활동 분야의 경우 모든 지표에서 상승하였으며 특히 상용직 비율 성비가 1.5점 상승으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은 평균 교육년수 격차와 재직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성비 모두 소폭 개선되었다. 반면 의사결정 분야는 4급 이상 공무원 성비를 제외하고,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관리자 성비, 국회의원 성비가 각각 4.4점, 3.3점, 0.6점 하락하며 성별 격차가 상승하여 성평등 수준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I-1>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성평등지수 변화

(단위: 점수, %)

분야별 지수 변화				지표 변화			
분야	2021	2022	증감	지표	2021	2022	증감
경제활동	76.4	77.6	1.2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76.8	78.2	1.4
				성별 임금 격차 성비	67.3	67.9	0.6
				상용직 비율 성비	85.1	86.6	1.5
의사결정	38.3	37.1	-1.2	국회의원 성비	22.9	22.3	-0.6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39.5	42.9	3.4
				관리자 성비	25.8	22.5	-3.3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65.0	60.6	-4.4
교육·직업훈련	94.5	94.8	0.3	평균 교육년수 격차	92.1	92.6	0.5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00.0	0.0
				재직자 직업훈련참여 근로자 성비	91.5	91.9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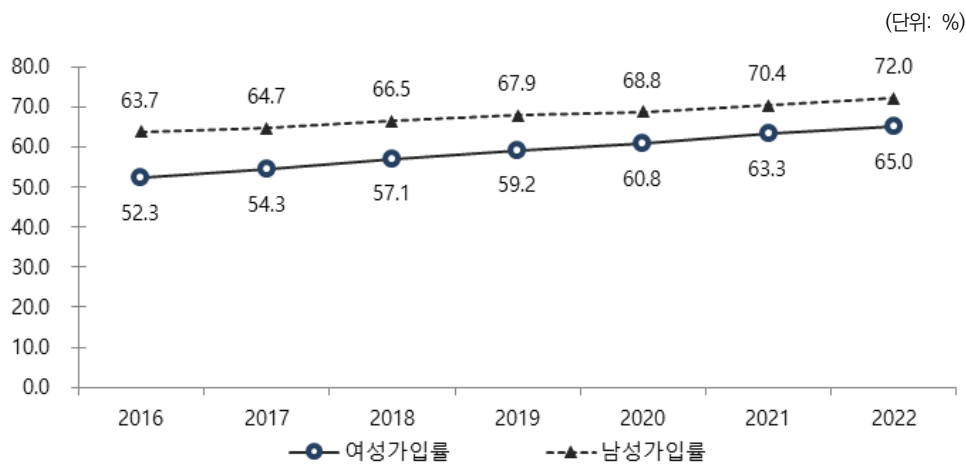
나.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

1) 복지 분야

복지 분야는 공적연금 가입자, 빈곤율, 장애인 고용률로 측정되며, 2022년 기준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이 네 번째로 나타났다. 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7년 75.6점에서 2022년 79.0점으로 동기간 3.4점 상승하였다.

지표별로 보면, 성별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가입률 추이는 여성 가입자의 경우 2016년 52.3%에서 2023년 65.0%로 지속해서 상승한다. 2022년 여성

가입자 비율은 전년 대비 1.7%p 상승하며, 2016년과 비교해보면 12.7%p 상승하였다. 남성 가입자 비율은 2016년 63.7%에서 2022년 71.0%로 높아졌고, 2016년 대비 8.3%p 상승하였다. 성별 격차는 2016년 11.4%p에서 2022년 7.0%p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은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소득활동자 중심의 연금체계에서 여성들은 경력단절 등의 문제로 공적연금 가입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결국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의 성별 격차 감소는 사회 참여 분야 안에서 고용상의 남녀 격차 해소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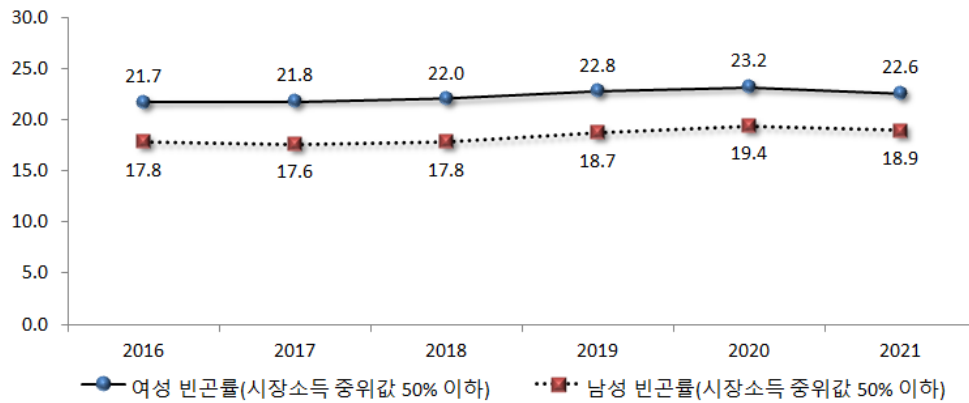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각 연도),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각 연도),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관리공단(각 연도), 내부자료 및 「사학연금통계」.

[그림 Ⅲ-20] 성별 공적연금 가입률 변화 추이

빈곤율은 성평등 측정에서는 비빈곤율로 측정된다. 빈곤율은 경상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통해 경상소득을 균등화한 소득을 개인화하여 분석하고 있다. 여성 빈곤율²⁵⁾은 2017년 21.8%에서 2020년 23.2%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21년 22.6%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남성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2017년 남성 빈곤율은 17.6%에서 2020년 19.4%까지 증가하다 2021년 18.9%로 감소하였다. 2020년 대비 2021년 남녀 모두 빈곤율이 다소 하락하였으며, 빈곤율의 성별 격차는 2017년 4.2%p에서 2021년 3.7%p로 감소하였다.

25) 빈곤율 연도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년도에서 n-1를 기준으로 작성되나, 본 연구의 빈곤율 연도는 조사년도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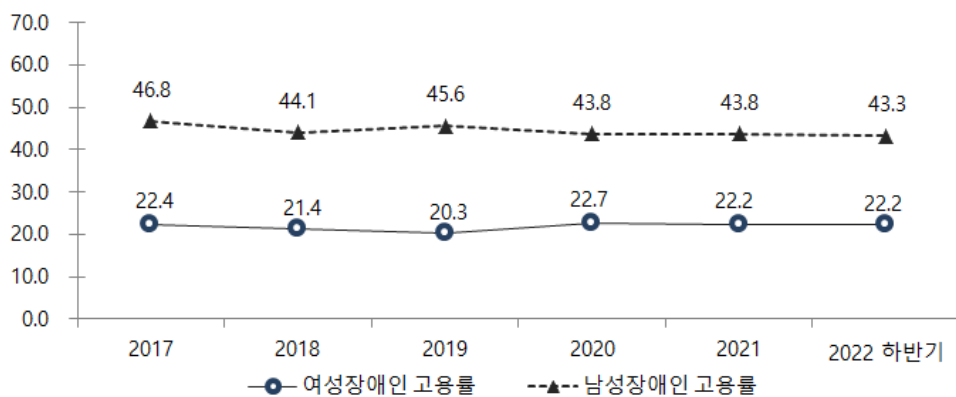


주: 통계는 2017년 이후는 시계열이 동일하지만, 이전 통계는 시계열이 다소 다름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그림 III-21] 성별 빈곤율 변화 추이

장애인 고용률에서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22.4%에서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2022년 22.2%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동일한 수치이며, 2017년 대비 0.2%p 하락하였다. 남성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46.8%에서 2022년 43.3%로 더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보인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장애인 고용률 성별격차는 2017년 24.4%p에서 2022년 21.1%p로 낮아졌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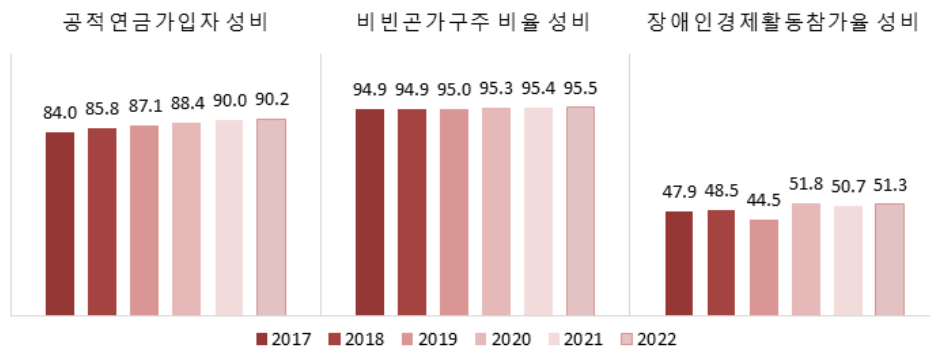


주: 2022년 통계는 하반기 통계임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각 연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그림 III-22] 성별 장애인 고용률 변화 추이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통해 복지 분야의 성평등 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 점수는 2017년 84.0점에서 2022년 90.2점으로 전년대비 0.2점 상승하였다. 비빈곤가구주 비율 성비는 지속적으로 소폭 상승하여 2017년 94.9점에서 2022년 95.5점으로 상승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47.9점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22년 51.3점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단위: 점수)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Ⅲ-23] 복지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2) 보건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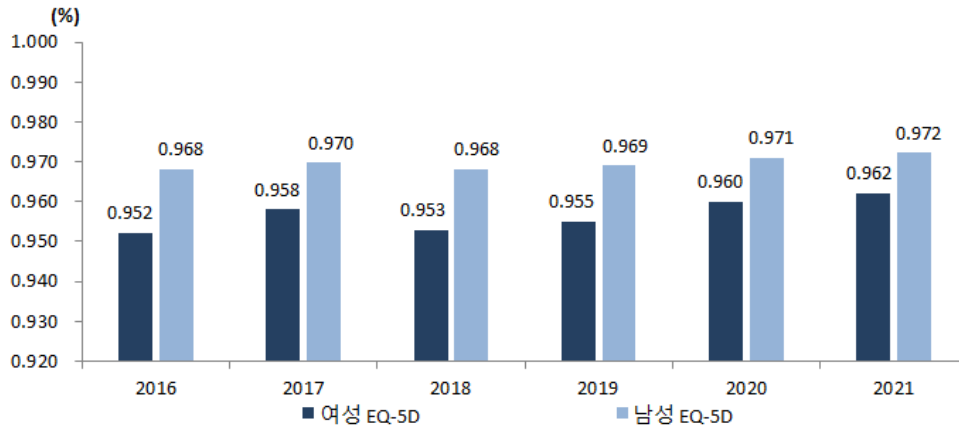
보건 분야는 건강 관련 삶의 질,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로 측정되며, 2022년 기준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96~97점대를 유지해 왔으며, 2017년 97.1점에서 2022년 97.7점으로 동기간 0.6점 상승하였다.

개별 성평등 지표 값의 변화를 보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²⁶⁾) 지표에서 19세 이상 여성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은 2018년 이래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며, 2021년에는 0.962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현상을 보인다. 남성은 전반적으로 여성보다 높은 가운데, 변화 추이는 여성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남성 역시 2018년 이래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26) EQ-5D는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나타내는 5가지 차원 즉, 운동능력(Mobility), 자기관리(Self-care), 일상 활동(Usual activity), 통증/불편감(Pain/Disability), 그리고 불안과 우울(Anxiety and Depression)의 기술체계를 종합한 지표임. 5가지 차원을 나타내는 항목에 대한 현상을 3개 수준 중 하나로 응답한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하며, 비표준화 값임.

보이며, 2021년 0.972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성별 격차는 2017년 0.012에서 2021년 0.010으로 소폭 낮아졌다.

(단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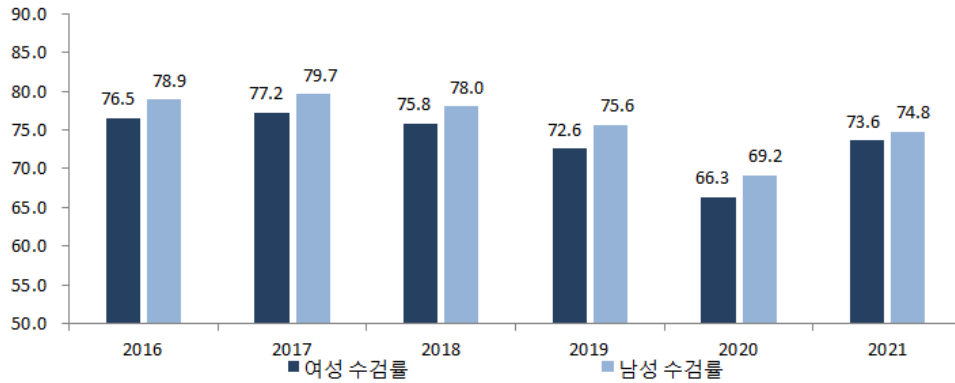
자료: 질병관리청(각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III-24]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지수 변화 추이

건강검진 수검률 현황을 보면 여성의 건강검진 수검률²⁷⁾은 2017년 77.2%에서 2018년 75.8%, 2019년 72.6%, 2020년 66.3%까지 하락하였으나 2021년 73.6%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2017년 79.7%에서 2018년 78.0%, 2019년 75.6%, 2020년 69.2%로 하락하다 2021년 74.8%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추이를 반영해 건강검진 수검률의 성별 격차는 2017년 2.5%p에서 소폭의 변화를 보이다 2021년 1.2%p로 낮아졌다.

27) 1차 검진대상 인원 대비 수검인원 비율을 의미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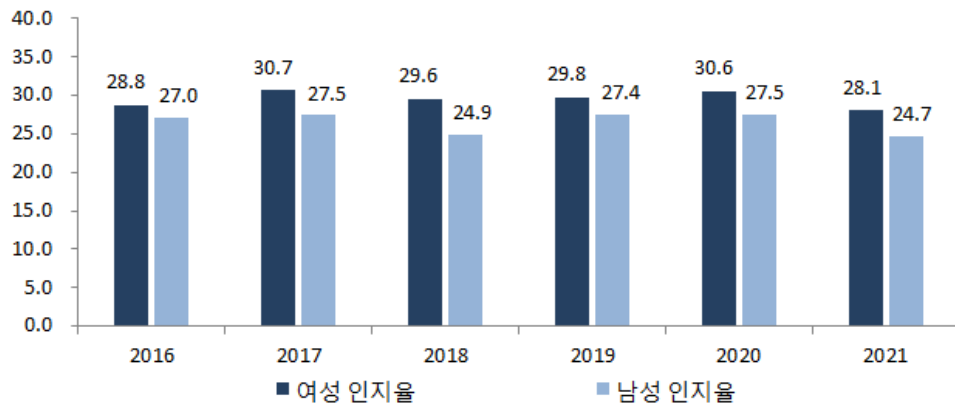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각 연도), 「건강검진통계연보」.

[그림 Ⅲ-25]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변화 추이

스트레스 인지율²⁸⁾은 매년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남성의 스트레스 인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7년 30.7%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21년 28.1%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남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남성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7년 27.5%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21년 24.7%로 낮아진다. 하지만 스트레스 인지율의 성별 격차는 2017년 3.2%p에서 2021년 3.4%p로 다소 높아졌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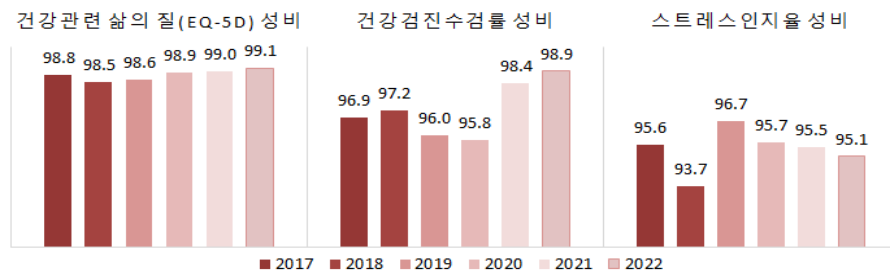
자료: 질병관리청(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Ⅲ-26] 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변화 추이

28)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한 19세 이상인 사람의 비율을 나타냄. 19세 이상 표준화된 통계임.

종합해보면 보건 분야의 지표는 모든 지표의 성비가 90점 이상으로 이미 높은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건강 관련 삶의 질(EQ-5D)은 2017년 98.8점에서 2022년 99.1점으로 동기간 0.3점 개선되었으며,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2017년 96.9점에서 2018년 97.2점으로 개선되지만 이후 하락하였다가 2021년부터 다시 상승하여 2022년 98.9점으로 동기간 2.0점 개선되었다. 반면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는 2017년 95.6점에서 2022년 95.1점으로 2017년 대비 0.5점 낮아졌다. 보건 분야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평등을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인지율과 같은 주관적 지표의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단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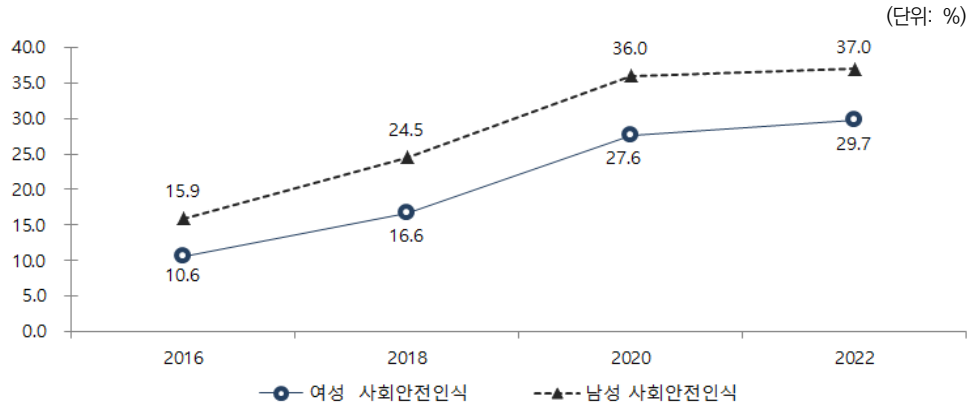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III-27] 보건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3) 안전 분야

안전 분야는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과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비로 측정되며, 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7년 65.5점에서 2022년 73.6점으로 동기간 8.1점 상승했다. 2022년 기준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 6번째 순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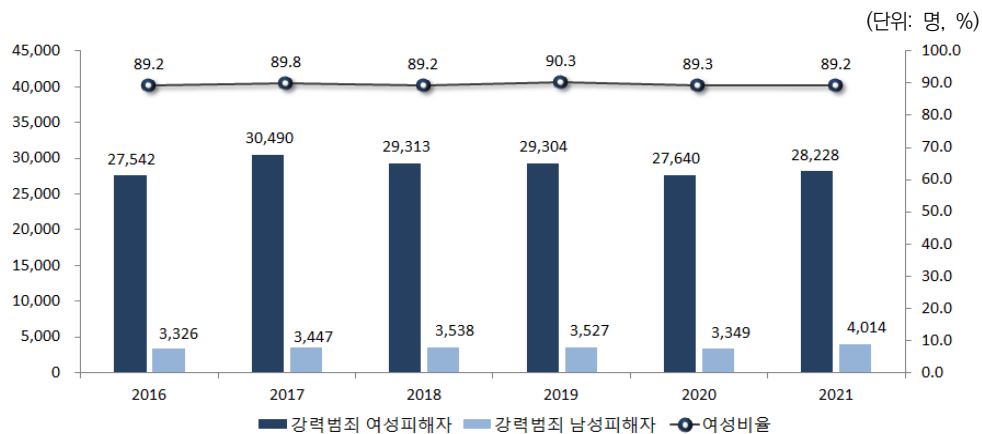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은 ‘매우 안전하다’와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이며, 이 지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은 2016년 10.6%, 2018년 16.6%, 2020년 27.6%, 2022년 29.7%로 상승하였고, 남성은 2016년 15.9%, 2018년 24.5%, 2020년 36.0%, 2022년 37.0%로 상승하였다. 성별 개선 정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별 격차는 2016년 5.3%p에서, 2018년 7.9%p, 2020년 8.4%p로 점차 높아졌다가 2022년 소폭 하락하여 7.3%p를 기록했다.



주: 13세 이상 인구대상 기준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그림 Ⅲ-28]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변화 추이

안전 분야의 또 다른 지표인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비를 살펴보면, 강력범죄의 여성 피해자는 2017년 30,490명에서 점차 하락하여 2020년 27,640명까지 감소하였다가 2021년 28,228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남성 피해자는 2017년 3,447명에서 2021년 4,014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성 피해자와 비교해볼 때 그 수가 훨씬 적다. 비율로 보면, 강력범죄에서의 여성 비율은 2017년 이후 계속해서 89~9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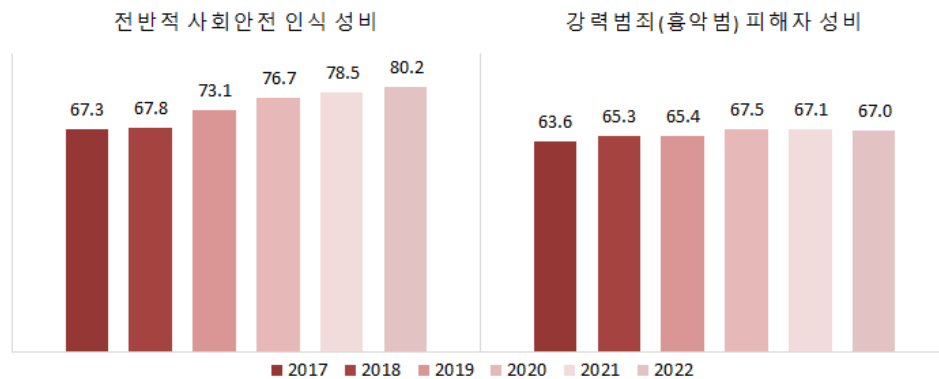


주: 1)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는 강도, 방화, 강간, 살인 피해자의 합임
2) 미상 제외
자료: 대검찰청(각 연도), 「범죄분석」

[그림 Ⅲ-29] 성별 강력범죄(흉악범죄) 피해자 변화 추이

종합해보면, 안전 분야 지표는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개선으로 인해 성비가 2017년 67.3점, 2019년 73.1점으로 70점 이상으로 개선되고 2022년 80.2점으로 상승하였다.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는 2017년 63.6점에서 2022년 67.0점으로 상승하였다.

(단위: 점수)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III-30] 안전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이상에서 살펴본 인권·복지 영역의 2021년 대비 2022년 성평등지수 변화를 요약하면 아래 <표 III-2>와 같다. 인권·복지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개선을 보면, 안전 분야가 0.8점, 복지 분야가 0.3점, 보건 분야가 0.1점 상승된 것으로 나타난다. 안전 분야의 경우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비는 2021년과 비교하여 0.1점 낮아졌지만 전반적 사회 안전인식 성비가 1.7점 상승하여 안전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된다. 보건 분야의 경우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가 2021년 대비 0.4점 하락하였지만, 건강점진 수검률 성비와 건강 관련 삶의 질 성비 점수가 상승하여 분야 전체 점수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복지 분야는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비빈곤가구주 성비가 전년 대비 각각 0.6점, 0.2점, 0.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Ⅲ-2〉 인권·복지 영역 성평등지수 변화

(단위: 점수, %)

분야별 지수 변화				지표 변화			
분야	2021	2022	증감	지표	2021	2022	증감
복지	78.7	79.0	0.3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90.0	90.2	0.2
				비빈곤가구주 비율 성비	95.4	95.5	0.1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50.7	51.3	0.6
보건	97.6	97.7	0.1	건강 관련 삶의 질 성비	99.0	99.1	0.1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8.4	98.9	0.5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95.5	95.1	-0.4
안전	72.8	73.6	0.8	전반적 사회 안전 인식 성비	78.5	80.2	1.7
				강력범죄(홍악범)피해자 성비	67.1	67.0	-0.1

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

1) 가족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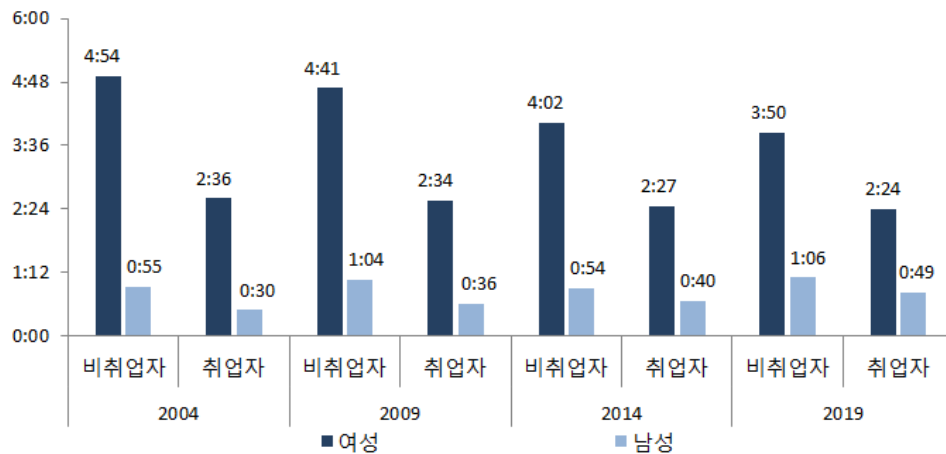
가족 분야는 가사노동 시간,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비율로 측정되며, 2022년 기준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이 일곱 번째 순위로 나타나 의사결정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분야이다. 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7년 58.7점에서 2022년 67.5점으로 동기간 8.8점 상승했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가사노동 시간은 일상생활에서 분담과 책임에 있어 성별 간 불평등 구조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분야로 가정관리와 돌봄 노동을 포함한 시간이다. 따라서 의식주와 관련한 가사 노동 시간과 가족 및 가구원 돌봄을 위해 소요되는 돌봄 노동 시간 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성별과 취업 여부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 차이를 모두 고려하여 평균 시간으로 산정하고 있다.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 취업자의 가사노동 시간은 2014년 2시간 27분에서 2019년 2시간 24분으로 3분 감소하며, 여성 비취업자의 가사노동 시간은 2014년 4시간 2분에서 2019년 3시간 50분으로 동기간 12분 감소했다. 여성 취업자의 가사노동 시간은 비취업 여성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나 가사노동 시간이 거의 변화가 없이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대략 2시간 30분 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남성은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가사노동에 1시간 안팎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취업자의 가사노동은 2014년 40분에서 2019년 49분

으로 9분 증가했고, 비취업자 가사노동은 2014년 54분에서 2019년 1시간 6분으로 12분 증가했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격차는 취업자의 경우 2014년 1시간 47분에서 2019년 1시간 35분으로 감소했으며, 비취업자의 경우 2014년 3시간 8분에서 2019년 2시간 44분으로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격차 감소 폭이 매우 적어서 가사노동 시간에서의 성불평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관련 정책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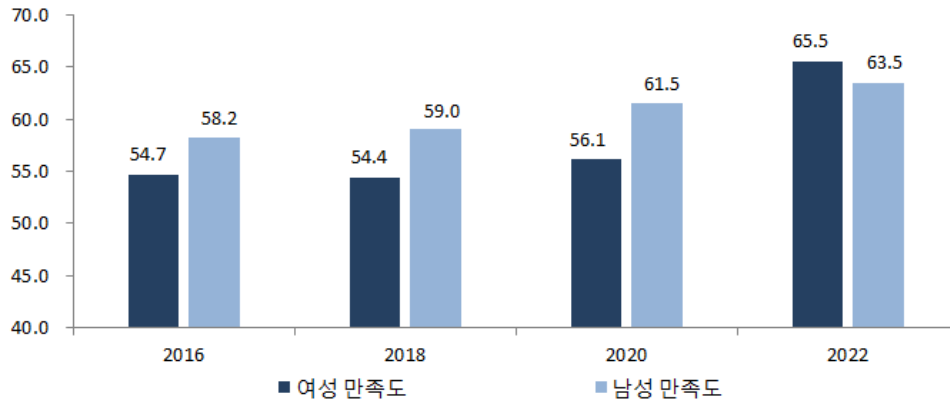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생활시간조사」.

[그림 III-31] 가사노동 시간 변화 추이

가족관계 만족도는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여 그 중 '만족한다(매우 만족, 약간 만족)'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성별로 산정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족관계 만족도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상승하였다. 여성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2016년 54.7%에서 2018년 54.4%로 하락하지만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20년 56.1%, 2022년 63.5%로 상승한다. 이에 비해 남성은 2016년 58.2%에서 2018년 59.0%, 2020년 61.5%, 그리고 2022년 65.5%로 지속해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 기간 가족관계 만족도는 여성이 더 낮게 나타났다. 가족관계 만족도에서의 성별 격차는 2016년 3.5%p, 2018년 4.6%p, 2020년 5.4%p로 점차 높아지다 2022년 2.0%p로 좁혀졌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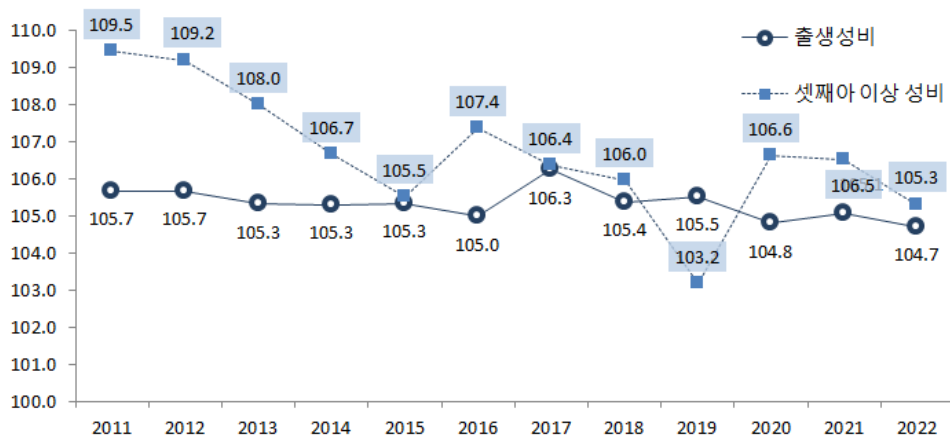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그림 Ⅲ-32]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추이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를 보면 [그림 Ⅲ-33]에서와 같이 2011년에는 109.5로 자연 출생 성비 수준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출생아 수의 감소와 함께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도 2015년부터 등락을 거듭하다 2022년 전년대비 1.2점 하락하여 105.3으로 나타났다.

(단위: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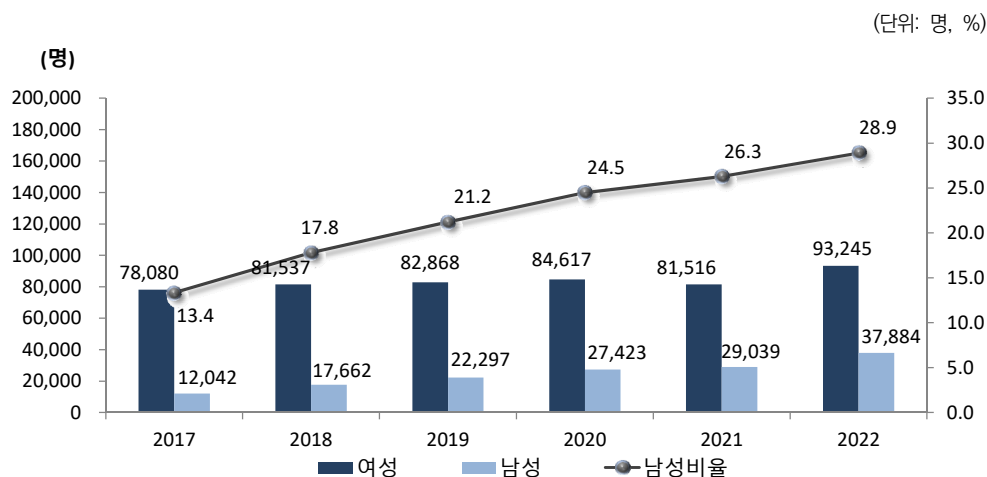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그림 Ⅲ-33] 출산 순위별 출생성비 변화 추이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자 지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아동돌봄의 분담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7년 78,080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84,617명, 다시 소폭 감소하여 2021년 81,516명, 2022년 상승하여 93,245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7년에 12,042명으로 1만명 대에 진입하였으며 이후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19년에는 22,297명으로 2만명을 넘어섰고 2022년에는 37,884명으로 3만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 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크게 상승하고 있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17년 13.4%에서 2018년 17.8%, 2019년 21.2%, 2020년 24.5%, 2021년 26.3%, 2022년에는 28.9%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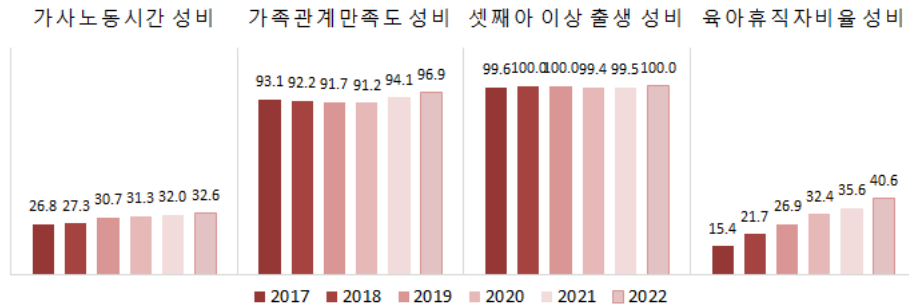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각 연도). 「고용보험통계」.

[그림 III-34] 성별 육아휴직자 수 변화 추이

가족 분야의 지표별 성평등 수준은 육아휴직자 성비의 개선이 가장 뚜렷하며, 가사노동시간 성비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족관계만족도 성비 및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는 모두 2017년 이후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2017년 이래 하락하던 추세에서 벗어나, 2021년부터 개선되며 2021년 94.1점, 2022년 96.9점에 도달했다.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의 경우 2018년 완전 평등에 도달해 100.0점을 기록한 후 소폭 하락하였다가 2022년 다시 100.0점에 도달하였다. 다음으로 육아휴직자 비율 성비는 꾸준한 증가 추세로 2017년 15.4점

에서 2022년 40.6점으로 동기간 25.2점 상승했으며, 가사노동 시간 성비는 2017년 26.8점에서 2022년 32.6점으로 동기간 5.8점 높아졌다.

(단위: 점수)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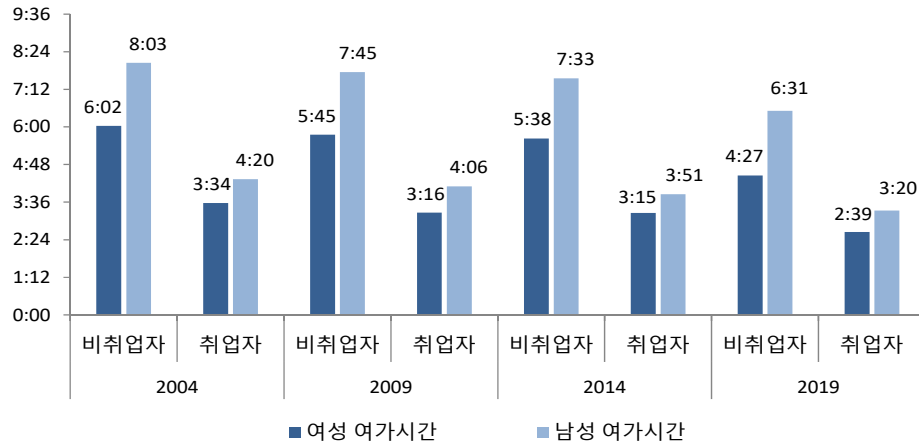
[그림 Ⅲ-35] 가족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2) 문화·정보 분야

문화·정보 분야는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성별 정보화 격차로 측정되며, 성평등 수준은 전체 8개 분야 중 세 번째 순위로 나타났다. 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7년 88.5점에서 2022년 85.9점으로 다소 하락하였다.

지표별로 보면 여가시간은 가사노동 시간과 같이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높아 취업자와 비취업자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 지표는 [그림 Ⅲ-36]과 같이 남녀 모두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여성의 여가시간은 2014년 취업자 3시간 15분, 비취업자 5시간 38분에서 2019년 취업자 2시간 39분, 비취업자 4시간 27분으로 동기간 취업자는 36분, 비취업자는 1시간 11분 감소했다. 남성의 여가시간도 2014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동기간 취업자는 31분, 비취업자는 1시간 2분 감소했다. 종합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여가시간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기준 여가시간은 여성 취업자가 남성 취업자에 비해 41분 적었고, 여성 비취업자는 남성 비취업자보다 2시간 4분 더 적었다.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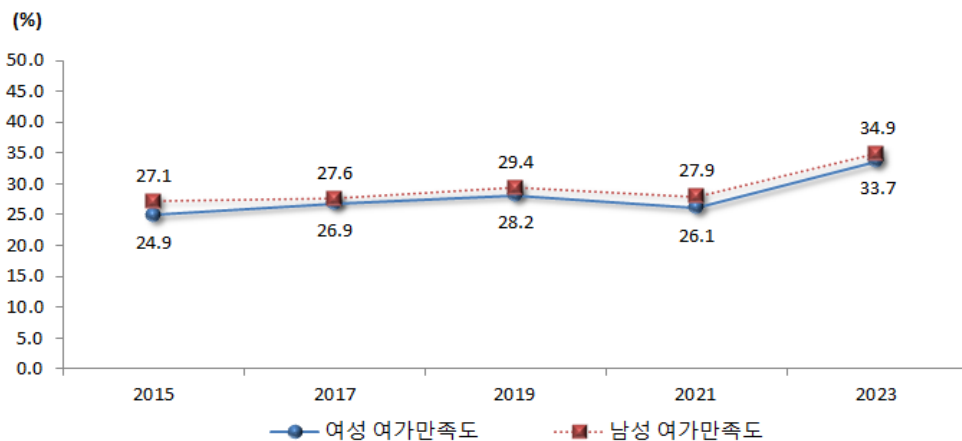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생활시간조사」.

[그림 III-36] 남녀 여가시간 및 여가시간 성비 변화 추이

여가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이며, 여성의 여가만족도는 2015년 24.9%에서 2019년 28.2%로 상승하나, 2021년 26.1%로 하락하였다 2023년 33.7%로 다시 상승하였다. 남성의 여가만족도 역시 여성과 동일한 추이를 보였다. 즉, 남성의 여가만족도는 2015년 27.1%에서 2019년 29.4%로 높아졌고, 2021년에는 27.9%로 하락, 2023년 다시 34.9%로 상승한다. 여가만족도의 성별 격차는 2015년 2.2%p에서 2023년 1.2%p로 소폭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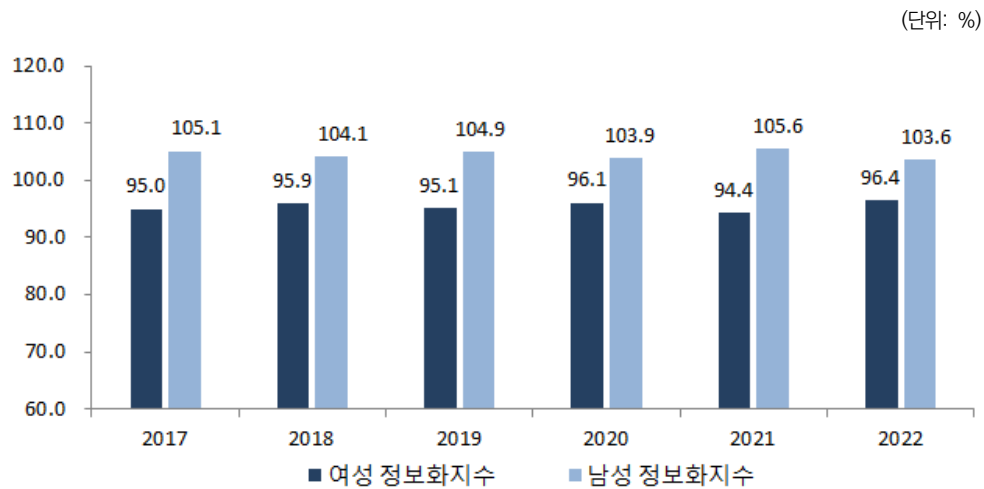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그림 III-37] 성별 여가만족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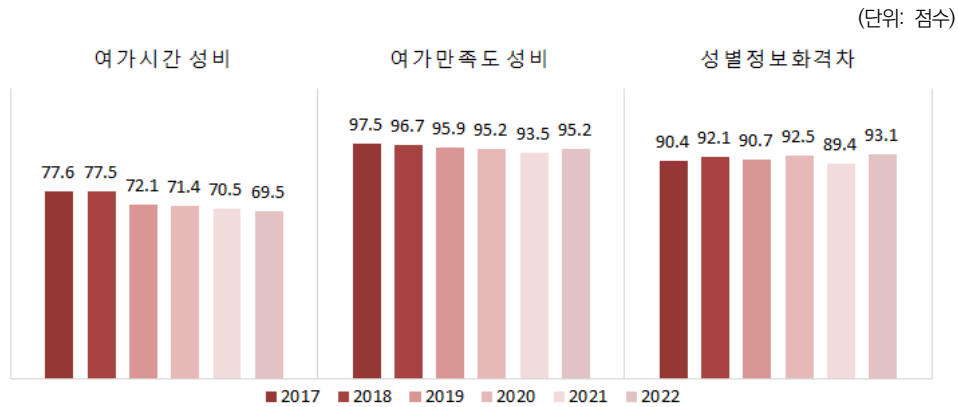
성별 정보화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정보화 수준은 2017년 105.1%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2022년 103.6%로 소폭 하락하였다. 반면 여성의 정보화 수준은 2017년 95.0%에서 2018년 95.9%로 상승하였다가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2022년 96.4%로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별 격차는 2017년 10.1%p에서 2022년 7.2%p로 다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2-2015). 「정보화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2016-2021)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그림 Ⅲ-38] 성별 정보화 격차 변화 추이

문화·정보 분야 지표의 성평등 변화 추이를 보면, 여가시간 성비는 2017년 77.6점에서 계속해서 낮아져 2022년 69.5점으로 나타났으며, 여가만족도 성비는 2017년 97.5점에서 점차 하락하다 2022년 전년대비 1.7점 상승하여 95.2점으로 나타났다. 여가만족도 성비는 문화·정보 분야의 다른 지표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별 정보화 격차는 2017년 90.4점에서 2022년 93.1점으로 동기간 2.7점 상승했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III-39] 문화·정보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이상에서 살펴본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2021년 대비 2022년 성평등지수 변화를 요약하면 아래 <표 III-3>과 같다. 2021년 대비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2개 분야 중에서 가족 분야는 2.2점, 문화·정보 분야는 1.4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분야는 육아휴직자 비율 성비가 2021년 35.6점에서 2022년 40.6점으로 5.0점 상승해 가족 분야의 주된 상승원인이 되었고, 가족관계만족도 성비, 가사노동시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역시 각각 2.8점, 0.6점, 0.5점의 개선을 보였다. 문화·정보 분야는 성별정보 격차와 여가만족도 성비에서 각각 3.7점, 1.7점 상승하였으나 여가시간 성비는 1.0점 하락하여 전체 1.4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 성평등지수 변화

(단위: 점수, %)

분야별 지수 변화				지표 변화			
분야	2021	2022	격차	지표	2021	2022	격차
가족	65.3	67.5	2.2	가사노동시간 성비	32.0	32.6	0.6
				가족관계만족도 성비	94.1	96.9	2.8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	99.5	100.0	0.5
				육아휴직자 비율 성비	35.6	40.6	5.0
문화·정보	84.5	85.9	1.4	여가시간 성비	70.5	69.5	-1.0
				여가만족도 성비	93.5	95.2	1.7
				성별정보화격차	89.4	93.1	3.7

3.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측정 결과

본 절은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해 측정결과를 2년간 변화로 제시하고 있다. 개편 성평등지수와 영역별 지표는 다음과 같다.

가. 개편 국가성평등지수 수준

개편 국가성평등지수는 2022년 기준 65.7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 수준은 교육 영역이 95.4점으로 가장 높고, 건강 92.4점, 양성평등의식(80.0점), 소득(78.5점), 고용(74.0점), 돌봄(31.4점) 순으로 나타나며, 의사결정 영역이 30.7점으로 가장 낮다. 전년 대비 성평등 변화를 보면, 소득(2.0점↑), 양성평등의식(1.1점↑), 고용(1.0점↑), 교육(0.1점↑)에서 상승했고 의사결정(3.4점↓)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Ⅲ-4〉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별 성평등

(단위: 점수)

성평등 분야	2021	2022	전년대비
의사 결정	34.1	30.7	-3.4
고용	73.0	74.0	1.0
소득	76.5	78.5	2.0
교육	95.3	95.4	0.1
건강	92.4	92.4	0.0
돌봄	31.4	31.4	0.0
양성평등의식	78.9	80.0	1.1
종합지수	65.5	65.7	0.2

나. 영역별 국가성평등 수준

1) 의사결정

의사결정 영역은 국회의원비율, 장관비율, 4급이상 공무원비율, 관리자 비율, 법원·검찰·경찰 관리자 비율로 구성되며, 성평등 수준은 2022년 30.7점으로 전년(34.1점) 대비 3.4점 하락했으며, 7개 영역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았다. 지표별로 보면, 4급 이상 여성 공무원과 법원·검찰·경찰 관리자의 여성 비율 성비는 높아졌으나, 장관, 국회의원, 관리자 중 여성 비율 성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5〉 의사결정 영역 지표별 성평등 수준

연도	의사결정 영역	국회의원 비율 성비	장관 비율 성비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관리자 비율 성비	법원·검찰· 경찰 관리자 비율 성비
'21년	34.1	22.9	38.5	44.0	25.8	39.4
'22년	30.7	22.3	20.0	46.7	22.5	41.8
(증감)	-3.4	-0.6	-18.5	2.7	-3.3	2.4

2) 고용

고용 영역은 고용률, 정규직 비율, 노동시장직종분리, 경력단절여성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74.0점으로 전년(73.0점) 대비 1.0점 상승하였다. 지표별로 보면, 정규직 비율 성비가 가장 크게 개선되었으며, 고용률, 노동시장 직종분리, 경력단절 여성 비율 순으로 점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6〉 고용 영역 지표별 성평등 수준

연도	고용 영역	고용률 (15~64세) 성비	정규직 비율 성비	노동시장 직종분리 ¹⁾	경력단절 여성비율 ²⁾
'21년	73.0	76.7	76.2	56.5	82.6
'22년	74.0	78.0	77.8	57.3	82.8
(증감)	1.0	1.3	1.6	0.8	0.2

주: 1) 노동시장 직종분리의 성평등 점수는 100-노동시장직종분리(단칸지수)로 산정

2) 경력단절여성비율의 성평등 점수는 100-경력단절여성비율로 산정

3) 소득

소득 영역은 성별임금격차, 비빈곤율, 국민연금수급률의 세 개의 지표로 측정되며, 2022년 78.5점으로 전년(76.5점) 대비 2.0점 상승하였다. 지표별로 보면, 시간당 임금은 남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지만, 성별 격차는 다소 감소하였고 국민연금 수급률 또한 남녀 모두 상승한 가운데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상승하면서, 성별 격차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 소득 영역 지표별 성평등 수준

연도	소득 영역	성별임금격차	비빈곤율 성비	국민연금수급률 성비
'21년	76.5	66.6	95.4	67.4
'22년	78.5	70.0	95.4	70.0
(증감)	2.0	3.4	-	2.6

4) 교육

교육 영역은 평균교육연수와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의 2개 지표로 측정되며, 2022년 95.4점으로 전년(95.3점) 대비 0.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표별로 보면, 평균교육연수는 전년 대비 여성이 소폭 증가하여, 성별 격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전년 대비 남녀 모두 상승하나,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완전 성평등 수준 유지하였다.

〈표 Ⅲ-8〉 교육 영역 지표별 성평등 수준

연도	교육 영역	평균교육연수 성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성비
'21년	95.3	90.6	100.0
'22년	95.4	90.9	100.0
(증감)	0.1	0.3	-

5) 건강

건강 영역은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수명, 스트레스비인지율로 측정되며, 2022년 92.4점으로 전년대와 동일하였다. 지표별로 보면, 주관적 건강상태와 스트레스 비인지율은 전년대와 동일하였고, 건강수명은 남녀 모두 증가하지만, 성평등 수준은 완전성평등 상태이다.

〈표 III-9〉 건강 영역 지표별 성평등 수준

연도	건강 영역	주관적 건강상태 ¹⁾ 성비	건강수명 성비	스트레스 비인지율 성비 ²⁾
'21년	92.4	84.1	100.0	93.1
'22년	92.4	84.1	100.0	93.1
증감	0.0	-	0.0	-

6) 돌봄

돌봄 영역은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사용자, 노인돌봄분담으로 구성되며, 2022년 31.4점으로 전년과 동일하였다. 지표별로 보면, 성평등 수준은 가사노동시간이 30.7점, 육아휴직 사용 31.7점, 노인돌봄 분담 31.7점으로 모든 지표에서 낮은 수준을 보인다.

〈표 III-10〉 돌봄 영역 지표별 성평등 수준

연도	돌봄 영역	가사노동시간 성비	육아휴직사용자 성비	노인돌봄분담 성비
'21년	31.4	30.7	31.7	31.7
'22년	31.4	30.7	31.7	31.7
증감	-	-	-	-

주: 노인돌봄 주체는 동거 혹은 비동거 가족원 중 노인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제한하며, 청소빨래시장보기, 외출동행, 식사준비, 신체기능유지 지원 각각을 중복하여 비율 산정

7) 양성평등의식

양성평등의식 영역은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성차별 경험률,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구성되며, 성평등 수준은 2022년 80.0점이다. 지표별로 보면, 성차별 경험률 성비가 95.4점으로 가장 높고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84.6점),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60.1점) 순이며, 전반적으로 양성평등 인식은 전년 대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Ⅲ-11〉 양성평등의식 영역 지표별 성평등 수준

연도	양성평등의식 영역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성차별 경험률 성비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21년	78.9	82.7	93.9	60.1
'22년	80.0	84.6	95.4	60.1
증감	1.1	1.9	1.5	-

다. 현행과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성평등 차이와 원인

개편 국가성평등지수는 현행 국가성평등지수(76.0점)에 비해 10.3점 낮다. 이는 지표의 구성과 측정 방법의 변경으로 발생한 점수 차이이다. 개편 국가성평등지수는 지표의 구성에 있어, 현행 지표 중 정부위원회 위촉위원을 비롯하여 11개의 지표가 삭제되며, 장관 비율을 포함하여 9개의 지표가 신규로 추가 구성된다. 또한, 동일한 성격의 지표도 일부 지표는 개편 성평등지수의 측정 목적에 좀 더 부합한 지표와 자료원으로 변경되었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참가율은 실업자를 제외한 고용률로, 상용근로자는 노동시장 근로자의 근로 안정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규직 근로자로,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국제 지표와 동일한 방향을 갖기 위해 고등교육기관 취학률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공적연금 가입률은 영역이 복지에서 소득으로 변경되면서 국민연금수급률로, 육아휴직자는 공무원 사용자를 포함하여 발표하는 통계청 자료원으로 변경하여 측정하였다. 전반적으로 개편 성평등지수의 지표는 성평등의 시의성과 관련성, 양성평등 이슈를 고려하여 개편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성 격차가 낮은 지표는 삭제되고 양성평등 이슈로 성 격차가 높은 지표들이 포함되었다. 즉, 지표의 구성 중 현행 지표 중 건강관련 삶의 질(99.1점), 건강검진 수검률(98.9점),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100.0점), 여가만족도(95.2점), 직업교육 훈련 경험률(91.9점) 등 성평등 수준이 높은 지표가 삭제되고, 장관비율(20.0점), 법원·검찰·경찰 고위직 비율(41.8점), 노동시장 직종분리(57.6점), 노인돌봄 분담(31.7점) 등 성별 격차가 비교적 큰 지표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개편 국가성평등 수준이 현행 수준보다 낮게 평가되는 원인이 되었다.

한편 개편 국가성평등지수는 측정 방법에 있어도 다소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 특징 중 하나는 현행 국가성평등지수의 경우 모든 지표가 성비로 측정하지만, 개편 지수는 성비와 수준(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경력단절여성비율)을 함께 측정에 활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행 국가성평등지수는 다른 점은 측정 연도의 통계 확보가 불가능할 시 이에 대한 통계 활용 방식이다. 현행 지수는 기준

시점에 대한 성평등을 측정하며, 기준 시점의 통계가 없을 시 추정치를 활용하고 있으나, 개편 성평등지수는 기준 시점의 성평등을 측정하는 것은 같으나, 기준 시점 통계가 없을 시 기준 시점 이전의 가장 최신 통계²⁹⁾를 활용한다. 이는 주기가 1년 이상의 지표와 1년 주기의 통계라도 최신 통계 수집이 불가능하다면, 같은 지표라도 현행과 개편 성평등 지수는 지수 산정에 있어 서로 다른 통계를 적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두 성평등 수준 차이를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III-12〉 국가성평등지수의 개편에 따른 삭제, 신규, 대체 지표 점수

삭제 지표		신규 지표	
지표	점수	지표	점수
정부위원회 위촉위원	60.6	장관 비율	20.0
장애인 고용률	51.3	법원·검찰·경찰 고위직 비율	41.8
건강검진 수검률	98.9	노동시장 직종 분리	57.3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80.2	경력단절 여성 비율	82.8
강력범죄(홍약범) 피해자	67.0	건강수명	100.0
가족관계 만족도	96.9	노인돌봄 부담	31.7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100.0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60.1
여가시간	69.5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84.6
여가만족도	95.2	성차별 경험률	95.4
직업교육훈련 경험률	91.9	-	-
성별정보화격차	93.1	-	-
유사 대체 지표			
지표	점수	지표	점수
경제활동참가율	78.2	고용률	78.0
상용근로자	86.6	정규직 근로자	77.8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00.0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100.0
건강관련 삶의 질(EQ-5D)	99.1	주관적 건강상태	84.1
공적연금 가입률	90.2	국민연금 수급률	70.0
육아휴직자	40.6	육아휴직자(자료원 변경)	31.7

29) 이와 같은 방식은 국제기구의 성평등지수에서 활용되는 방식으로, 기준연도의 통계가 미생산 시 수집 가능한 최신연도의 통계를 활용하여 지수를 측정함.

IV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의 성평등 수준

1.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79
2. 유엔개발계획의 성개발지수, 성불평등 지수, 성사회규범 지수	92
3. 국제성평등지수 비교와 한국 성평등 수준 차이	119

1.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가.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소개³⁰⁾

1)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이하 GGI) 특징

GGI는 2006년부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³¹⁾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서 경제, 교육, 건강, 정치에 대한 성 격차를 통해 국가별 성평등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가장 최근 자료는 2023년에 발표되었다.

GGI는 첫째, ‘수준(level)’보다 ‘격차(gap)’에 초점을 둔다. 한 국가의 실제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과 기회의 수준이 아니라, 자원과 기회에 대해 접근하는 성별 격차를 측정한다. 선진국의 경우, 사회 구성원이 교육과 보건의 기회에 더 많은 접근 기회를 가지나, 이러한 국가 차원의 높은 접근성이 남녀 모두에 동등하게 적용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GG는 자원 접근성을 절대 수준보다 성별 격차에 주목해 제시한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가 작을수록 그 국가는 더 높은 성평등 점수를 획득한다, 예를 들어 교육 성취도의 경우 성별 교육 수준이 아닌 남성 대비 여성의 비(ratio)를 기초로 산정한다.

둘째, ‘수단(means)’이 아닌 ‘성과(outcomes)’에 따른 차이를 평가하여 측정한다. GGI는 경제참여, 교육, 건강, 정치 권한 부여 등 성과지표와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보는 데 목적을 둔다. 다만, 국가의 특정 정책이나 문화, 관습 등은 지수 산정에 활용하지는 않고, 각 국가별 프로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셋째, ‘여성 권한(women’s empowerment)’보다 ‘성평등(gender equality)’에 주목한다. GGI는 여성의 권한 수준이 아니라 성평등 주요 영역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한다. GGI는 각 지표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감소해 왔는지를 확인

30)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의 구성과 소개는 거의 변화가 없음. 이에 선행연구인 주재선, 정성미, 한진영, 박송이(2019). 「2019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pp. 74-79, 김경희, 이민아, 이은아, 김은경(2020). 「2020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p. 84-94; 주재선, 김영란, 조선미, 송치선(2021). 「2021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p. 63-74, 주재선, 김효주, 조선미, 권도연(2022). 「2022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p. 63-75. 원문을 대부분 발췌 및 인용하여 작성함.

31) 세계경제포럼(WEF)은 각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 최고경영자 등이 모여 세계경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비영리 국제기구임. 매년 글로벌 경쟁력보고서(GCR)와 성평등보고서(GGGR)를 발표하고, 다보스 포럼을 개최함.

하는데 목표를 둔다. 또 여성과 남성의 각 성과가 평등한 국가들에 좋은 점수를 제공한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을 능가하는 경우에는 지표에 대한 페널티를 따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GGI는 선택된 지표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감소할 경우 평등한 국가로 본다.

2) 지표의 구성과 선정 근거

GGI는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권한 부여’의 네 가지 영역에 총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은 남녀 간 빈곤의 불균형을 낮출 뿐 아니라, 가계 수입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여성의 경제적 개입의 질과 관련되어 의미를 갖는다. 경제활동 영역은 참여(participation), 급여(remuneration), 승진(advancement)의 관점에서 성별 격차를 파악하고 있으며 구성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유사업무 임금성비, 추정소득,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 전문·기술직 비율의 5개 지표이다. GGI의 두 번째 영역인 교육적 성취는 여성의 권한을 증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구성 지표는 총 4개로 문해율과 초등, 중등, 고등교육 취학률에 대한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이다. GGI의 세 번째 영역은 건강과 생존으로 출생 성비와 건강기대수명 성비의 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역은 기본적으로 남녀가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면서도 근본적인 개인의 안전과 관련 있는 주제이다. GGI의 네 번째 영역인 정치권한 부여 영역은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 여성의 대표성을 파악하는 영역으로 국회의원 비율, 장관 비율, (지난 50년 동안) 국가 수장 재직기간의 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IV-1〉 GGI의 구성 및 각 영역별 지표

영역	지표	내용 및 산정 방법
경제참여와 기회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남성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참가율: 15-64세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비율
	유사업무 임금성비	유사업무에서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수준 - 경영자 의견 조사 ¹⁾ 를 통해 측정
	추정소득	여성 추정소득/남성 추정소득 - 국가별 GDP(PPP \$US)를 성별 경제활동인구 비율, 비농촌 임금 성비, 성별 인구의 결합으로 산정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	입법, 고위직 및 관리자 중 여성 비중/남성 비중
	전문·기술직 비율	전문 및 기술직 중 여성 비중/남성 비중

영역	지표	내용 및 산정 방법
교육 성취도	문해율	여성 문해율/남성 문해율 * 문해율: 15세 이상 인구의 문자 해독률
	초등교육 취학률	여성 초등교육 취학률/남성 초등교육 취학률 ²⁾ * (6-11세 재적 학생수)/(6-11세 적령인구)×100
	중등교육 취학률	여성 중등교육 취학률/남성 중등교육 취학률 ²⁾ * (12-17세 재적 학생수)/(12-17세 적령인구)×100
	고등교육 취학률	여성 고등교육 취학률/남성 고등교육 취학률 ²⁾ * (대학교 재적 학생수)/(고졸 직후 연령 ³⁾ 부터 5세 연령구간 인구)×100
건강과 생존	출생 성비	여아 ⁴⁾ 출생수/남아 출생수
	건강기대수명	여성 건강 기대수명/남성 건강 기대수명
정치권한 부여	국회의원 비율	국회의원 여성 비중/국회의원 남성 비중
	장관 비율	장관 여성 비중/장관 남성 비중
	국가수장 재직기간	최근 50년 이내 총리 이상 여성 재직년수/남성 재직년수

- 주: 1) 경영자 의견조사의 질문은 “한국에서 유사 업무에 대한 여성들의 임금과 남성들의 임금은 동등합니까”이며, 답항은 7점 척도로 ‘아주 낮다’ 1점, ‘남녀가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 7점으로 되어 있음
 2) 초등, 중등 취학률은 순취학률(Net enrolment ratio)로 산정하며, 대학 취학률은 총취학률(Gross Enrolment Ratio)로 산정함
 3) 고졸 직후 연령은 일반적으로 18세임
 4) 여아를 기준으로 남아 출생비를 보는 일반적인 출생성비와 정의를 달리함

3) 지표별 자료원

성격차지수 산정에 활용되는 자료원은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이하 ILO)와 WEF 자료를, 교육 성취도 영역은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이하 UNESCO) 또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이하 UNDP)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과 생존 영역의 지표들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 자료를, 정치 권한부여 영역은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이하 IPU)과 WEF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지수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국제기구가 공표하는 정량적 통계 수치를 사용하고, 각국 정부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표 IV-2〉 GGI의 지표구성과 자료원

하위지수	지 표	자 료 원
경제참여와 기회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노동기구(ILO), ILOSTAT,
	유사업무 임금 수준	세계경제포럼(WEF), 기업임원의견조사(Executive Opinion Survey),
	추정소득	국제노동기구(ILO), ILOSTAT,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s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	국제노동기구(ILO), ILOSTAT
	전문·기술직 비율	국제노동기구(ILO), ILOSTAT
교육성취도	문해율	유네스코(UNESCO), UIS Stat Education Statistics Data portal. 없는 경우는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Human Development Reports 2013에서 2023년 사이 가장 최근 가능한 자료
	초등교육 취학률	유네스코(UNESCO), UIS Stat Education Statistics Data portal.
	중등교육 취학률	유네스코(UNESCO), UIS Stat Education Statistics Data portal.
	고등교육 취학률	유네스코(UNESCO), UIS Stat Education Statistics Data portal.
건강과 생존	출생 성비	세계은행(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s.
	건강 기대 수명	세계보건기구(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base.
정치권한 부여	국회의원 비율	국제의회연맹(IPU)
	장관 비율	국제의회연맹(IPU)
	(지난 50년 동안) 국가수장 재직기간	세계경제포럼(WEF) 산정 자료

자료: WEF(2023),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3」, p.63

4) 측정방법

GGI는 수준보다는 격차에, 정책보다는 성과에, 여성권한보다는 성평등 수준에 주목한다. 이 지수는 절대 기준에 비해 성과를 수량화하는 지수로 성평등과 관련된 주요 영역과 지표를 담고 있다. 초기 GGI는 정량적 지표와 함께 104개 국가의 기업총수 9,00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세계경제포럼의 기업임원 의견조사(Executive Opinion Survey)를 통한 질적 척도도 함께 사용했으나, 최근 산정에 활용되는 지표는 자료입수의 한계와 조사의 주관적 요소 때문에 정량적인 지표만을 사용하고 있다. GGI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단계의 과정을 통해 산정된다.

〈표 IV-3〉 GGI 산정 단계

단계	내용
1단계	- 모든 자료를 남성 대비 여성 비(성비)로 변환 - 예를 들어, 여성의원의 비율이 20%인 국가의 경우 남성 대 여성 비가 80대 20으로 성비는 0.25가 됨. 이 과정은 여성과 남성의 성취 그 자체가 아닌 여성과 남성의 격차를 산정하기 위한 것임
2단계	- 성비는 평등기준점 1에서 절삭함. 이는 여성과 남성이 완전 평등할 때 1값을 갖는다는 의미임 - 단, 출생성비는 0.944, 기대수명은 1.06이 평등기준점으로 활용됨
3단계	- 지표별 표준편차의 변화(1%p 변화)를 이용해 가중치를 부여함(표 IV-4) 참조).
4단계	- 각 영역별 평균값을 단순 평균해 지수를 산정함 - 하위 지표와 마찬가지로 최종 지수는 0과 1 사이의 범위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해 국가 간 상대적 순위를 파악함으로써 국가 비교가 가능해짐
지수 산정 시 유의사항	- 모든 차원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1(완전 평등)이고 가장 낮은 점수는 0(완전 불평등)임 - 모든 점수는 평등과 불평등, 0과 1 사이에 분포함 - 지표별 가중치는 전체 GGI 점수 산정에 활용되지 않으며, 각 지표의 점수 산정에만 활용함 - GGI 점수는 비율 값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계산된 점수를 해석하는 데 있어 엄격한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음. 점수는 단지, 한 나라의 성격차가 얼마나 증감했는지에 대한 지표로만 의미를 두어야 함

자료: WEF(2020), 「The Global Gender Gap Index report 2020」, pp.45-47

〈표 IV-4〉 GGI 지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영역	지표	단위	가중치	
			지표별	전체
경제참여와 기회	경제활동참가율	비율 (ratio)	0.199	$(0.199+0.310+0.221+0.149+0.121) \times (1/4)$
	유사업무 임금 수준		0.310	
	추정소득		0.221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		0.149	
	전문·기술직 비율		0.121	
교육 성취도	문해율	비율 (ratio)	0.191	$(0.191+0.459+0.230+0.121) \times (1/4)$
	초등교육 취학률		0.459	
	중등교육 취학률		0.230	
	고등교육 취학률		0.121	
건강과 생존	출생 성비	비율 (ratio)	0.693	$(0.307+0.693) \times (1/4)$
	건강 기대 수명		0.307	
정치권한부여	국회의원 비율	비율 (ratio)	0.310	$(0.310+0.247+0.443) \times (1/4)$
	장관 비율		0.247	
	(지난 50년 동안) 국가수장 재직기간		0.443	

주: 하위영역가중치는 지표값 표준편차의 역수임

자료: WEF(2020), 「The Global Gender Gap Index report 2020」, p.48

5) 발표 및 재산정 일정

GGI는 매년 10월경 WEF의 홈페이지를 통해 ‘성 격차 보고서’를 통해 발표된다. 최근에는 발표연도에 따라 발표 시점이 다소 변경되고 있고, 2023년 보고서는 2023년 6월에 발표되었다.

나. GG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³²⁾

1) 한국의 GGI 수준

2023년 기준 GGI 순위는 전체 146개국 중 105위로 2022년도 99위에 대비해 6단계 하락하였고, 점수는 0.680점으로 2022년 0.689점 대비 0.009점 하락하였다. GGI는 점수가 1이면 완전평등상태이고 0이면 완전불평등상태로 점수가 하락하였다는 것은 기존 대비 성평등 수준이 퇴보하였음을 의미한다. 순위가 하락한 주된 이유는 정치적 권한의 장관 비율과 경제참여 및 기회의 관리직 비율, 교육적 성취의 문해율 점수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분야별로 교육적 성취와 정치적 권한은 순위가 하락했고, 경제참여 및 기회, 건강과 생존은 순위가 소폭 개선되었다. 4개 분야 점수를 살펴보면, 교육적 성취와 건강과 생존 분야가 각 0.977점, 0.976점으로 가장 성평등에 가까운 상황이고, 다음이 경제참여와 기회가 0.597점이고, 정치적 권한 부여가 0.16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GGI 산출 대상인 전체 146개국의 분야별 평균 점수와 비교할 때, 교육적 성취 및 건강과 생존 분야는 평균보다 점수가 높고, 경제참여와 기회는 평균에 비해 0.004점, 정치적 권한 부여는 평균에 비해 0.052점 낮은 수준이다.([그림 IV-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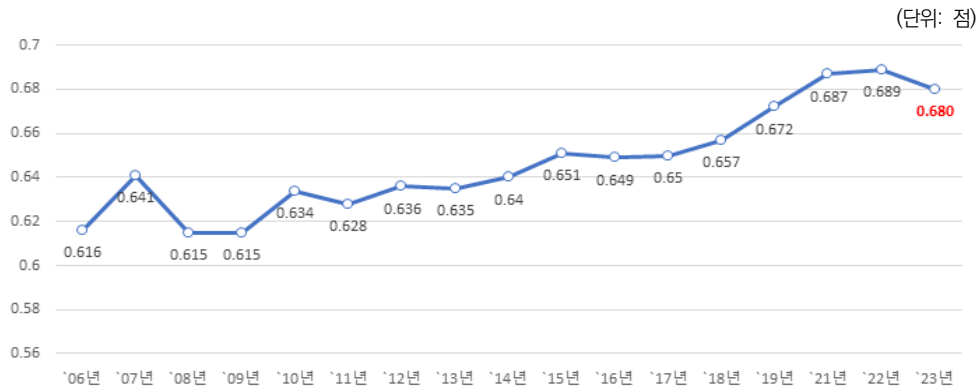
32) WEF(2023).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3」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작성함.



주: 각 영역별 평균 점수는 인구 가중치를 반영한 것임
 자료: WEF(2023),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3」, p.15, 225

[그림 IV-1] 한국의 GGI 수준 - 2023년

먼저, GGI 변화 추세를 살펴본다. 한국은 GGI 점수에서 2008년 이후 대체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왔으나, 2023년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다([그림 IV-2] 참고).



자료: WEF(2023),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3」, pp. 57-59

[그림 IV-2] 한국의 GGI 수준 추이 - 점수

지난 15년간의 추이를 보면 점수는 2006년의 0.616점에 비해 2022년 0.689점으로 대체로 상승 추세였으나, 2023년은 0.680점으로 다소 하락하였다. 점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의 점수 상승세와 GGI 산출 국가가 확대되는 상황 때문에 순위는 2006년 92위 이후 계속 100위권 밖에 머물렀다 2022년 99위로 100위권 내로 진입

했으나, 2023년 다시 105위로 밀려난 상황이다. 영역별 순위를 살펴보면, 건강과 생존 분야가 2006년 94위에서 2023년 46위로 48단계 상승하였고, 다음이 정치적 권한 부여가 2006년 84위에서 2022년 72위로 상승했다 2023년 88위로 소폭 하락하였다. 교육적 성취의 순위가 가장 많이 하락하였는데, 2006년 82위였으나 2023년 104위로 22단계 하락하였다. 경제참여와 기회는 2006년 96위에서 2023년 114위로 18단계 하락하였다. 점수는 모든 영역에서 상승하였는데, 특히 경제참여와 기회 부분에서 상승폭이 크다. 경제참여와 기회는 2006년 0.481점에서 2023년 0.597점으로 0.116점 상승하였고, 그 다음 정치적 권한 부여에서 2006년 0.067점에서 2023년 0.169점으로 0.102점 상승하였다. 기존 점수가 높은 수준이었던 교육적 성취 및 건강과 생존 영역은 2006년 대비 2023년 각 0.029점, 0.009점 상승하였다.

〈표 IV-5〉 한국의 GGI 수준 추이

(단위: 점수, 순위)

발표년도	순 위	점 수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2023	105/146	0.680	0.597(114위)	0.977(104위)	0.976(46위)	0.169(88위)
2022	99/146	0.689	0.592(115위)	0.976(97위)	0.976(52위)	0.212(72위)
2021	102/156	0.687	0.586(123위)	0.973(104위)	0.976(54위)	0.214(68위)
2020	108/153	0.672	0.555(127위)	0.973(101위)	0.980(1위)	0.179(79위)
2018	115/149	0.657	0.549(124위)	0.973(100위)	0.973(87위)	0.134(92위)
2017	118/144	0.650	0.533(121위)	0.960(105위)	0.973(84위)	0.127(90위)
2016	116/144	0.649	0.537(123위)	0.964(102위)	0.973(76위)	0.120(92위)
2015	115/145	0.651	0.557(125위)	0.965(102위)	0.973(79위)	0.107(101위)
2014	117/142	0.640	0.512(124위)	0.965(103위)	0.973(74위)	0.112(93위)
2013	111/136	0.635	0.504(118위)	0.959(100위)	0.973(75위)	0.105(86위)
2012	108/135	0.636	0.509(116위)	0.959(99위)	0.973(78위)	0.102(86위)
2011	107/135	0.628	0.493(117위)	0.948(97위)	0.974(78위)	0.097(90위)
2010	104/134	0.634	0.520(111위)	0.947(100위)	0.973(79위)	0.097(86위)
2009	115/134	0.615	0.520(113위)	0.894(109위)	0.973(80위)	0.071(104위)
2008	108/130	0.615	0.487(110위)	0.937(99위)	0.967(107위)	0.071(102위)
2007	97/128	0.641	0.580(90위)	0.949(94위)	0.967(106위)	0.067(95위)
2006	92/115	0.616	0.481(96위)	0.948(82위)	0.967(94위)	0.067(84위)
2006-2023 점수 변화	△0.064		△0.116	△0.029	△0.009	△0.102

자료: WEF(2023),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3」, pp.57-59

2023년 지표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14개 지표 중 6개 지표 - 경제활동참가율, 유사업무 임금성비, 추정소득, 전문직 비율, 국회의원 비율 - 는 순위와 점수 모두 상승하였다. 전문직 비율이 1점(1순위)으로 완전 평등한 상태로 나타났고, 출생성비는 0.944점이지만 1순위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순위가 높은 것은 여성 국가수장 재임기간인데, 2022년 31위에서 2023년 36위로 소폭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순위를 보여줬고, 건강기대수명 역시 57위로 중상 수준을 유지하였다. 100위권 밖의 순위를 보인 것은 추정소득(119위, 0.495점), 관리직 비율(128위, 0.171점), 고등교육기관 취학률(115위, 0.833점), 국회의원 비율(102위, 0.236점) 등으로 성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분야별로 보면 건강과 생존이 46위(0.976점)로 전체 분야 중 순위가 가장 높았고, 경제참여 및 기회가 114위(0.597점)로 전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건강과 생존, 경제참여 및 기회 분야는 전년 대비 순위가 소폭 상승하였고, 교육적 성취와 정치적 권한은 하락하였다.

각 분야별로 GGI 수준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는 2023년 114위, 0.597점으로 순위와 점수 모두 2020년 이후 소폭 상승하였다. 전문·기술직 비율에서 2023년 1위, 1.000점으로 완전 평등한 상태를 달성하였는데, 2020년 88위(0.927), 2021년 80위(0.968), 2022년 68위(0.998)를 거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다. 유사업무 임금성비와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2020년 이후 지속 개선되어 2023년 각 76위, 0.620점, 85위, 0.747점을 기록하였다. 다만, 추정소득 부분은 2020년 121위에서 2023년 119위로 12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점수는 2020년 0.476점에서 2023년 0.495점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순위와 점수가 낮은 지표가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인데, 2020년 0.108점, 142위에서 2022년 0.194점, 125위로 개선세를 보이다가 2023년 다시 0.171점, 128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의 GGI 수준 추이

지표(F/M)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 전체	114	0.597	115	0.592	123	0.586	127	0.555
경제활동참가율	85	0.747	90	0.737	92	0.774	92	0.756
유사업무 임금성비	76	0.620	98	0.603	116	0.574	119	0.551
추정소득(US \$)	119	0.495	120	0.493	119	0.492	121	0.476

지표(F/M)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	128	0.171	125	0.194	134	0.185	142	0.108
전문·기술직 비율	1	1.000	68	0.998	80	0.968	88	0.927

주: 발표연도 기준

교육적 성취 분야는 초등교육 취학률(net)이 69위(0.999점)로 가장 순위가 높고, 다음이 문해율 74위(0.992), 중등교육 취학률(net) 85위(0.994), 고등교육 취학률(gross) 115위(0.833) 순이다. 초등교육 취학률(net)은 2020년 84위, 2021년 85위, 2022년 70위 등으로 상승세를 유지하였고, 2023년 처음으로 60위권에 진입하였다. 문해율의 경우,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연속 1위, 1.000점으로 완전 평등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2023년 처음으로 0.008점 감소하면서 74위로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다. 중등교육 취학률(net)은 2021년까지 100위권 밖이었으나, 2022년 처음 82위로 진입했다 2023년 85위로 소폭 하락하였다. 고등교육 취학률(gross)는 2020년 120위에서 2023년 115위로 여전히 100위권 밖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점수는 일정 수준 증가세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교육적 성취 분야는 문해율과 초등교육 취학률은 높은 수준의 성평등 상태를 유지한다 보여지나, 중등과 고등교육 취학률에서 여전히 성격차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표 IV-7〉 교육적 성취 분야의 GGI 수준 추이

지표(F/M)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교육적 성취 분야 전체	104	0.977	97	0.976	104	0.973	101	0.973
문해율	74	0.992	1	1.000	1	1.000	1	1.000
초등교육 취학률(net)	69	0.999	70	1.000	85	0.998	84	0.998
중등교육 취학률(net)	85	0.994	82	0.994	108	0.996	107	0.996
고등교육 취학률(gross)	115	0.833	113	0.817	121	0.791	120	0.791

주: 발표연도 기준

건강과 생존 분야는 건강기대수명에서 2020년 1순위에서 2021년 62위로 순위가 하락한 이후 2022년 57위 1.047점으로 개선되었고, 2023년도 2022년과 동일한 순위

및 점수를 보여주었다. 출생성비는 2018년 137위에서 2020년 1위로 점수가 급격한 순위 상승을 보인 이후 2023년까지 1위, 0.944점을 유지하고 있다.

〈표 IV-8〉 건강과 생존 분야의 GGI 수준 추이

지표(F/M)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건강과 생존 분야 전체	46	0.976	52	0.976	54	0.976	1	0.980
출생 성비	1	0.944	1	0.944	1	0.944	1	0.944
건강기대수명	57	1.047	57	1.047	62	1.048	1	1.060

주: 발표연도 기준

정치적 권한 분야를 전체적으로 2020년 이후 2022년까지 순위가 소폭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3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추세이다. 가장 순위가 높은 지난 50년 동안 국가 수장 재직기간의 경우, 2020년 29위에서 2023년 36위로 하락하였고, 점수는 0.104로 유지 중이다. 장관 비율은 2023년 88위, 0.200점인데, 2020년 0.285점, 2021년과 2022년 0.385점으로 동일하다가 2023년 0.200점으로 하락하면서 순위도 88위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국회의원 비율은 2023년 102위로 순위가 가장 낮고, 2020년 이후 계속 100위권 밖에 머물고 있지만, 소폭 상승세를 보이면서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다.

〈표 IV-9〉 정치적 권한 분야의 GGI 수준 추이

지표(F/M)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정치적 권한 분야 전체	88	0.169	72	0.212	68	0.214	79	0.179
국회의원 비율	102	0.236	104	0.229	107	0.235	108	0.200
장관 비율	88	0.200	58	0.385	60	0.385	73	0.285
지난 50년 동안 국가 수장 (총리 이상)의 재직기간	36	0.104	31	0.104	33	0.104	29	0.104

주: 발표연도 기준

2) 주요 국가의 GGI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회원국의 2023년 GGI 수준을 보면 전체 38개 국가 중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뉴질랜드가 1위부터 4위까지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OECD 회원국 중 8개 국가가 10위권 내 포진해 있다. 한국은 105위로 이는 38개 국가 중 36번째이다. 38개국 중 100위권을 넘어가는 경우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뿐인데, 체코가 101위(OECD 중 35위)로 한국보다 조금 높고, 일본이 125위(OECD 중 37위)이고, 튀르키예가 129위(OECD 중 38위)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종합 GGI 점수는 1위인 아이슬란드가 0.912점으로 한국의 0.680점에 비해 0.232점이 높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에서는 노르웨이가 전체 11위로 0.800점이고, OECD 국가 중 1위이다. 이어서 146개국 중 아이슬란드가 14위, 스웨덴이 15위이다. 한국의 점수는 114위 0.597점으로 OECD 국가 중 1위인 노르웨이와 0.283점 차이를 보인다. 교육적 성취 분야에서는 38개국 중 핀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벨기에, 아일랜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캐나다, 프랑스, 콜롬비아,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체코 등 15개국이 완전 평등상태인 1.000점을 기록하여 한국의 0.977보다 0.023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과 생존 분야는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가 완전 평등상태인 1.000점으로 동일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국은 46위 0.976점으로 1위 국가와 0.004점 차이가 있었다. 정치적 권한 분야는 아이슬란드가 1위로서 점수는 0.901점이며, 한국은 0.169점으로 무려 0.732점이 낮아 이 분야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0〉 OECD 국가 중 GGI 1위 국가와 한국간의 점수격차(2023년)

구분	종합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1위 국가	1	0.912	11	0.880	1	1.000	1	0.980	1	0.901
대한민국	105	0.680	114	0.597	104	0.977	46	0.976	88	0.169
점수 격차	-	▽0.232	-	▽0.283	-	▽0.023	-	▽0.004	-	▽0.732

주: 발표연도 기준

〈표 IV-11〉 OECD 회원국의 GGI 현황(2023년)

국가명	종합 순위	종합 점수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한국	105	0.680	114	0.597	104	0.977	46	0.976	88	0.169
아이슬란드	1	0.912	14	0.796	79	0.991	128	0.961	1	0.901
노르웨이	2	0.879	11	0.800	84	0.989	127	0.961	2	0.765
핀란드	3	0.863	20	0.783	1	1.000	71	0.970	4	0.700
뉴질랜드	4	0.856	42	0.732	1	1.000	101	0.966	3	0.725
스웨덴	5	0.815	15	0.795	1	1.000	118	0.963	11	0.503
독일	6	0.815	88	0.665	82	0.989	64	0.972	5	0.634
리투아니아	9	0.800	26	0.767	83	0.989	1	0.980	20	0.466
벨기에	10	0.796	44	0.728	1	1.000	91	0.968	16	0.486
아일랜드	11	0.795	41	0.732	1	1.000	111	0.964	17	0.482
라트비아	13	0.794	22	0.775	1	1.000	52	0.975	27	0.424
코스타리카	14	0.793	84	0.676	31	0.999	60	0.973	10	0.524
영국	15	0.792	43	0.731	34	0.999	105	0.965	19	0.472
스페인	18	0.791	48	0.722	39	0.998	98	0.967	18	0.475
스위스	21	0.783	63	0.700	102	0.978	115	0.964	14	0.491
에스토니아	22	0.782	25	0.771	1	1.000	32	0.979	31	0.377
덴마크	23	0.780	46	0.727	40	0.998	112	0.964	24	0.432
호주	26	0.778	38	0.740	78	0.991	89	0.968	29	0.412
칠레	27	0.777	96	0.642	64	0.994	69	0.970	12	0.502
네덜란드	28	0.777	77	0.684	1	1.000	124	0.962	21	0.460
슬로베니아	29	0.773	30	0.760	1	1.000	63	0.972	36	0.358
캐나다	30	0.770	36	0.740	1	1.000	93	0.968	33	0.374
포르투갈	32	0.765	34	0.745	76	0.991	62	0.973	38	0.352
멕시코	33	0.765	110	0.601	62	0.994	49	0.975	15	0.490
프랑스	40	0.756	51	0.717	1	1.000	76	0.970	39	0.338
콜롬비아	42	0.751	92	0.657	1	1.000	51	0.975	34	0.373
미국	43	0.748	21	0.780	59	0.995	78	0.970	63	0.248
룩셈부르크	44	0.747	57	0.710	30	1.000	108	0.965	43	0.315
오스트리아	47	0.740	74	0.692	55	0.996	77	0.970	48	0.303

국가명	종합 순위	종합 점수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폴란드	60	0.722	64	0.699	50	0.997	1	0.980	73	0.211
슬로바키아	63	0.720	50	0.718	1	1.000	1	0.980	80	0.183
이탈리아	79	0.705	104	0.618	60	0.995	95	0.967	64	0.241
이스라엘	83	0.701	75	0.688	1	1.000	109	0.964	96	0.150
그리스	93	0.693	82	0.676	81	0.990	96	0.967	102	0.140
헝가리	99	0.689	62	0.701	58	0.995	1	0.980	130	0.079
체코	101	0.685	101	0.636	1	1.000	37	0.978	108	0.128
일본	125	0.647	123	0.561	47	0.997	59	0.973	138	0.057
튀르키예	129	0.638	133	0.500	99	0.980	100	0.966	118	0.106

주: 발표연도 기준

2. 유엔개발계획의 성개발지수, 성불평등 지수, 성사회규범 지수

가. 성개발지수 소개

1) GDI의 의의와 특징³³⁾

유엔개발계획(이하 UNDP)은 2014년부터 새롭게 개선한 성개발지수(Gender Development Index, 이하 GDI)를 발표하였다. GDI는 1995년 제4차 여성대회에서 처음 발표한 이래로 2009년까지 약 10여년간 매년 발표되었으나, 여러 한계로 인해 2009년에 폐기되었다. 현재 GDI는 2014년에 개편된 것이다. 기존의 GDI가 HDI(Human Development Index)를 기준으로 성별 격차를 고려할 경우 HDI가 얼마나 바뀌게 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개선된 GDI는 여성과 남성의 HDI를 개별로 계산함으로써 여성집단과 남성집단의 HDI를 각각 산출하였다. 그 결과 남녀 간의 HDI 수치의 절대 격차에 기초하여 순위를 매기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별, 지역별, 연도별 남녀 HDI의 절대수치의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다³⁴⁾.

33) GDI 지표 구성과 소개는 거의 변화가 없음. 이에 선행연구인 주재선, 정성미, 한진영, 박송이(2019). 「2019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pp. 86-89, 김경희, 이민아, 이은아, 김은경(2020). 「2020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p. 63-74, 주재선, 김영란, 조선미, 송치선(2021). 「2021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p. 75-83, 주재선, 김효주, 조선미, 권도연(2022). 「2022년 국가성평등 보고서」, pp. 76-84 원문을 대부분 발췌 및 인용하여 작성함.

〈표 IV-12〉 기존 GDI와 새로운 GDI 비교

지수명	기존 GDI	새로운 GDI
영문명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ender Development Index
우리나라 순위	2009년 ¹⁾ 155개국 중 25위	2021/2022년 ¹⁾ 191개국 중 106위 ²⁾
발표기간	1995-2009년	2014년-현재
지수 구성요소	• 출생시 기대여명 • 성인 문해율(15세 이상 인구) • 초중고 취학률 • 1인당 추정소득(GDP)	• 출생시 기대여명 • 평균 교육년수(25세 이상 인구) • 기대 교육년수 • 1인당 추정소득(GNI)
측정방법	• 지표별 성불평등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 • 국가별 수준 반영	• 성별 HDI를 산정 후 성비를 산출하는 방식 • 국가별 수준 미반영, 성별격차만 반영

주: 1) 발표연도 기준

2) 191개국 중 GDI 점수가 산출되지 않은 국가(19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순위임

새로 발표된 GDI는 인간개발의 기본적인 세 가지 차원인 건강, 교육, 경제(적절한 표준 삶)에서의 성취 수준에 대한 성별 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UNDP, 2014: 7). 이에 따라 GDI는 해당 국가의 HDI 수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었던 과거의 집계방식에서 벗어나, HDI의 성별 차이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즉, 성별에 따른 HDI를 산정한 후 성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측정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HDI에서 국가의 발전 수준이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배제하고, 남녀 간의 격차만이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을 의미한다.

2) 지표의 구성

GDI는 3개 영역의 총 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영역으로는 평균수명, 교육영역으로는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와 기대 교육년수, 경제영역으로는 국민총생산(GNI)을 기준으로 한 1인당 추정소득이다.

출생시 기대여명은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를 말한다. 기대 교육년수는 연령별 취학률 패턴이 지속된다면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교육년수이다. 1인 당 GNI(추정소득)는 1인당 국민소득을 미국 달러 기준의 구매력 평가 환율로 변경한 것으로 성별 인구 비중, 경제활동인구 비중, 임금 격차의 세 변수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34) 자료는 UNDP HDR 홈페이지(<http://hdr.undp.org>) 중 Frequently Asked Questions-GDI 부분을 참고함.

〈표 IV-13〉 GDI 영역과 지표

영역	2009년 GDI 지표 구성	2014년 이후 GDI 지표 구성
건 강	• 출생 시 기대여명	• 출생 시 기대여명
교 육	• 성인 문해율 • 총 취학률	•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 • 기대 교육년수
경 제	• 1인당 GDP(PPP\$)	• 1인당 GNI(PPP\$)

3) 지표별 자료원

지수산정에 활용된 자료원을 보면 출생시 기대여명은 유엔경제사회국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기대 교육년수는 UNESCO 통계연구소(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 CEDLAS와 세계은행, ICF Macro, UNICEF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평균 교육년수는 UNESCO 통계연구소 자료 및 Barro와 Lee의 방법론에 의해 산출된 자료와 함께, OECD, ICF Macro, UNICEF 통계 자료가 사용되었다. 추정소득은 ILO, IMF, 세계은행, UN 통계위원회, UN 경제사회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유엔개발보고서 담당자들이 산출하고 있다(UNDP, 2022: 6).

〈표 IV-14〉 GDI 지표별 자료원(2022년)

지표	자료원
출생시 기대여명	• UNDESA(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22 Revision.
기대 교육년수 (학령기 학생)	• CEDLAS and World Bank(2022). Socio-Economic Database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ICF Macro(various years).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2022). UIS Developer Portal, Bulk Data Download Service, • UNICEF(various years).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
평균 교육년수 (25세 이상 인구)	• Barro and Lee(2018). Dataset of Educational Attainment. • ICF Macro(Various years).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 OECD(2022). OECD.Stat.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2022). UIS Developer Portal, Bulk Data Download Service. • UNICEF(various years).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
추정소득 (PPP\$)	• UNDP-HDRO(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가 하단 자료로부터 남녀 경제 활동인구 비율 및 남녀 임금 비율(전 부문, 2017년 GNI 기준, PPP\$), 남녀 인구비율을 환산하여 계산함. • ILO(2022). ILOSTAT database.

지표	자료원
	• IMF(2022).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 UNDESA(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22 Revision. •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2022). National Accounts Main Aggregate Database. • World Bank(2022).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자료: UNDP(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 Technical notes. p.6
https://hdr.undp.org/sites/default/files/2021-22_HDR/hdr2021-22_technical_notes.pdf
 (2022년 12월 17일 접속)

4) 측정방법

GDI는 네 단계의 순서를 거쳐 계산된다(UNDP, 2022).

첫째 단계는 남녀별 소득의 추정이다. 이를 위한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S_f = \frac{W_f / W_m \cdot EA_f}{W_f / W_m \cdot EA_f + EA_m}$$

S_f : 여성의 소득 비율

W_f / W_m : 남성대비 여성임금비

EA_f : 경제활동참가인구 중 여성비중

여성 1인당 소득추정은 국민총생산에 여성 임금비율과 여성인구 비중을 곱하여 구한다.

$$GNI_{pcf} = GNI_{pc} \cdot S_f / P_f$$

P_f : 여성인구 비중

남성 1인당 소득추정 역시 국민총생산에 남성 임금비율과 남성인구 비중을 곱하여 구한다.

$$GNI_{pcm} = GNI_{pc} \cdot S_m / P_m$$

P_m : 남성인구 비중

둘째 단계는 지표들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모든 지표들을 0에서 1까지의 척도로 전환한다.

〈표 IV-15〉 GDI의 최대·최소값 설정

지표	최솟값	최댓값
기대 교육년수	0	18
평균 교육년수	0	18
추정소득	100	75,000
기대여명		
여자	22.5	87.5
남자	17.5	82.5

최솟값과 최댓값을 이용하여, 지표의 표준화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text{지표의 표준화} = \frac{(\text{실제값} - \text{최솟값})}{(\text{최댓값} - \text{최솟값})}$$

두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 분야는 각 지표의 지숫값을 구하여 산술 평균값을 취한다.

셋째 단계는 여성 HDI값과 남성 HDI값을 산출하는 것이다.

여성 HDI와 남성 HDI는 세 분야 지수들의 기하평균값을 취한다.

$$HDI_f = (I_{Healthf} \cdot I_{Educationf} \cdot I_{Incomef})^{1/3}$$

$$HDI_m = (I_{Healthm} \cdot I_{Educationm} \cdot I_{Incomem})^{1/3}$$

넷째 단계는 GDI를 계산하는 것이다.

$$GDI = \frac{HDI_f}{HDI_m}$$

나. GD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1) 한국의 GDI 수준³⁵⁾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는 각 국가의 GDI 점수를 발표하되, 순위를 매기지 않고, 대신 5그룹으로 나누어 각 국가들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를 집계하고 있다. 이 분류에

35) UNDP(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작성함

따르면, 1그룹은 GDI 점수가 0.975 이상인 국가이다. 다시 말해 남성과의 격차가 $\pm 2.5\%$ 이하인 국가를 1그룹(0.975~1.000 또는 1.000~1.025)으로 상정하였다. 2그룹은 격차가 $\pm 5\%$ 이하(0.950~0.975 또는 1.025~1.050), 3그룹은 $\pm 7.5\%$ 이하(0.925~0.950 또는 1.050~1.075), 4그룹은 $\pm 10\%$ 이하(0.900~0.925 또는 1.075~1.100), 5그룹은 $\pm 10\%$ 를 초과(0.900 미만 또는 1.100 초과)인 국가로 범주화하였다.³⁶⁾ 국가별 순위 대신 수준을 범주화한 이유는 이 GDI 지표의 개발 의도가 국가별 비교보다는 남녀 개발지수의 격차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를 감소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기준에 따라 2022년 발표된 한국의 GDI 수준은 0.944점으로 성격차 수준 5그룹 중 3그룹에 속해 있고, 그룹 등급(남녀간 격차가 높은 순위)과 관계 없이 GDI 점수 순위(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순위)로 산정한다면 OECD 38개 국가 중 37번째 순위로 매우 낮다. 순위가 낮은 가장 큰 원인은 남녀 소득수준 격차가 큰 이유가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추정소득이 여성은 \$29,300, 남성은 \$59,737이다.

총점수를 보면 여성 HDI가 0.894, 남성 HDI가 0.947로 집계되고 있어 기준연도 2015년에 비해 2022년 여성은 0.033점 증가했으며 남성은 0.021점 증가했다.

〈표 IV-16〉 한국의 GDI 수준

발표 연도	순위/대상	GDI	인간개발지수 (HDI)		출생시 기대여명(년) ¹⁾		평균 교육년수(년) ²⁾		기대 교육년수(년) ³⁾		추정소득 (2011 PPP\$) ⁴⁾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22	3그룹	0.944	0.894	0.947	86.8	80.4	16.1	16.9	11.9	13.2	29,300	59,737
2020	3그룹	0.936	0.881	0.941	86.0	79.9	11.4	12.9	15.9	17.0	27,734	58,309
2018	3그룹	0.934	0.870	0.932	85.8	79.7	11.5	12.9	15.8	16.9	23,228	50,241
2017	3그룹	0.932	0.866	0.929	85.3	79.2	15.9	17.1	11.4	12.9	22,572	49,297

36) GDI는 남녀 개발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여성과 남성의 얼마나 동등한지의 상대적 격차를 중심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GDI가 1에 가까울수록 성평등 수준이 높음. 따라서 GDI 점수의 절대 값과 그룹 등급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상황 역시 성평등이 낮은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높은 GDI 점수가 곧 높은 성평등 수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음. 즉, GDI는 GDI 점수와 그룹 등급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해석이 필요함.

발표 연도	순위/대상	GDI	인간개발지수 (HDI)		출생시 기대여명(년) ¹⁾		평균 교육년수(년) ²⁾		기대 교육년수(년) ³⁾		추정소득 (2011 PPP\$) ⁴⁾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16	3그룹	0.929	0.863	0.929	85.2	78.8	11.5	12.9	15.8	17.3	21,308	47,934
2015	3그룹	0.930	0.861	0.926	85.0	78.5	11.2	12.7	16.0	17.7	21,896	46,018
2015-2022 (통계발표기준) 점수 변화	-	△ 0.014	△ 0.033	△ 0.021	△1.8	△1.9	△4.9	△4.2	▽4.1	▽4.5	△ 7,404	△ 13,719

주: 1) 출생시 기대여명: 0세의 평균 기대수명

2) 평균 교육년수: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

3) 기대 교육년수: 학령기 아동이 기대하는 평균 기대 교육년수

4) 1인당 GNI: 1인당 국민소득을 미국 달러 기준의 구매력평가 환율로 변경한 소득

기존 GDI의 한국 수준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2009년의 경우 155개 국가 중 25위로 HDI 순위인 26위보다 한 계단 높다. 이와 같이 GDI의 한국 수준이 높은 이유는 첫째, 교육수준 지표에서 사용한 문맹률의 남녀차이가 없었기 때문이고, 둘째, HDI 수준을 기준으로 남녀차이를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 개선된 GDI는 해당 국가의 절대적인 HDI 수준에 무관하게 남녀차이만을 순수하게 보여주려 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표 IV-17〉 기존 GDI의 한국 수준

연도	대상 국가	순위	평균 수명(년)		성인 문해율(%)		초중고 취학률(%)		추정소득 (PPP\$)		HDI 순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00	143	30	76.2	69.0	95.9	99.0	84.0	94.0	8,342	18,529	31
2005	144	27	80.6	73.3	99.0	99.0	87.0	100.0	11,698	24,167	28
2009	155	25	82.4	75.8	99.0	99.0	90.6	105.8	16,931	32,668	26

2) 주요 국가의 GDI 수준

2014년에 개편된 GDI는 이전의 GDI와 달리 해당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비례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즉 이전의 GDI는 추정소득이 높을수록 GDI 점수가 높게 나와 해당 국가의 GDP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새로 바뀐 GDI는 남녀의 차이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관관계가 약화되었다.

2022년 발표된 OECD 국가의 GDI 현황을 보면 HDI 순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에 비해 GDI 점수는 넓게 퍼져있다. 리투아니아가 점수가 1순위로 가장 높지만, 한국은 전체 OECD 국가 38개국 중 37위, 튀르키예가 38위로 최하위이다. 등급별 분포를 보면 GDI 점수가 가장 높은 리투아니아는 2등급이며³⁷⁾,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등 28개 국가는 GDI 1등급에 속해 있고, 스위스, 호주, 네덜란드, 일본 등 8개 국가는 GDI 2등급에 속해 있지만,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는 GDI 3등급이다.

지표별 차이를 보면 GDI 1등급 국가 중 상당수가 평균 교육연수에서 여성이 남성을 앞지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핀란드, 캐나다 등 다수 국가가 여성 평균 교육연수가 남성보다 길고, 2등급 국가의 경우 여성의 평균 교육연수가 남성보다 긴 국가는 호주, 리투아니아이다. 한국은 여성이 11.9, 남성이 13.2로 여성 평균 교육연수가 남성보다 짧다. 기대 교육연수 지표 역시 한국은 여성이 16.1, 남성이 16.9년으로 0.8년의 차이를 보인다. OECD 회원국 중 기대 교육연수는 1등급과 2등급 국가 중 일본, 룩셈부르크, 스위스를 제외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기대 교육연수를 보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3등급 국가인 튀르키예가 여성의 기대 교육연수가 남성보다 짧게 나타났다.

〈표 IV-18〉 OECD 회원국의 GDI 현황(2022년)

국 가 명	GDI		HDI		출생시 기대여명(년)		기대 교육연수(년)		평균 교육연수(년)		추정소득 (PPP US\$)	
	그룹	성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대한민국	3	0.944	0.894	0.947	86.8	80.4	16.1	16.9	11.9	13.2	29,300	59,737
리투아니아	2	1.030	0.888	0.862	78.8	68.8	16.7	15.9	13.6	13.4	33,891	42,500
라트비아	1	1.025	0.873	0.852	77.8	69.2	16.8	15.6	13.6	12.9	27,882	38,506
에스토니아	1	1.021	0.898	0.879	81.2	72.8	16.8	15.1	13.8	13.3	30,995	45,866
폴란드	1	1.008	0.878	0.872	80.4	72.6	16.8	15.3	13.3	13.0	25,261	41,336
미국	1	1.001	0.920	0.919	80.2	74.3	16.9	15.6	13.7	13.6	51,539	78,238
슬로베니아	1	0.999	0.915	0.916	83.8	77.6	18.4	16.9	12.8	12.8	33,038	46,386
슬로바키아	1	0.999	0.847	0.848	78.4	71.5	15.0	14.0	12.9	13.0	24,849	36,813
코스타리카	1	0.996	0.806	0.810	79.8	74.4	17.1	16.0	8.9	8.7	16,568	23,376
포르투갈	1	0.994	0.863	0.867	84.1	77.8	17.0	16.7	9.6	9.5	28,713	38,127

37) 1등급 범주인 0.975-1.000과 1.000-1.025의 범위를 벗어나서 2등급임. 즉 여성의 HDI가 남성이 비해 높은 경우에도 격차에 따라 등급화하고 있음.

국 가 명	GDI		HDI		출생시 기대여명(년)		기대 교육년수(년)		평균 교육년수(년)		추정소득 (PPP US\$)	
	그룹	성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룩셈부르크	1	0.993	0.925	0.931	84.8	80.4	14.4	14.4	13.0	13.0	70,117	98,991
이스라엘	1	0.992	0.915	0.922	84.3	80.2	16.7	15.4	13.4	13.3	34,960	48,126
프랑스	1	0.990	0.898	0.907	85.5	79.4	16.2	15.5	11.4	11.8	38,403	53,988
핀란드	1	0.989	0.934	0.945	84.7	79.3	19.9	18.3	13.0	12.7	41,698	57,394
체코	1	0.989	0.884	0.893	80.9	74.7	16.8	15.7	12.7	13.0	30,455	47,289
멕시코	1	0.989	0.753	0.761	74.9	66.1	15.2	14.5	9.1	9.4	12,456	23,600
스웨덴	1	0.988	0.941	0.952	84.9	81.1	20.5	18.3	12.8	12.4	49,580	59,326
캐나다	1	0.988	0.929	0.941	84.7	80.6	16.9	15.9	13.9	13.7	38,652	55,065
아일랜드	1	0.987	0.934	0.947	83.8	80.2	19.2	18.6	11.8	11.4	61,104	91,506
영국	1	0.987	0.922	0.934	82.8	78.7	17.8	16.8	13.4	13.4	37,374	53,265
헝가리	1	0.987	0.84	0.851	77.9	71.1	15.3	14.8	12.1	12.4	25,909	40,262
스페인	1	0.986	0.896	0.909	85.8	80.2	18.4	17.4	10.5	10.7	31,213	45,784
콜롬비아	1	0.984	0.744	0.756	76.4	69.4	14.7	14.2	9.0	8.7	10,281	18,599
노르웨이	1	0.983	0.950	0.966	84.9	81.6	18.9	17.5	13.1	12.9	54,699	74,445
덴마크	1	0.980	0.937	0.957	83.3	79.5	19.3	18.1	13.2	12.8	49,876	70,961
오스트리아	1	0.980	0.906	0.924	84.1	79.0	16.4	15.6	12.0	12.6	43,414	64,148
독일	1	0.978	0.931	0.952	83.2	78.1	17.0	17.0	13.8	14.3	46,150	63,143
벨기에	1	0.978	0.925	0.946	84.3	79.4	20.7	18.5	12.3	12.4	42,533	62,295
아이슬란드	1	0.976	0.947	0.971	84.2	81.2	20.3	18.1	13.9	13.7	47,136	64,004
뉴질랜드	1	0.975	0.925	0.948	84.3	80.6	20.8	19.7	12.9	13.0	36,864	51,377
일본	2	0.970	0.908	0.936	87.7	81.8	15.2	15.2	13.3	13.4	30,621	54,597
이탈리아	2	0.970	0.879	0.906	85.1	80.5	16.6	15.9	10.6	10.9	31,100	55,187
그리스	2	0.969	0.872	0.90	82.9	77.5	20.1	20.0	11.1	11.7	22,890	35,368
호주	2	0.968	0.932	0.963	85.8	83.2	21.8	20.3	12.8	12.6	37,486	61,161
네덜란드	2	0.968	0.925	0.956	83.4	80.0	19.0	18.4	12.4	12.8	46,301	65,778
스위스	2	0.967	0.944	0.976	85.9	82.0	16.4	16.6	13.5	14.2	54,597	79,451
칠레	2	0.967	0.838	0.867	81.4	76.5	17.0	16.5	10.8	11.0	17,553	31,677
튀르키예	3	0.937	0.806	0.860	79.1	73.0	17.9	18.8	7.9	9.4	19,079	42,929

주: 1) 발표연도 기준

2) GDI 점수 순위로 정렬; 그룹: GDI 1그룹 0.975 이상, 2그룹 0.950~0.975 미만, 3그룹 0.925~0.950 미만, 4그룹 0.900~0.925 미만, 5그룹 0.900 미만

자료: UNDP(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다. 성불평등지수 소개³⁸⁾

1)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이하 GII) 특징³⁹⁾

GII는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2010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 1995년 이래 발표했던 여성개발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이하 GDI)와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이하 GEM)를 대체하는 지수이다. GII는 생식건강, 권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불이익을 파악하도록 지표가 구성된다. GII는 성평등할 때 인간개발이 최적화될 수 있다는 개념 하에,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인간개발의 손실로 접근한다.

GII는 기존 GDI와 GEM의 한계와 비판을 수용하여 개발되었기에 지표의 선정과 지수 산정 방법에 있어 차별화된다. 지표 선정은 기본적으로 개념적 연관성⁴⁰⁾(Conceptual relevance), 해석의 명확성⁴¹⁾(Non-ambiguity), 통계의 신뢰성⁴²⁾(Reliability), 가치 부가⁴³⁾(Value added)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국가의 발전 수준에 의존하지 않는 지표로 구성하였다. GII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비교변수가 아닌 여성만의 생식건강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GII가 발표되기 이전 UNDP에서 발표해오던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가 경제 분야와 정치 분야에서 대표성과 관련된 지표 즉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국회의원 여성 비율, 전문기술직 여성 비율 등의 지표를 포함시켰던 점을 상기한다면 상당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과거의 GEM 지표 중 위의 지표들이 소수 엘리트 여성의 상태만을 제한적으로 반영한다는 비판을 수렴한 결과로 보인다. 즉, 국회의원 여성 비율을 제외한 다른 지표들을 없애는 대신 대부분의 여성에게 해당하는 모성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이라는 보다 인간 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표로 교체하였다.

38) GII지표 구성과 소개는 거의 변화가 없어 주재선, 정성미, 한진영, 박송이(2019). 「2019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pp. 93-96; 김경희, 이민아, 이은아, 김은경(2020). 「2020년 국가 성평등보고서」, pp. 74-84; 주재선(2021). 국제성평등지수로 보는 한국의 성평등 수준; 주재선, 김영란, 조선미, 송치선(2021). 「2021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p. 83-92의 원문을 대부분 발췌 및 인용하여 작성하였음.

39) 본 절은 주재선(2021). “국제성평등지수로 보는 한국의 성평등 수준”의 원문을 대부분 발췌 및 인용하여 작성하였음.

40) 인간개발 정의와 이론과 강력한 관련성. 즉, 지표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는 개념임.

41) 해석이 단순해야 한다는 것으로, 각각의 영역에서 지표 값이 높을수록(혹은 낮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개념임.

42) 정의, 통계의 질, 생산과정 등에서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는 개념임.

43) 각 지표는 명확히 새로운 정보를 주어야 함.

둘째, GII는 기존 지수 추정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던 자료 대체(Imputation)에 의존하지 않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GDI와 GEM의 지표 중 소득은 절대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와 순위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국가의 3/4 이상은 소득을 추정하여 지수를 산정하였다. 특히 소득은 GDI에 있어 HDI와 격차를 가져오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추정에 의한 측정은 주요 문제점 중의 하나였다. 이에 GII는 소득수준이 성격차를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임에도 지표구성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셋째, GII는 성불평등 수준만을 고려하여 지수를 산정하도록 하여, 국가의 발전 정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GII는 세 가지 영역에서 성 불평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성취의 손실을 파악한다. 따라서 지수는 인간개발에서 불평등이 전혀 없는 경우 '0'에서, 완전불평등한 경우 '1'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넷째, GII 측정은 영역 간의 불이익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즉, 영역들이 서로 보완적(Complementarities)임을 고려하여 영역 간의 남녀불평등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때, 불평등 수준이 더 커지도록 설계하였다. 즉, 교육 분야의 불평등은 취업 기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고, 이는 여성 빈곤으로 이어져 모성 사망비 증가 등의 복합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일 때 불평등이 더 높아지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와 같은 측정방법은 GII의 주요한 특징으로, 특정 영역의 낮은 성취는 다른 영역의 높은 성취에 의해서 완전하게 보상될 수 없게 구성한 것이다.⁴⁴⁾ 그리고 GGI 등 대부분의 성평등지수는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어떠한 영역이나 지표를 대상으로 추진해도 동일한 상승효과를 보이나, GII는 불평등 정도가 높은 영역 혹은 지표에 추진할 경우 보다 높은 상승효과를 나타낸다.

2) 지표의 구성과 선정 근거

GII는 생식 건강, 여성 권한, 노동 참여의 3개 영역으로 구축되어 있고 총 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 지표구성을 보면 첫째, 생식건강 영역은 모성 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영역의 지표들이 남녀를 비교한 데 비해, 이 영역의 지표는 여성

44) GII는 영역간의 상관관계가 정(+)의 방향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구축한 지수임. 기존의 국제성평등지수의 경우 성불평등 해소 정책을 어떤 영역이나 지표를 대상으로 추진 하여도, 성불평등 개선 정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면, GII의 경우 어떤 영역 혹은 지표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정책효과가 다르게 나타남. 이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음.

특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두 지표의 선정 근거는 여성특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관련된 여성의 건강이 남녀의 격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출산과 관련한 산모의 사망 위험은 기초교육, 적절한 영양, 피임에 대한 접근성, 의료 서비스, 숙련된 출산조력자를 통해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대부분 큰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에도, 상당수의 여성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고 있어 여성의 건강유지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청소년 출산율로 측정되는 조기 출산은 건강에 대한 문제와 아울러 산모의 미래 인간개발 기회의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지표로 선정되었다. 청소년 출산은 산모와 아기 건강에 대한 높은 위험과 관련이 있고, 출산 여성의 교육 중단과 그로 인한 저숙련 일자리 취업의 가능성이 크다.

둘째, 여성 권한 영역은 여성의원 비율과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비율이라는 두 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의원 비율은 대부분의 성평등지수에서 선택하고 있는 지표로써 정치 분야의 권한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가장 대표적으로 모든 영역의 여성의 지위와 권한을 보여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은 권한 영역에서 교육 분야의 성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해 선택한 지표이다. 교육 수준은 경제와 정치 등 향후 여성의 지위와 연관된 지표로, GII지수는 중등 및 고등교육 성취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참여 영역은 경제활동참가율로 측정하고 있다. GII는 GDI, GEM, GGI 등 대부분의 지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득변수를 지표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득 통계가 국가별로 충분하지 않고 대부분 추정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IV-19〉 GII의 영역과 지표

영역 (차원)	지 표	내 용
생식건강	모성 사망비	여성의 임신, 분만 및 관련 합병증으로 인해 출생 10만 명당 사망하는 여성의 수
	청소년 출산율	15~19세 여성인구 1,000명 당 출산 수 (UN의 출산율 전망치 활용)
여성권한	여성의원 비율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인구 비율	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성별 인구 비율
노동참여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UNDP(2022A), Human Development Index 2021/2022, p.295.

3) 지표별 자료원

지수산정에 활용된 자료원은 모성사망비는 유엔 모성사망 추정 집단 결과(2019)를 활용했고, 청소년 출산율은 유엔 경제사회국(UNDESA, 2022)의 자료를 활용했다. 여성의원 비율은 국제의원연맹(IPU)의 데이터베이스(2022)를 근거로 하였고,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인구 비율은 유네스코 통계연구소(2022)와 Barro and Lee(2018)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국제노동기구(ILO, 2022)의 노동시장 지표에서 수집하였다.

〈표 IV-20〉 GII 지표별 자료원

영역	지표	자료원
생식건강	모성사망비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World Bank Group and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2019). Trends in Maternal Mortality: Estimates by WHO, UNICEF, UNFPA, World Bank Group and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청소년 출산율	• UNDESA(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22 Revision.
여성권한	여성의원비율	• IPU(2022). Parline database: Monthly ranking of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비율	• Barro and Lee(2018). Dataset of Educational Attainment • ICF Macro(various years).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 OECD(2022). OECD.Stat.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2022). UIS Developer Portal, Bulk Data Download Service.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various years).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
노동참여	경제활동 참가율	• ILO(2022). ILOSTAT database.

자료: UNDP(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 Technical notes. p8.
https://hdr.undp.org/sites/default/files/2021-22_HDR/hdr2021-22_technical_notes.pdf
 (2022년 12월 17일 접속).

4) 측정방법

GIИ는 여성과 남성간의 불평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지표 간 연관에서 변화에 민감하도록 설계하였다. 지수산정은 Atkinson 불평등지수 산정방식을 원용하고 있다. 지수는 성별차이를 균등배분(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지수⁴⁵⁾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표준화하여 측정하게 된다. 단계별 측정 과정은 다음의 다섯 단계를 거친다(UNDP, 2022).

첫 번째 단계는 최솟값과 최댓값을 다루는 단계이다. 기하평균을 계산할 때는 0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지표의 최솟값을 0.1로 지정한다. 모성사망비 추정 경우에는 100,000명 출생 당 최솟값 10, 최댓값 1,000으로 조정한다. 이는 사실상 모성 사망비가 1,00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가 모성건강을 위한 조건과 지원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10명 이하인 경우는 국가 간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판단에 기반한다.

두 번째 단계는 기하평균을 이용하여 전체영역의 성별 지표를 계산함으로써 여성(G_F)과 남성(G_M) 각각에 대해 차원 간 통합을 한다. 먼저 여성 지표값 산출을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G_F = \sqrt[3]{\left(\frac{10}{MMR} \cdot \frac{1}{ABR}\right)^{\frac{1}{2}} \cdot (PR_F \cdot SE_F)^{\frac{1}{2}} \cdot LFPR_F}$$

MMR : 모성사망비

ABR : 청소년 출산율

PR_F : 여성의원 비율

SE_F :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여성 비율

$LFPR_F$: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남성 지표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G_M = \sqrt[3]{1 \cdot (PR_M \cdot SE_M)^{\frac{1}{2}} \cdot LFPR_M}$$

PR_M : 남성의원 비율

SE_M :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남성 비율

$LFPR_M$: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
- 45) 개별지표를 균등배분지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평등에 대한 혐오수준을 정해야 함. 불평등 혐오수준(ϵ)은 만약에 불평등에 대한 혐오가 없으면 $\epsilon=0$ 으로 설정하며, 혐오가 높을수록 ϵ 값을 높임. GII는 불평등 혐오수준(ϵ)을 GDI 산정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epsilon=2$ 를 설정하여 계산하고 있음.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에서 산출한 수치에 대해 조화평균을 이용하여 여성과 남성 지표를 계산한다. 기하평균의 조화평균은 여성과 남성의 불평균 측정하고 영역 간 연관성을 수정하기 위해 실시한다.

$$HARM(G_F, G_M) = \left[\frac{(G_F)^{-1} + (G_M)^{-1}}{2} \right]^{-1}$$

네 번째 단계는 생식건강, 권한, 노동시장 영역에 대한 산술평균에 대해 기하평균을 계산한다. 동일한 가중치를 사용하여(즉, 남녀를 동일하게 쳐우함) 남녀 지수 값을 합산함으로써, 불평등정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참고수준(Reference standard)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영역별로 지수 값을 합산한다. 여기서 참고수준은 영역 내 지표를 산출평균한 후 영역 간 동일가중치를 사용하여 기하평균으로 구한다.

$$G_{F, \bar{M}} = \sqrt[3]{\overline{Health} \cdot \overline{Empowerment} \cdot \overline{LFPR}}$$

위 산출 공식의 각 구성요소를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overline{Health} &= (\sqrt{\frac{10}{MMR} \cdot \frac{1}{ABR}} + 1)/2 \\ \overline{Empowerment} &= \frac{(\sqrt{(PR_F) \cdot (SE_F)} + \sqrt{(PR_M) \cdot (SE_M)})}{2} \\ \overline{LFPR} &= \frac{(LFPR_F + LFPR_M)}{2} \end{aligned}$$

마지막 단계는 $HARM(G_F, G_M)$ 을 $G_{F, \bar{M}}$ 으로 나눈 후 다음의 식으로 성불평등 정도를 산출한다. 이는 Atkinson 지수 산정 방법과 같다.

$$GII = 1 - \frac{HARM(G_F, G_M)}{G_{F, \bar{M}}}$$

라. GI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⁴⁶⁾

1) 한국의 GII 수준

GI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높은 수준이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개발에서의 성불평등이 낮은 국가이다. 2022년 발표 기준으로 보면 2022년 한국의 GII는 0.067점으로 191개국 중 15위를 차지하였다. 2020년 11위 0.064점과 비교하면 순위가 4단계 하락하고 성불평등이 약 0.003점 더 높아진 것이지만, 2014년과 비교하면 점수와 순위 모두 개선되었다.

성불평등이 약간 증가한 주요한 원인으로는 청소년 출산율이 2020년 1.4명에서 2.2명으로 0.8명 다소 증가한 요인이 큰 것으로 추측된다. 그 외 지표들의 경우, 모성 사망비는 2020년, 2022년 모두 11명으로 동일하게 유지하였고, 국회 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받은 여성 인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 대비 2022년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의 남녀 격차는 2020년 대비 2022년 크게 감소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의 남녀 격차 또한 2020년 대비 2022년 소폭 감소하였다.

영역별로 보면 생식건강은 모성 사망비가 11명, 청소년 출산율이 2.2명으로 성불평등 수준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국회 여성의원 비율(%)과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비율 등의 여성권한 영역은 비교적 높은 성불평등 수준을 보이며, 노동 참여 영역 또한 성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지표별로 보면, 모성사망비는 2013년 이래 10만명 당 11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청소년출산율은 2013년 이래 계속 감소하다가 2022년 2.2명으로 증가하였다. 국회 여성의원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전반적으로 개선 추이를 보여, 2022년 19.0%로 나타났다. 2022년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비율(%)은 2020년 대비 남성은 감소, 여성은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의 경우 매년 상승 추이를 유지하여 성별 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나, 2022년 기준 성별 격차가 19%p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한국의 순위 변화를 보면, 2013년의 27위에서 2014년에 17위로 크게 상승하였다가 2015년은 23위로 다시 하락하였고, 2017년부터 10위로 급상승한 이후 2019년도까지 10위를 유지하였다. 2020년은 한 단계 하락한 11위였지만 2022년 4단계 하락하면서 하락 폭이 커졌다. 이전의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순위에서

46) UNDP(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작성함.

한국이 최하위권이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상승된 결과로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표 IV-21〉 한국의 GII 수준 추이

발표 연도	순위/대상	점 수 ¹⁾	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	
			모성 사망비 ²⁾	청소년 출산율 ³⁾	국회 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⁴⁾		경제활동참가율(%)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2022	15/191	0.067	11	2.2	19.0	83.1	93.1	53.4	72.4
2020	11/189	0.064	11	1.4	16.7	80.4	95.5	52.9	73.1
2019	10/189	0.058	11	1.4	17.0	89.8	95.6	52.8	73.3
2018	10/189	0.063	11	1.6	17.0	89.9	95.6	52.2	73.2
2017	10/188	0.067	11	1.6	16.3	88.8	94.6	50.0	71.8
2015	23/155	0.125	27	2.2	16.3	77.0	89.1	50.1	72.1
2014	17/152	0.101	16	2.2	15.7	77.0	89.1	49.9	72.0
2013	27/148	0.153	16	5.8	15.7	79.4	91.7	49.2	71.4
2013-2022 (기준연도) 점수 변화	-	▽ 0.086	▽ 5	▽ 3.6	△ 3.3	△ 3.7	△ 1.4	△ 4.2	△ 1.0

주: 1) 모성사망비(UN Maternal Mortality Estimation Group): 임신, 출산 관련 합병증으로 출생 10만명 당 사망 수

2) 청소년 출산율(UNDESA): 15~19세 여성인구 1,000명 당 출산 수

3)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비율(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5세 이상 중, 중등 교육(중·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인구 비율

4) 국제노동기구 통계(ILO)

2) 주요 국가의 GII 수준

2022년 GII의 순위별 국가를 보면 덴마크(1위, 0.013), 노르웨이(2위, 0.016), 스위스(3위, 0.018), 스웨덴(4위, 0.023), 네덜란드(5위, 0.025), 핀란드(6위, 0.033), 아이슬란드(8위, 0.043), 룩셈부르크(9위, 0.044), 벨기에(10위, 0.048), 오스트리아(12위, 0.053), 이탈리아(13위, 0.056), 스페인(14위, 0.057)에 이어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이 0.067로 15위이다.

영역별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생식건강 경우 모성사망비가 낮은 국가는 노르웨이, 이탈리아, 폴란드가 각각 2%로 가장 낮았다. 그 뒤를 핀란드, 이스라엘, 그리스,

체코가 3%였다. 이에 반해 한국은 11%로 전체 OECD 국가 중 낮은 순위에 위치하였다. 청소년 출산율은 덴마크가 1.9%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이 스위스와 한국이 각각 2.2%로 나타났다. 여성권한 영역에서, 국회의원 비율은 멕시코가 49.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뉴질랜드(49.2%), 아이슬란드(47.6%) 순이었다. 한국은 19.0%로 OECD 38개국 중 35위에 위치하여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의 비율 경우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캐나다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중등 이상 교육을 받은 인구가 100%에 달했다. 한국은 여성이 83.1%, 남성이 93.1%로 여성의 참여비율이 낮았고, 상대적으로 남성과 격차도 높은 편이었다. 노동참여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의 남녀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65.1%), 네덜란드(62.4%), 아이슬란드(61.7%) 순이었다. 한국은 여성참여율이 53.4%로 전체 OECD 국가 중 24위로 낮은 편인 반면, 남성은 72.4%로 5위를 차지하면서 노동참여에서 남녀 격차가 높게 나타났다.

〈표 IV-22〉 OECD 회원국의 GII 현황(2022년)

국 가 명	종합 순위	종합 점수	생 식 건 강		여 성 권 한			노 동 참 여	
			모성 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국회 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대한민국	15	0.067	11	2.2	19.0	83.1	93.1	53.4	72.4
덴마크	1	0.013	4	1.9	39.7	95.1	95.2	57.7	66.7
노르웨이	2	0.016	2	2.3	45	99.1	99.3	60.3	72.0
스위스	3	0.018	5	2.2	39.8	96.9	97.5	61.7	72.7
스웨덴	4	0.023	4	3.3	47	91.8	92.2	61.7	68.0
네덜란드	5	0.025	5	2.8	39.1	89.8	92.7	62.4	71.3
핀란드	6	0.033	3	4.2	46	99.0	98.5	56.5	64.0
아이슬란드	8	0.043	4	5.4	47.6	99.8	99.7	61.7	70.5
룩셈부르크	9	0.044	5	4.3	35	100.0	100.0	58.5	65.5
벨기에	10	0.048	5	5.3	42.9	87.2	89.7	49.8	58.8
오스트리아	12	0.053	5	5.5	39.3	100.0	100.0	55.5	66.3
이탈리아	13	0.056	2	4	35.3	78.6	86.1	39.9	57.6
스페인	14	0.057	4	6.3	42.3	78.5	83.2	52.7	62.4

국 가 명	종합 순위	종합 점수	생 식 건 강		여 성 권 한			노 동 참 여	
			모성 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국회 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포르투갈	15	0.067	8	7.4	40	59.7	61.9	54.0	62.2
캐나다	17	0.069	10	7	34.4	100.0	100.0	60.8	69.7
슬로베니아	18	0.071	7	4.5	21.5	97.6	98.7	53.8	62.2
호주	19	0.073	6	8.1	37.9	94.6	94.4	61.1	70.5
독일	19	0.073	7	7.5	34.8	96.1	96.5	56.8	66.0
아일랜드	21	0.074	5	5.9	27.3	88.1	86.0	56.5	68.6
일본	22	0.083	5	2.9	14.2	95.9	92.7	53.3	71.0
이스라엘	22	0.083	3	7.6	28.3	91.6	93.7	58.5	66.1
프랑스	22	0.083	8	9.5	37.8	83.5	87.9	51.9	59.7
뉴질랜드	25	0.088	9	12.6	49.2	82.0	81.8	65.1	75.3
영국	27	0.098	7	10.5	31.1	99.8	99.8	58.0	67.1
에스토니아	28	0.1	9	8.8	25.7	97.6	98.1	57.5	70.2
리투아니아	30	0.105	8	10.4	27.7	95.5	97.9	57.3	67.9
폴란드	31	0.109	2	9.7	27.5	86.5	90.7	49.2	65.5
그리스	32	0.119	3	8.5	21.7	69.9	77.8	43.3	58.1
체코	34	0.12	3	9.7	22.1	99.8	99.8	51.7	68.1
라트비아	40	0.151	19	11.2	29	99.7	99.3	54.5	66.8
미국	44	0.179	19	16	27	96.5	96.4	55.2	66.4
슬로바키아	45	0.18	5	26.3	22.7	98.9	99.2	54.7	66.4
칠레	47	0.187	13	24.1	32.7	80.3	83.5	44.2	65.5
헝가리	55	0.221	12	22.1	13.1	97.6	98.8	52.1	67.2
코스타리카	60	0.256	27	37.1	45.6	56.2	54.5	47.5	71.1
튀르키예	65	0.272	17	16.9	17.3	56.3	75.9	31.8	69.4
멕시코	75	0.309	33	54.4	49.8	65.1	66.7	43.8	75.4
콜롬비아	102	0.424	83	59	19.6	58.9	56.5	52.2	78.0

주: 발표연도 기준

마. 성사회규범지수 소개⁴⁷⁾

1) 성사회규범지수(Gender Social Norms Index, 이하 GSNI) 특징

GSNI는 정치, 교육, 경제활동 및 신체 완결성 영역에서 사회적 규범이 성평등을 방해하는 정도를 측정하는데, 성격차를 성과 기반으로 평가하는 기존 객관적 측정지표를 보완하는 목적을 가진다. 사회적으로 공유된 신념, 편견, 편견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여성과 소녀들의 발전을 방해하는 성불평등의 근본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2019년 인간개발보고서에 처음 소개되었다.

GSNI는 정치, 교육, 경제, 신체 완결성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고, 각 영역은 여성의 삶에서 직면하는 성평등 장애요인을 측정하는 세부지표로 나뉜다. 정치영역은 기본적인 정치 참여에 대한 신념과 높은 수준의 정치권력 확보에 대한 믿음을 성별에 관한 질문으로 평가한다. 교육영역은 성별을 기준으로 고등교육 기회에 대한 믿음을 평가한다. 경제영역은 성별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믿음과 경제활동 역량에 대한 믿음을 평가한다. 마지막 신체 완결성 영역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믿음을 평가한다.

2) 지표의 구성과 자료원

GSNI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이하 WVS)의 결과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된다. WVS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가치와 규범을 평가하는 문항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조사 차수에서 전 세계 다수의 국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공한다. 국가별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각 분야에 대해 개인의 가치관 및 태도, 신념의 변화를 쉽게 포착할 수 있다. 각 영역별 지표와 선택지는 다음 <표 IV-23>과 같다.

<표 IV-23> 영역 지표별 편견의 정의 및 판단기준

영역	지표	선택지	편견 판단기준
정치	①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권리는 갖는 것은 민주주의에 있어 필수적이다	0 ~ 10 - 0: 민주주의를 방해함 - 1 필수적이지 않음 ~ 10 필수적임	0 ~ 7
	②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정치 지도자이다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함, 동의함

47) GSNI에 대한 소개는 UNDP(2023)의 「Technical note: Gender Social Norms Index」 내용을 정리한 것임.

영역	지표	선택지	편견 판단기준
교육	③ 대학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함, 동의함
경제	④ 남성은 여성보다 취업할 권리가 더 많아야 한다	동의함, 보통,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⑤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기업 경영자이다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함, 동의함
신체 완결성	⑥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은 정당하다	1 ~ 10 - 1 전혀 그렇지 않음 ~ 10 매우 그러함	2 ~ 10
	⑦ 재생산 권리: 낙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1 ~ 10 - 1 전혀 그렇지 않음 ~ 10 매우 그러함	1

주: WVS 조사문항의 정보를 정리한 것임

출처: Mukhopadhyay, Rivera-Vazquez and Tapia(2019); UNDP(2023), 2023 Gender Social Worms Index: breaking down gender biases - Shifting social norms towards gender equality, pp. 5-6의 <box 1>을 재인용하였음

해당 지표의 문항은 4개 영역 7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정치영역의 ①, 신체 완결성 영역의 ⑥, ⑦처럼 수치로 응답할 경우, 응답값이 특정 범위에 속할 때 편견이 있다고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정치영역 ① 문항의 경우, 0에서 7까지 응답할 경우 1로 코딩하고 개인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 신체 완결성의 2개 지표는 각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이 정당하다’, ‘낙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문항으로 2 이상의 값을 응답한 경우, 편견이 있다고 간주된다. 정치, 교육, 경제의 ② ~ ⑦의 문항은 동의 정도를 확인하고, ‘동의’ 혹은 ‘강하게 동의’할 때 개인의 편견이 있는 것으로 분류한다. 각 문항에 대해 편견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택지를 택할 경우, 최종 1(편견 있음)로 코딩하였다.

3) 측정방법

GSNI 지수는 크게 두 가지 값을 제시한다. 첫째, 가장 주요한 값으로 하나 이상의 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을 제시한다. 이 값은 7개 지표에 대해 하나 이상으로 편견에 해당하는 응답을 한 사람의 비율을 제시하는데, 개인이 가진 편견이 사회 맥락에서 여성의 발전을 막을 수 있는 상황까지 확장하여 해석한다. 둘째, 2개 이상의 편견을 보이는 개인의 비율을 측정하여 제시한다. GSNI 값은 0에서 1까지 존재하고, 값이 클수록 양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 부여에 편견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가적으로 전체 문항에서 편견에 해당하는 응답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 즉 편견이 없는 개인의 비율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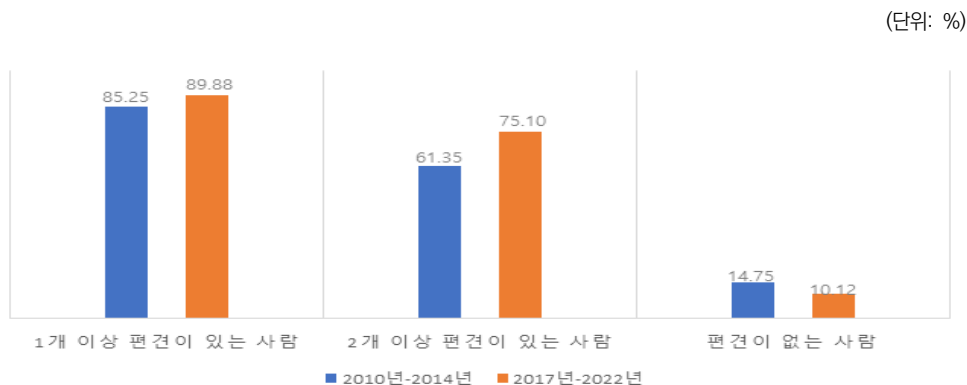
하는데 이는 사회 맥락에서 성평등 수준을 설명하는 데 활용된다. 결측값은 응답자에게 더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가정하에서 제외되고, 7개 지표가 모두 유효한 값을 가질 경우에만 계산된다.

바. GSN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1) 한국의 GSNI 수준⁴⁸⁾

GSNI는 수준에 따라 순위를 제시하거나, 그룹으로 분류하지 않고, 단지 국가명 순서에 따라 각 값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한국의 GSNI 1, GSNI 2 및 편견 없는 사람들 비율을 먼저 살펴보았다.

[그림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편견이 한 개 이상인 사람들의 비율과 2개 이상인 사람들의 비율 모두가 이전 시기에 비해 증가하였다. 특히 2개 이상 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2010~2014년 61.35%에서 2017~2022년에는 75.10%로 증가해 4명 중 3명이 여성의 권리와 발전에 대해 편견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일맥상통하게 편견이 없는 사람의 비율은 2010~2014년 14.75%였던 것이 2017~2022년에는 10.12%로 감소하였다.



자료: UNDP(2023), 「2023 Gender Social Norms Index: breaking down gender biases - Shifting social norms towards gender equality」, p.28

[그림 IV-3] 한국의 GSNI 수준

48) UNDP(2023), 「2023 Gender Social Norms Index: breaking down gender biases - Shifting social norms towards gender equality」의 통계값을 활용하였음.

한국의 GSNI 수준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에서 편견을 공유한 비율이 낮게 나타나지만, 두 개 시기 모두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80% 이상의 비율을 보인다. 2017년에서 2022년 기준 1개 이상 편견이 있는 사람은 여성 86.83%, 남성 93.08%로 특히 남성은 10명 중 9명 이상이 관련 편견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이상 편견을 가진 사람 비율도 여성 70.06%, 남성 80.40%로 상당히 높다. 주목할 점은 이전 시기에 비해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1개 이상 편견을 공유한 사람 비율은 4%p 이상, 2개 이상 편견을 가진 사람 비율은 약 13%p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성평등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정책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V-24〉 한국의 GSNI 수준: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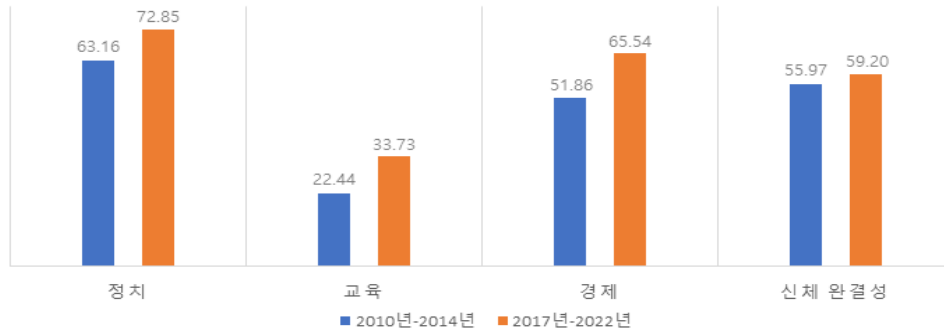
(단위: %)

성별	1개 이상 편견이 있는 사람		2개 이상 편견이 있는 사람		편견이 없는 사람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10~2014	81.99	88.67	55.72	67.26	18.01	11.33
2017~2022	86.83	93.08	70.06	80.40	13.17	6.92
(2010~2014), (2017~2022) 점수 변화	△4.85	△4.41	△14.34	△13.14	▽4.85	▽4.41

자료: UNDP(2023), 「2023 Gender Social Norms Index: breaking down gender biases - Shifting social norms towards gender equality」, p.29

한국의 GSNI 수준을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는 [그림 IV-4]와 같다. 4개 영역 중 편견을 가진 사람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정치로 이전 시기 조사에서는 63.16%, 최근 조사에서는 72.85% 즉 4명 중 3명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경제영역으로 최근 조사에서 65.54%, 신체 완결성 부문이 59.20%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의 여성 진입 및 권한 획득에 대해 가장 큰 편견을 가지고 있고, 다음이 경제 참여에 대한 편견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전 시기에 비해서는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최근 조사에서 4개 영역 모두 편견을 가진 사람 비율이 증가하였다. 경제영역에서 13.68%p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다음 교육 11.30%p, 정치 9.69%p, 신체 완결성 3.22%p 수준이다.

(단위: %)



자료: UNDP(2023), 「2023 Gender Social Norms Index: breaking down gender biases - Shifting social norms towards gender equality」, p.28

[그림 IV-4] 한국의 GSNI 수준: 영역별

영역별로 남녀의 편견 수준은 남녀 모두 정치영역에 대해 가장 편견 수준이 높고, 교육영역이 가장 낮았다. 모든 영역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편견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데, 최근 조사 결과에서 경제영역의 성별 인식 격차가 12.59%p로 가장 크고, 다음이 정치 영역 8.29%p, 교육 6.82%p, 신체 완결성 6.33%p이다. 성별 편견 정도는 정치가 가장 높은데, 성별 인식 격차는 경제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점은 정치보다 경제의 문항이 현실 삶과 직결된 요소인 점, 아직까지 남아있는 ‘남성이 생계부양자’라는 인식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정치 대표성과 경제활동 참여 부분에서 인식 개선 노력이 주요하게 요구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표 IV-25〉 한국의 GSNI 수준: 영역별

(단위: %)

성별	정치		교육		경제		신체 완결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10~2014	58.65	68.82	24.15	27.23	50.99	57.76	55.36	61.24
2017~2022	68.81	77.10	30.41	37.23	59.40	71.99	56.11	62.44

자료: UNDP(2023), 「2023 Gender Social Norms Index: breaking down gender biases - Shifting social norms towards gender equality」, p.29

2) 주요 국가의 GSNI 수준

여기서는 OECD 회원국 및 주요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GSNI 수준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표 IV-26〉 참조).

GSNI에는 OECD 38개 회원국 중 최근 조사를 기준으로 27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편견이 1개 이상인 사람 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비율이 낮은 국가가 뉴질랜드 27.39%이고, 다음이 스웨덴(2010~2014년 기준) 27.91%, 영국 29.60% 등이다. 이 3개 국가는 1개 이상 편견을 가진 사람 비율이 30% 미만 수준이다. 50% 미만인 국가들은 노르웨이, 캐나다 등으로 각 40.93%, 41.14%이다. 5명 중 4명 이상이 편견을 가진 국가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한국, 멕시코, 튀르키예, 콜롬비아 등 6개 국가이다. 27개국 중 24위 수준에 머문 한국을 포함해 그 아래의 멕시코, 튀르키예, 콜롬비아 등은 응답자 10명 중 9명 내외가 편견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성별 편견이 강하게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역별로 확인한 결과, 가장 편견이 없는 국가로 정치에서는 독일 13.18%, 교육은 스웨덴 2.60%, 경제는 네덜란드 7.96%, 신체 완결성에서는 영국 8.23% 수준이다. 한국은 정치와 교육에서 각 72.85%, 33.73%로 27개국 중 편견을 가진 사람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경제에서도 튀르키예 65.65%의 뒤를 이어 65.54%로 편견이 높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6〉 OECD 회원국의 GS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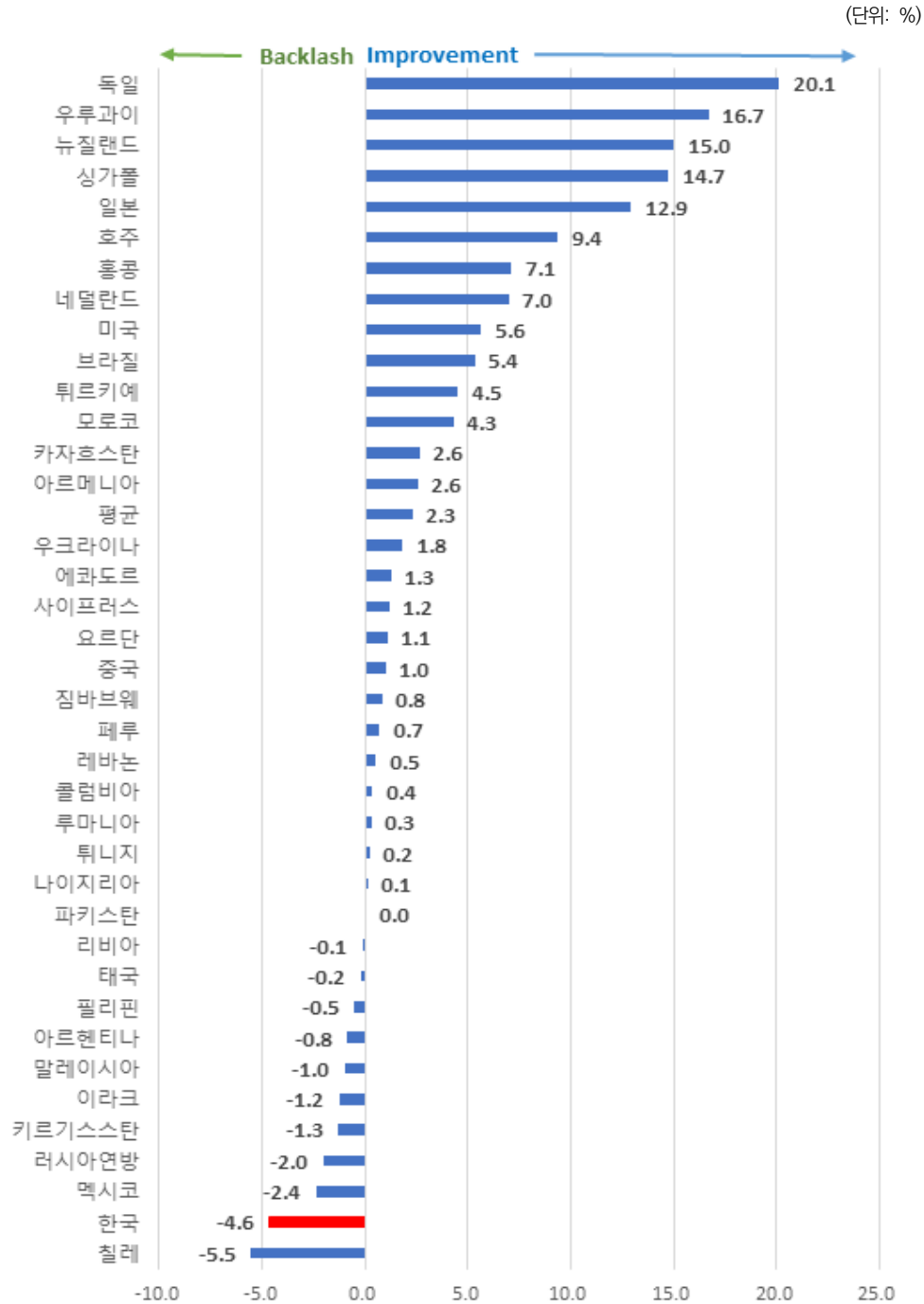
(단위: %)

국가	조사기간	편견 1개 이상인 사람	편견 2개 이상인 사람	편견 없는 사람	차원별 편견을 가진 사람 비율			
					정치	교육	경제	신체 완결성
뉴질랜드	2017-2022	27.39	8.67	72.61	14.78	2.83	9.32	14.37
스웨덴	2010-2014	27.91	9.91	72.09	15.77	2.60	8.91	14.31
영국	2017-2022	29.60	9.35	70.40	20.86	2.71	10.37	8.23
네덜란드	2017-2022	30.64	11.16	69.36	20.76	3.25	7.96	17.69
호주	2017-2022	34.83	15.41	65.17	23.27	2.62	13.32	17.17
독일	2017-2022	37.45	13.27	62.55	13.18	4.21	15.37	23.06
노르웨이	2005-2009	40.93	15.70	59.07	19.48	3.73	22.07	16.77
캐나다	2017-2022	41.14	20.71	58.86	27.87	7.02	16.25	24.24
미국	2017-2022	50.22	26.15	49.78	35.31	8.62	13.90	30.78
스페인	2010-2014	50.74	26.01	49.26	30.61	11.71	20.18	29.23
핀란드	2005-2009	51.63	23.08	48.37	25.56	6.87	24.29	30.19
스위스	2005-2009	54.86	25.90	45.14	21.40	8.82	29.38	29.51

국가	조사기간	편견 1개 이상인 사람	편견 2개 이상인 사람	편견 없는 사람	차원별 편견을 가진 사람 비율			
					정치	교육	경제	신체 완결성
프랑스	2005-2009	56.47	27.87	43.53	36.34	6.93	26.21	22.95
슬로베니아	2010-2014	58.77	28.18	41.23	34.72	8.38	26.13	30.91
일본	2017-2022	58.82	34.54	41.18	39.07	14.49	37.03	24.58
이탈리아	2005-2009	61.58	27.59	38.42	19.24	8.02	29.72	45.50
그리스	2017-2022	64.00	35.91	36.00	29.34	7.86	46.48	30.56
헝가리	2005-2009	67.23	41.67	32.77	44.29	19.16	39.85	31.53
에스토니아	2010-2014	76.77	52.09	23.23	58.82	16.77	46.97	37.55
체코	2017-2022	77.69	59.26	22.31	63.54	25.15	49.91	43.03
칠레	2017-2022	79.74	52.39	20.26	59.03	24.32	35.88	55.53
폴란드	2010-2014	80.43	50.41	19.57	48.80	12.35	44.41	55.04
슬로바키아	2017-2022	86.53	68.27	13.47	62.06	32.91	60.02	51.93
대한민국	2017-2022	89.88	75.10	10.12	72.85	33.73	65.54	59.20
멕시코	2017-2022	90.09	59.52	9.91	58.01	18.75	32.87	72.83
튀르키예	2017-2022	91.08	77.34	8.92	70.02	32.68	65.65	75.57
콜롬비아	2017-2022	91.18	59.01	8.82	54.14	18.16	28.16	81.58

자료: UNDP(2023), 「2023 Gender Social Norms Index: breaking down gender biases - Shifting social norms towards gender equality」, p.28

다음 [그림 IV-5]는 2010년과 2014년, 2017년과 2022년 등 2차례 조사가 이루어진 국가들의 편견을 가진 사람 비율의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2차례 조사가 이루어진 39개 국가 중 28개 국가가 편견 수준을 유지하거나, 이전에 비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은 편견이 없는 사람 비율이 20.1%p 증가하였고, 그 뒤를 이어 우루과이 16.7%p, 뉴질랜드 15.0%p, 싱가포르 14.7%p, 일본 12.9%p 등으로 10%p 이상 개선되었다. 반면 한국은 이전 시기에 비해 편견 없는 사람의 비율이 4.6%p 오히려 감소하였고,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에서 이러한 양상이 포착되었다. UNDP(2023: 13)은 칠레, 한국, 멕시코, 러시아연방 및 키르기스스탄 등 7개국에서 이전에 비해 최근 유의미한 백래시가 나타났다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과 공유된 인식의 변화는 어떤 계기로 이루어 지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이를 바꾸기 위한 주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UNDP, 2023:13).



자료: UNDP(2023), 「2023 Gender Social Norms Index: breaking down gender biases - Shifting social norms towards gender equality」, p.15의 그림을 인용함

[그림 IV-5] 2010~2014년 대비 2017~2022년 편견 없는 사람 비율 개선 수준

3. 국제성평등지수 비교와 한국 성평등 수준 차이

가.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 성평등 수준 차이 비교

국제성평등지수의 대표적 사례로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 성개발지수(GDI, Gender Development Index), 성불평등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를 살펴보았다. 세 지표는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데 산출 방식과 하위지표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성평등 수준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2022년 GGI, GDI, GII를 기준으로 한국의 성평등 현황을 OECD 38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 IV-27〉 참고).

전체 OECD 38개국 대상으로 성평등 수준에 대한 한국의 순위를 살펴보면, GGI 35위, GDI 37위, GII 13위로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GGI, GDI에서는 하위권에, GII에서는 중위권에 있었다.

GGI는 ‘경제 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생존’, ‘정치 권한’의 네 가지 영역에서 성비 수준을 중심으로 측정된다. 전체 총점에서 1위는 아이슬란드(0.908), 38위는 터키(0.639)로 나타났다. 한국(0.689)은 1위인 아이슬란드와 0.219점 더 낮아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38위인 터키보다 0.050점 정도 약간 더 높아 전반적으로 성별 격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1위인 아이슬란드와 비교하면, 경제참여와 기회는 0.803으로 한국(0.592)보다 0.211점, 교육성취는 0.993으로 한국(0.976)보다 0.017점, 정치 권한은 0.874점으로 한국(0.212)보다 0.662점 더 높았다. 반면 건강과 생존은 아이슬란드 0.964, 한국 0.976로 한국이 더 0.012점 높았다. 우리나라와 1위와의 격차가 높은 영역은 ‘경제적 참여와 기회’ 및 ‘정치권한 영역’이었으며, 동 영역은 타 영역과 달리 가장 높은 순위(아이슬란드)와 마지막 순위(터키) 국가 사이에서도 높은 격차가 나타났다. GGI는 영역별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균등 산정하기 때문에, 두 영역은 GGI 순위의 국가 간 차이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GDI는 ‘건강(기대여명)’, ‘교육(기대 교육연수, 평균 교육연수)’, ‘소득(추정 소득)’의 세 가지 영역에서 성별 차이와 절대 수준을 종합하여 측정한다. 전체 GDI 총점을 기준으로 1위는 리투아니아(1.030)였고, 38위는 튀르키예(0.937)였다. 한국은 0.944점으로 37위에 있었으며, 1위보다 0.086점 낮고, 38위보다 0.007점 더 높았다. 영역별로 1위인 리투아니아와 비교하면, 한국의 여성 기대여명은 86.8으로 리투아니아의 78.8보다 높았다. 그러나 기대 교육연수는 리투아니아가 16.7로 한국 16.1보다 0.8, 평균 교육연수는 리투아니아가 13.6로 한국 11.9보다 1.7 더 높아, 여성 교육수준이 더

높았다. 추정소득에서는 리투아니아가 여성이 33,891, 남성이 42,500로 나타났지만, 한국은 29,300, 59,737로 나타나 리투아니아보다 여성의 절대적 소득 수준도 4,591 더 낮고 남녀 격차(리투아니아 8,609, 한국 30,437)도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 수준의 남녀 격차와 함께, 특히 소득에서의 남녀 격차는 한국의 낮은 GDI 순위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GII는 ‘생식건강(모성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여성권한(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교육받은 비율)’, ‘노동참여(경제활동참가율)’의 세 가지 영역을 포함하며, GDI와 마찬가지로 성별 차이와 절대 수준을 종합하여 측정한다. 전체 총점에서 1위는 덴마크(0.013), 38위는 콜롬비아(0.424)였다. 한국(0.067)은 1위인 덴마크보다 0.054점 더 높았고 38위인 콜롬비아보다 0.357 더 낮아 분포 상 1위와 더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영역별로 1위인 덴마크와 비교하면 덴마크의 모성 사망비는 10만명 당 4명으로 우리나라의 11명에 비해 7명이 적다. 청소년 출산율은 15~19세 여성인구 1,000명당 1.9명으로 우리나라의 2.2명에 비해 0.3명 적다. 청소년 출산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덴마크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회 여성의원 비율(%)을 보면 덴마크는 39.7%로 우리나라의 19.0%보다 20.7%p가 높다. 또한 덴마크는 중등 이상 교육받은 인구가 여성은 95.1%, 남성은 95.2%로 거의 100%에 가까운 높은 수치를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 여성은 83.1%로 덴마크와 12%p 격차를 보이지만 남성은 93.1%로 2.1%p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수준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덴마크는 여성이 57.7%로 우리나라의 53.4%에 비해 4.3%p 높은 반면 남성은 덴마크는 66.7%, 우리나라는 72.4%로 덴마크보다 5.7%p 높았다. 종합하면, GII에서 한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는 낮은 모성사망비와 청소년 출산율이 기여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국은 1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및 경제 활동 영역에서 남녀 격차가 높았고, 특히 여성의원 비율(19.0)이 38위인 콜롬비아(19.6)보다 낮은 등 현저히 낮은 순위에 위치하면서 중간 수준의 순위에 머무르는 결과를 야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V-27〉 국제성평등지수와 OECD 회원국(38개국) 내 한국의 현황

국제성평등지수	영역	한국 현황		
		1위 국가	38위 국가	한국(순위)
GGI(2022)	전체 영역(총점)	아이슬란드(0.908)	터키(0.639)	0.689(35위)
	경제 참여와 기회	0.803	0.493	0.592
	교육 성취	0.993	0.973	0.976
	건강과 생존	0.964	0.966	0.976
	정치 권한	0.874	0.123	0.212
GDI(2022)	전체 영역(총점)*	리투아니아(1.030)	튀르키예(0.937)	0.944(37위)
	기대 여명			
	여성	78.8	79.1	86.8
	남성	68.8	73.0	80.4
	기대 교육연수			
	여성	16.7	17.9	16.1
	남성	15.9	18.8	16.9
	평균 교육연수			
	여성	13.6	7.9	11.9
	남성	13.4	9.4	13.2
GII(2022)	추정 소득(PPP US\$)			
	여성	33,891	19,079	29,300
	남성	42,500	42,929	59,737
	전체 영역(총점)	덴마크(0.013)	콜롬비아(0.424)	0.067(13위)
	모성사망비	4	83	11
	청소년 출산율	1.9	59	2.2
	여성의원 비율	39.7	19.6	19.0
	중등교육 이상 교육받은 비율			
	여성	95.1	58.9	83.1
	남성	95.2	56.5	93.1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57.7	52.2	53.4
	남성	66.7	78.0	72.4

주: 1) 발표연도 기준

2) 국가명(점수), 각 영역별 점수는 1위 국가 및 38위 국가 기준

3) * GDI는 GDI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산정함

출처: 1) GGI: WEF(2022).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2.

2) GDI, GII: UNDP(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나. 국제성평등지수에서 나타난 한국의 순위 해석 및 시사점

국제성평등 지수에서 2022년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GI) 및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개발지수(GDI)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지수(GII)에서는 높은 편이었다. 즉, GGI에서는 전체 146개국 기준 99위, OECD 38개 국가 기준 35위, GDI에서는 전체 5그룹 국가 중 3그룹, OECD 38개 국가 중 37위로 하위권에 머문 반면, GII에서는 전체 191개국 중 15위, OECD 38개국 중 13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국제성평등지수 GGI, GDI, GII에서 한국의 순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각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의 산출기준 및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지수 간 성평등 수준의 측정 정의가 다르다. GGI와 GDI는 상대적으로 남녀의 성비(남녀간 상대적 차이)를 성평등 수준의 중요한 고려 요건으로 보는 반면, GII는 지표별 남녀의 절대 수준과 남녀의 성비를 함께 고려하는 산정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GGI와 GDI에서 한국이 낮은 순위에 위치한 이유는 영역별 여성의 절대적 성취 수준이 낮은 것보다 각 영역별 성취 수준에서 남녀 격차가 높은 것에 더 영향 받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지수를 구성하는 하위지표에서 영역 간 가중치 부여 방식이나 영역간 상관관계 고려 여부에 따라 산출방식의 차이가 있다. 즉, 산출방식에 있어 GII는 영역 간 상관성이 높을 때 불평등이 높게 측정되며(기하평균 방식 활용), 하위 영역 간 성평등 개선 정도가 1:1로 대응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때 하위 영역 간 성 불평등이 서로 상관관계가 높을 때 전체 불평등 수준이 더 높아지도록 설계하기 때문에, 특정영역의 낮은 성취가 다른 영역의 높은 성취에 의해 완전 보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GGI는 하위 영역 간 성평등 개선 정도가 1:1로 대응 가능하며 성별 격차(성비)의 산술평균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때 영역 간 상관관계 고려 없이 단순 평균하므로, 영역별 높은 성격차가 낮은 성 격차 값을 서로 보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편, GII는 여성과 남성 각각 세 가지 하위영역을 기하평균하면서, 각 성별 내에서는 영역별 높은 성취 값이 낮은 성취 값을 서로 보상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그러나 각 최종 지수를 산출할 때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환산하여 전체 성취 수준에서 성격차를 설명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산정방식의 차이는 순위의 차이를 야기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GII 지수는 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교육 비율,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영역에서는 성별 격차는 높으나, 생식건강영역(모성사망률, 청소년출산율)의 경우 타 국가보다 월등히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영역 간 기하평균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생식건강영역의 매우 낮은 통계로 인해 GII의 성불평등 수준이 낮게 측정된다. 반면, GDI에서는 한국의 남녀 소득

수준 격차가 다른 영역보다 현저히 높고, 여성의 낮은 정치적 권한 부여가 전체 순위를 끌어내리면서 낮은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세 지수를 구성하는 하위지표의 종류가 다르다. GGI는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 성취도,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의 네 가지 영역에 관한 14개의 하위영역 지표들로 구성된다. GDI는 정치권한에 대한 지표는 없는 대신, 건강, 소득, 교육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한 4개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GDI는 교육 부문의 지표가 없고, 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의 세 가지 영역의 5가지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세 가지 국제성평등 지수 결과로부터 우리나라의 성평등 현황을 요약하면, ‘인간개발 과정에서의 성 불평등으로 인한 성과의 손실’은 낮지만, ‘자원의 접근 기회와 권한 배분’과 ‘인간 개발 수준’에 있어 성 격차가 높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개발의 절대적 성취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과 남성의 상대적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이 성평등 수준을 개선하는데 관건이 될 것이다, 특히 타 국가와 비교할 때 건강 및 생식건강 영역의 현저하게 높은 수준과 달리, 소득 수준과 정치적 권한에서는 성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만큼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IV-28〉 국제성평등지수 비교

지수명	성격차지수(GGI)	성개발지수(GDI)	성불평등지수(GII)
발표기관	세계경제포럼(WEF)	유엔개발계획(UNDP)	
산출방식	남녀의 성비를 중요하게 고려		지표별 절대값과 성비 고려
측정목적	• 자원의 접근기회와 권한 배분에 대한 성 격차 측정	• 인간 개발수준에 대한 성격차 측정	• 인간개발 과정에서의 성 불평등으로 인한 성과의 손실 측정
지수 구성요소	• 건강과 생존 - 출생성비 - 건강기대수명	• 건강 - 출생 시 기대수명	• 생식건강 - 모성 사망비 - 청소년 출산율
	• 정치권한 - 국회의원 비율 - 장관 비율 - 여성 국가수장 재임기간(50년간)	-	• 여성권한 - 여성의원 비율 - 중등교육 이상 교육받은 인구 비율
	• 경제참여와 기회 - 경제활동참가율 - 유사업무 임금성비 - 추정소득 - 관리직 비율 - 전문직 비율	• 소득 - 추정소득(1인당 GNI, PPP\$)	• 노동참여 - 경제활동 참가율

지수명	성격차지수(GGI)	성개발지수(GDI)	성불평등지수(GII)
	- 교육적 성취 - 문해율 - 초등학교 취학률 - 중등학교 취학률 -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 교육 - 평균 교육연수 - 기대 교육연수	-
측정방법	- 지표 산정시 성비(남녀 격차) 수준에 영향 받음 47지 하위 영역 간 상관관계 고려 없이 단순 평균하므로, 영역별 높은 성격차가 낮은 성격차 값을 서로 보상 가능하도록 구성됨	- 지표 산정시 지표 산정시 성비(남녀 격차) 수준과 함께, 남녀의 절대적 수준을 고려하지만, 성비에 더 큰 영향을 받음 - 성별로 세 가지 하위 영역을 가하평균하기 때문에 각 성별 내 영역별 높은 성취 값이 낮은 성취 값을 서로 보상 가능하도록 구성됨.	- 지표 산정시 성비(남녀 격차) 수준과 함께, 남녀의 절대적 수준을 고려함 - 하위 영역 간 성 불평등이 서로 상관관계가 높을 때 불평등 수준이 더 높아지도록 설계하기 때문에, 특정영역의 낮은 성취가 다른 영역의 높은 성취에 의해 완전 보상되지 않음
점수	0.689점 (‘1’이면 완전 평등)	0.944점 (0.975 이상이면 1그룹)	0.067점 (‘0’이면 완전 평등)
순위	- 전체: 99위/146개국 - OECD: 35위/38개국	- 전체: 3그룹/5그룹 - OECD: 37위/38개국	- 전체: 15위/191개국 - OECD: 13위/38개국
발표연도	2022년		

주: 발표연도 기준

출처: 1) 주재선, 김영란, 조선미, 송치선(2021). 2021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p.96-97 발췌 및 수정보완

2) GGI: WEF(2022).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2.

3) GDI, GII: UNDP(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양성평등수준 제고 전략

1. 분야별 성평등 변화와 개선 방향	127
2. 국가성평등지수 활용과 관리 방안	138

1. 분야별 성평등 변화와 개선 방향

가. 국가성평등지수 변화 원인 분석

국가성평등 수준은 2022년 76.0점으로 2017년 이래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8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가중 평균을 통해 산정된다. 따라서 국가성평등지수의 변화는 분야별 수준의 변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나, 각 분야가 성평등 지수의 변화에 미친 영향은 분야별 증감 수준과 가중치의 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2017년과 비교하면 4.0점 개선된다. 분야별로 보면, 가족(8.8점)과 안전(8.1점) 분야가 8점 이상 개선되었고, 의사결정(5.1점), 경제활동(4.4점), 복지(2.8점), 보건(0.6점) 순으로 개선된다. 단, 문화·정보 분야는 2017년 대비 2.6점 감소하여 성평등 개선에 음의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 이 분야의 감소는 여가시간과 여가만족도 성비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여가시간이 남녀 모두 감소⁴⁹⁾는 가운데 성별 격차가 더 커졌고, 여가만족도는 남녀 모두 만족도가 높아졌으나, 여성은 남성보다 만족도 개선 낮아서, 성별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난다(성비 2017년 97.5%→ 2022년 95.2%로 하락).

〈표 V-1〉 국가성평등지수 변화

(단위: 점)

분야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2017년 대비	2021년 대비
성평등지수	72.0	73.1	73.9	74.9	75.4	76.0	4.0	0.6
경제활동	73.2	74.7	75.7	76.1	76.4	77.6	4.4	1.2
의사결정	32.0	34.0	36.0	36.4	38.3	37.1	5.1	-1.2
교육·직업훈련	93.3	94.4	94.3	94.7	94.5	94.8	1.5	0.3
복지	75.6	76.4	75.5	78.5	78.7	79.0	3.4	0.3
보건	97.1	96.5	97.1	96.8	97.6	97.7	0.6	0.1
안전	65.5	66.5	69.2	72.1	72.8	73.6	8.1	0.8
가족	58.7	60.3	62.3	63.6	65.3	67.5	8.8	2.2
문화·정보	88.5	88.8	86.2	86.4	84.5	85.9	-2.6	1.4

49) 여가시간은 5년 주기의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며, 측정은 취업자와 비취업자를 고려한 추정치를 활용하고 있음. 2017년 하루평균 여성은 262분, 남성 337분의 여가를 보냈지만, 2022년 여성은 188분, 남성은 270분의 여가를 보낼 것으로 추정됨.

2017년 대비 분야별 성평등 변화가 국가성평등지수 개선(3.9점)에 미친 효과를 살펴 보면, 안전과 가족 분야의 효과가 0.97점⁵⁰⁾으로 가장 높고, 경제활동 0.84점, 의사결정 0.66점, 복지 0.44점, 교육·직업훈련 0.21점, 보건 0.06점의 개선 효과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경제활동의 경우 성평등 개선 수준은 의사결정보다 작았으나 국가성평등 지수 개선에 미친 영향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화·정보 분야의 변화는 국가 성평등지수 개선에 0.21점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전년 대비 국가성평등지수는 0.6점 상승되며, 분야별로 보면, 가족(2.2점), 문화·정보(1.4점), 가족(1.2점), 안전(0.8점), 교육·직업훈련(0.3점), 복지(0.3점), 보건(0.1점) 등의 순으로 성평등 개선이 있었고, 의사결정(-1.2점)에서만 성평등이 감소 한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점수 개선이 국가성평등지수에 미친 영향을 보면, 가장 크게 개선된 가족이 0.24점으로 가장 컸고, 경제활동(0.23점), 문화·정보(0.11점), 안전(0.10점) 등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육·직업훈련(0.04점), 복지(0.04점), 보건(0.01점)이 성평등 개선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의사결정 분야는 국가성평등 지수를 0.16점 낮추는 요인이었다.

〈표 V-2〉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별 개선 효과

분야	가중치	개선 효과	
		2017년 대비	2021년 대비
경제활동	0.19	0.84	0.23
의사결정	0.13	0.66	-0.16
교육·직업훈련	0.14	0.21	0.04
복지	0.13	0.44	0.04
보건	0.10	0.06	0.01
안전	0.12	0.97	0.10
가족	0.11	0.97	0.24
문화·정보	0.08	-0.21	0.11

주: 개선 효과는 개선 점수×가중치로 산정

50) 안전과 가족 분야가 국가성평등지수의 개선에 미친 효과는 2자리 수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나, 3자리수까지 보면, 안전 분야가 0.972점으로 가족 분야(0.968점)보다 다소 낮음. 즉, 가족 분야는 성평등 수준 개선이 가장 높았지만 국가성평등지수 개선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안전 보다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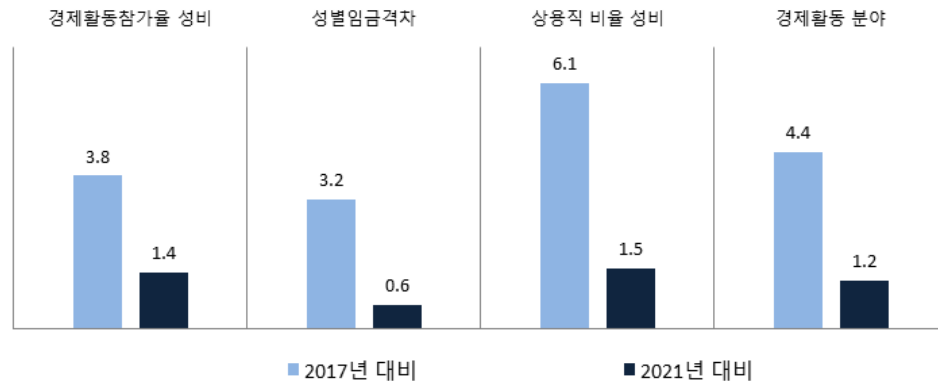
국가성평등 개선에 영향을 준 분야를 요약해 보면, 2017년과 비교해 보면, 가족, 안전, 경제활동 분야의 개선이 주된 원인이 되었고, 문화·정보 분야는 성평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단, 문화·정보 분야는 전년 대비 다시 증가하고 있어 이 분야 지표를 주의 깊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나. 분야별 성평등 변화와 변화 요인

경제활동 분야는 2022년 77.6점으로 2017년 대비 4.4점, 2021년 대비 1.2점으로 지속적 개선이 보이는 분야이다. 이 분야의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별임금격차, 상용직 비율로 측정되며, 2017년 대비 모두 상승하여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개선을 이끌고 있다. 특히 고용의 안정성 지표 중 하나인 상용직 근로자의 성비가 2017년 대비 크게 개선된 것이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개선을 견인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지표별로 보면, 2017년 대비 상용직 근로자 성비는 6.1점,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3.8점, 성별임금격차 3.2점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활동 분야 지표는 대체로 개선 추세를 유지함에 따라, 전년 대비 성비 또한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지표 중 성별임금격차는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성비가 낮아지기도 했기 때문에 향후 성별 임금 수준의 변화는 정책적 관심을 두고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V-3〉 경제활동 분야 지표의 성평등 변화

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2017년 대비	2021년 대비
경제활동 분야	73.2	74.7	75.7	76.1	76.4	77.6	4.4	1.2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74.4	75.1	76.1	75.9	76.8	78.2	3.8	1.4
성별임금격차	64.7	66.6	67.8	67.7	67.3	67.9	3.2	0.6
상용직 근로자 성비	80.5	82.4	83.2	84.6	85.1	86.6	6.1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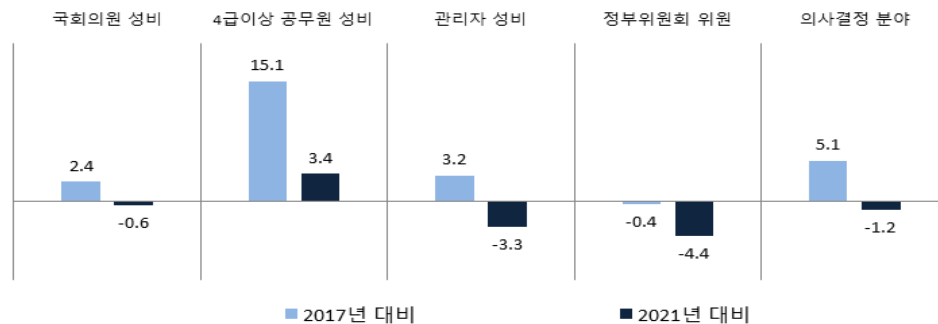
[그림 V-1] 2022년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 변화

의사결정 분야는 37.1점으로 8개 분야 중 가장 낮은 성평등을 보인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성평등 개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2017년 대비 5.1점 개선 된다. 이 분야의 지표는 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며, 2017년 대비 정부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세 개의 지표에서 개선되었다. 특히 4급이상 공무원은 2017년 대비 15.1점 높아져서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 개선을 이끈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국회의원와 관리자의 경우 2017년 대비 개선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전년 대비 성평등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22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은 처음으로 전년 대비 1.2점 하락하는데, 그 이유가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4.4점 하락), 국회의원 성비(0.6점 하락), 관리자 성비(3.3점 하락)에서 하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4급 이상 공무원 성비는 공공부문 의사결정과정의 성별균형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해서 추진한 결과, 매년 큰 폭으로 성평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서, 2022년에도 전년 대비 3.4점이 개선된다.

의사결정 분야는 성별 격차가 가장 큰 분야로, 성평등 관리가 필요한 분야이다. 대체로 해당 지표들이 지난 5년 동안 개선되는 특징을 보이지만, 최근 4급 이상 공무원 지표를 제외하고 성별 격차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정부위원회 위원의 경우 2019년 까지 성별 격차가 감소하였지만 이후 65점 전후를 유지하는 가운데, 2022년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인다. 향후 여성가족부는 중앙정부위원회 여성비율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V-4〉 의사결정 분야 지표의 성평등 변화

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2017년 대비	2021년 대비
의사결정 분야	32.0	34.0	36.0	36.4	38.3	37.1	5.1	-1.2
국회의원 성비	19.9	19.9	19.9	20.3	22.9	22.3	2.4	-0.6
4급이상공무원성비	27.8	30.1	33.3	36.3	39.5	42.9	15.1	3.4
관리자 성비	19.3	22.9	24.2	24.8	25.8	22.5	3.2	-3.3
정부위원회 위원	61.0	63.2	66.7	64.1	65.0	60.6	-0.4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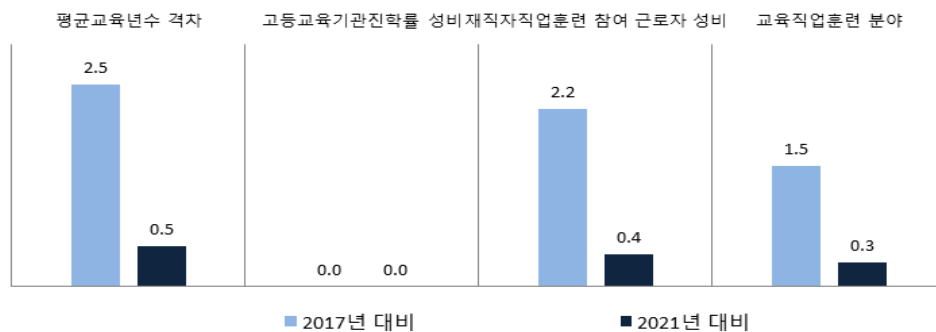


[그림 V-2] 2022년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변화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성격차가 매우 낮은 분야 중 하나로 2022년 94.8점을 보이며, 2017년 이래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인다. 이 분야는 평균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진학률, 재직자직업훈련 참여근로자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세 개의 지표 모두가 90점 이상의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다. 고등교육기관진학률은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2017년 이래 완전평등상태인 100.0점을 보이며, 이로 인해 평균교육년수 격차도 점차 감소하여 2022년 성비는 92.6점으로 개선되었다.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성비는 2018년 90점 이상으로 진입한 후 매년 91점 이상 성비를 보이며 증감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높은 성평등 수준으로 인해 성평등 개선은 상대적으로 낮다. 2017년 대비 이 분야의 성평등은 1.5점 개선되었고 평균교육년수와 재직자직업훈련 참여근로자 성비의 개선이 성평등 개선을 이끈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전년 대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 개선은 0.3점이며, 평균교육년수 성비가 0.5점, 재직자직업훈련 참여한 근로자가 0.4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V-5〉 교육·직업훈련 분야 지표의 성평등 변화

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2017년 대비	2021년 대비
교육·직업훈련 분야	93.3	94.4	94.3	94.7	94.5	94.8	1.5	0.3
평균교육연수 성비	90.1	90.6	91.1	91.6	92.1	92.6	2.5	0.5
고등교육기관진학률 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	0.0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성비	89.7	92.7	91.9	92.5	91.5	91.9	2.2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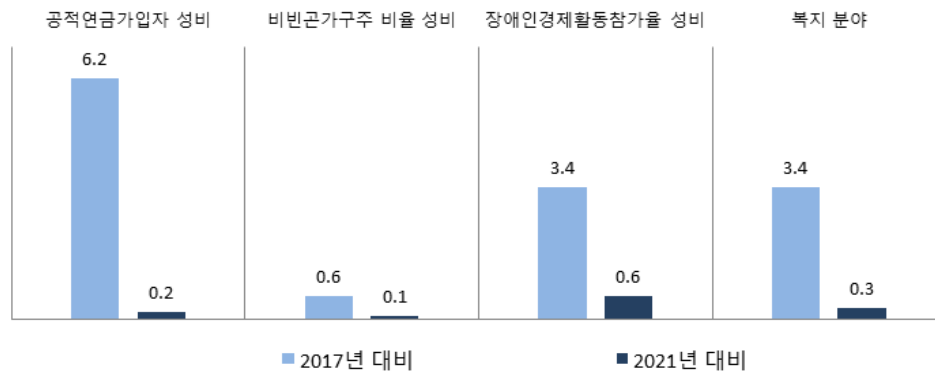


[그림 V-3] 2022년 교육·직업훈련 분야 성평등 변화

복지 분야는 2022년 79.0점으로 2017년 대비 3.4점 개선된다. 복지 분야의 성평등은 공적연금가입자, 비빈곤가구주비율, 장애인고용률로 측정되며, 2017년 대비 성평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공적연금가입자는 여성 연금가입자가 남성에 비해 빠르게 증가되면서 성비는 2017년 대비 6.2점 개선되며, 이는 복지 분야 성평등 개선을 주된 원인이 되었다. 비빈곤가구주 비율 성비는 95점 이상의 비교적 높은 성평등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매년 소폭의 상승 추세로 나타난다. 한편 장애인고용률은 2017년 대비 3.4점 증가되나, 복지 분야 두 지표와 비교하면 낮은 성평등 수준이다. 더욱이 성비 개선은 되었으나,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을 보면(〈부표 1-13〉), 2017년 22.4%에서 2022년 하반기 22.2%로 0.2%p 하락하며, 동시에 남성 장애인 고용률 또한 동기간 2.4%p 하락한다. 이것을 보면, 장애인의 고용률의 경우 성평등 개선 효과가 여성 고용률 개선으로 나타난 효과가 아니라, 남성 장애인의 고용률 하락으로 인해 나타난 성격차 감소 효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애인 고용률 제고 정책에 대한 점검 필요함을 보여주며, 장애인 고용률 하락 원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표 V-6〉 복지 분야 지표의 성평등 변화

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2017년 대비	2021년 대비
복지 분야	75.6	76.4	75.5	78.5	78.7	79.0	3.4	0.3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84.0	85.8	87.1	88.4	90.0	90.2	6.2	0.2
비빈곤가구주 비율 성비	94.9	94.9	95.0	95.3	95.4	95.5	0.6	0.1
장애인 고용률 성비	47.9	48.5	44.5	51.8	50.7	51.3	3.4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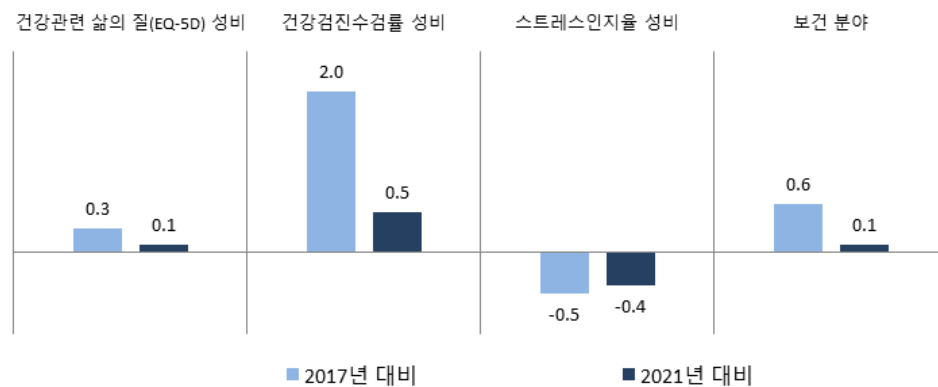


[그림 V-4] 2022년 복지 분야 성평등 변화

보건 분야는 8개 성평등 분야 중 성격차가 가장 낮은 분야이다. 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22년 97.7점으로 2017년 이래 완전성평등상태에 근접하고 있다. 이 분야 지표는 건강관련 삶의 질, 건강검진수검률, 스트레스인지율이며, 세 개의 지표 모두에서 95점 이상의 성비를 보인다. 보건 분야는 2017년 대비 0.6점, 전년 대비 0.1점 개선된다. 성평등 개선은 건강관련 삶의 질과 건강검진수검률 개선에 의해 나타나며, 스트레스 인지율은 성평등 하락의 요인으로 작성한 것으로 측정된다. 건강관련 삶의 질은 남녀 모두 수준 개선과 성 격차 감소로 인한 증가로 나타나며, 건강검진수검률은 동일 시계열로 비교할 경우 수준 상승과 성 격차 감소가 성비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스트레스인지율 성평등 하락은 남녀 모두 스트레스가 낮아지나, 남성의 하락 정도가 여성보다 커서 나타난 성 격차 증가로 인한 문제이다.

〈표 V-7〉 보건 분야 지표의 성평등 변화

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2017년 대비	2021년 대비
보건 분야	97.1	96.5	97.1	96.8	97.6	97.7	0.6	0.1
건강관련삶의질(EQ-5D) 성비	98.8	98.5	98.6	98.9	99.0	99.1	0.3	0.1
건강검진수검률 성비	96.9	97.2	96.0	95.8	98.4	98.9	2.0	0.5
스트레스인지율 성비	95.6	93.7	96.7	95.7	95.5	95.1	-0.5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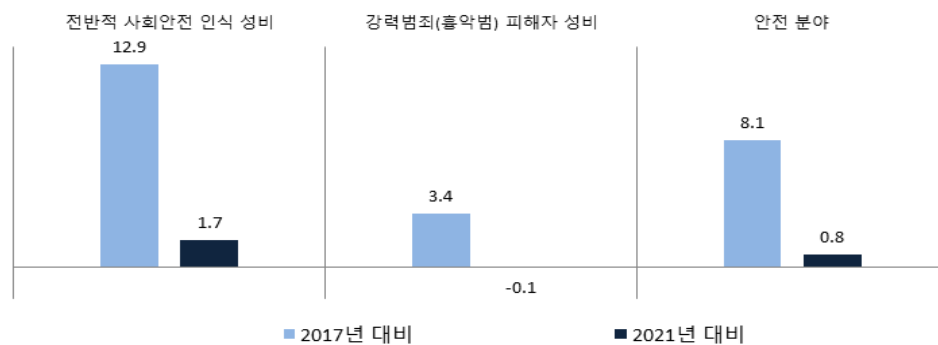
[그림 V-5] 2022년 보건 분야 성평등 변화

안전 분야는 지난 5년 동안 성평등 개선이 가장 컸던 분야 중 하나이다. 개선 수준은 가족 분야가 더 컸지만, 가중치를 고려할 경우 국가성평등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분야이다. 안전 분야는 2017년 대비 8.1점이 개선되며, 개선의 주된 원인은 전반적 사회안전인식 성비의 개선이다. 즉, 전반적사회안전인식 성비는 2017년 67.3점에서 2022년 80.2로 12.9점이 개선되면서 안전분야 성평등 수준을 크게 끌어 올렸다. 또한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비는 동기간 3.4점 개선되면서 안전 분야의 성평등이 지난 5년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사회안전인식 비율의 여성은 2016년 10.6%에서 2022년 29.7%로 19.1%p 개선, 남성 2016년 15.9%에서 2022년 37.0%로 21.1%p 개선되어, 아직 높은 수준의 안전인식은 아니지만 비교적 큰 폭의 인식 변화를 통해 성평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의 경우 2017년과 비교하면 남녀의 피해자가 성 격차를 낮추는 효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지표는 피해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래 성비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성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표 V-8〉 안전 분야 지표의 성평등 변화

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2017년 대비	2021년 대비
안전 분야	65.5	66.5	69.2	72.1	72.8	73.6	8.1	0.8
전반적사회안전인식성비	67.3	67.8	73.1	76.7	78.5	80.2	12.9	1.7
강력범죄(홍약법) 피해자성비	63.6	65.3	65.4	67.5	67.1	67.0	3.4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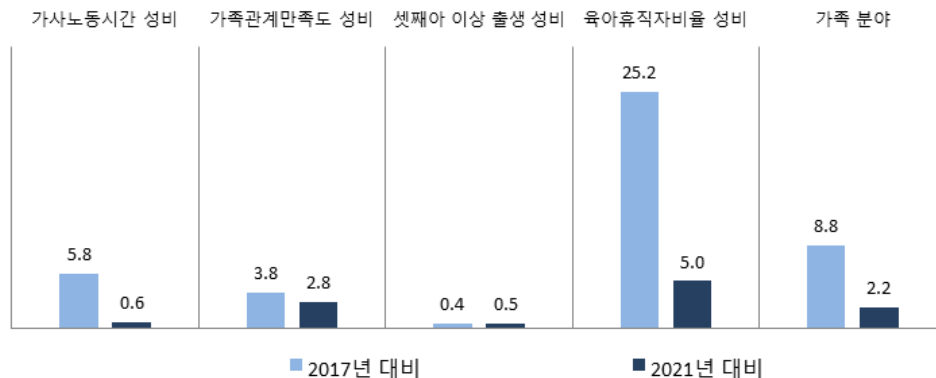
[그림 V-6] 2022년 안전 분야 성평등 변화

가족 분야는 안전 분야와 더불어 지난 5년 동안 성평등 개선이 가장 큰 분야 중 하나이다. 가족 분야는 2017년 대비 8.8점이 개선되어, 8개 분야 중 성평등 개선이 가장 컸다. 성평등 개선 원인을 살펴보면, 가족 분야의 성평등 상승은 육아휴직자 성비 개선이 가장 큰 원인이다. 육아휴직자 성비는 2017년 15.4점에 불과했으나 남성 육아휴직자의 빠른 증가로 인해 2022년은 40.6점으로 25.2점이 개선된다. 그리고 육아휴직자 성비는 전년 대비 5.0점 증가하는 등 빠른 개선 속도로 인해 가족 분야 성평등 개선을 견인해 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성 지표 중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는 2022년 완전성평등 상태를 보이며, 가족관계만족도는 2018년 여성 54.4%, 남성 59.0%, 성비 92.2점에서 2022년 여성 65.5%, 남성 63.5%, 성비 96.9점으로 남녀 모두 수준과 성비가 개선되고 있어, 가족 분야 성평등을 높이는 지표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가사노동시간

지표는 수준과 성 격차 감소라는 긍정적 변화를 성평등을 개선하고 있으나, 남성의 수준이 매우 낮아서, 육아휴직자 비율과 함께 수준 개선을 위한 정책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V-9〉 가족 분야 지표의 성평등 변화

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2017년 대비	2021년 대비
가족 분야	58.7	60.3	62.3	63.6	65.3	67.5	8.8	2.2
가사노동시간 성비	26.8	27.3	30.7	31.3	32.0	32.6	5.8	0.6
가족관계만족도 성비	93.1	92.2	91.7	91.2	94.1	96.9	3.8	2.8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	99.6	100.0	100.0	99.4	99.5	100.0	0.4	0.5
육아휴직자비율 성비	15.4	21.7	26.9	32.4	35.6	40.6	25.2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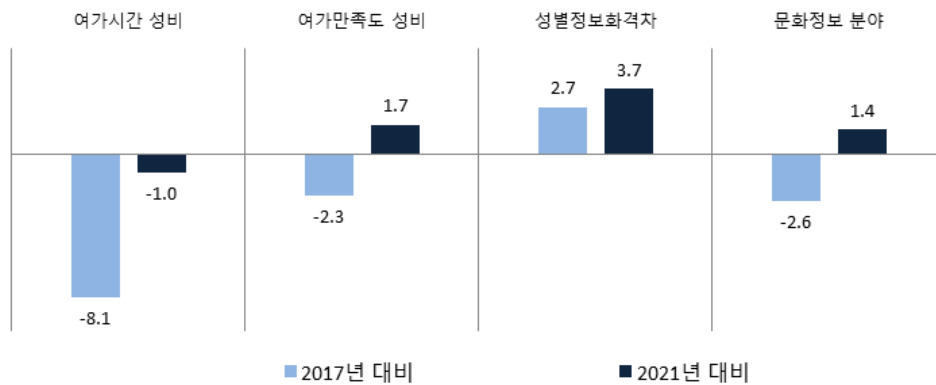
[그림 V-7] 2022년 가족 분야 성평등 변화

문화정보 분야는 성평등 수준이 8개 분야 중 낮지 않으나, 성평등이 2017년과 비교하여 낮아진 유일한 분야이다. 문화정보 분야는 2022년 85.9점으로 2017년 대비 2.6점이 하락했고 하락의 주된 원인은 여가시간과 여가만족도의 수준 하락과 성 격차 증가이다. 여가시간은 2014년 이래 남녀 모두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하지만 여성의 여가시간은 2014년 취업자 3시간 15분, 비취업자 5시간 38분에서 2019년 취업자 2시간 39분, 비취업자 4시간 27분으로 동기간 취업자는 36분, 비취업자

는 1시간 11분 감소한 반면, 남성의 여가시간은 동기간 취업자는 31분, 비취업자는 1시간 2분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함에 따라 성격차가 커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여가만족도는 2017년 여성 26.9%, 남성 27.6%에서 2021년 여성 26.1%, 남성 27.9%로 여성은 약간 하락하고 남성은 약간 상승하면서, 성비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다. 한편 성별정보화격차는 2021년 전년 대비 여성의 정보화지수 하락으로 90점 이하로 떨어졌으나, 이후 여성의 정보화 수준의 개선으로 인해 성격차가 감소하면 2017년과 전년 대비 성평등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

〈표 V-10〉 문화·정보 분야 지표의 성평등 변화

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2017년 대비	2021년 대비
문화·정보 분야	88.5	88.8	86.2	86.4	84.5	85.9	-2.6	1.4
여가시간 성비	77.6	77.5	72.1	71.4	70.5	69.5	-8.1	-1.0
여가만족도 성비	97.5	96.7	95.9	95.2	93.5	95.2	-2.3	1.7
성별정보화격차	90.4	92.1	90.7	92.5	89.4	93.1	2.7	3.7



[그림 V-8] 2022년 문화·정보 분야 성평등 변화

2. 국가성평등지수 활용과 관리 방안

국가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성평등 수준과 개선 정도를 보여줌과 동시에 국가 성평등 정책과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개발되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와 시행령 제15조를 근거로 작성되며, 국가성평등지수가 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수의 활용과 관리방안⁵¹⁾을 제안한다.

첫째, 국가성평등지수는 여성가족부가 측정, 발표하되, 지표의 관리와 개선은 관련 부처와 협의 하에 추진 및 관리되어야 한다. 국가성평등지수는 2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지표는 측정 결과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4항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조사 결과,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8조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이에 국가성평등지수는 효과적인 관리하기 위해서 지표별 관리기관을 연계하여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관리기관의 역할은 통계 관리와 성평등 지표의 개선 주체로써, 성평등 등락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즉, 여성가족부는 국가성평등지수의 측정과 발표의 주체로서, 국가성평등 수준에 대해 분석하고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대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관리기관은 해당 지표에 대해 생산 및 관리를 담당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표 V-11>은 지표별 관리기관과 통계 생산기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통계생산의 안전적 체계를 갖추기 위해 관리기관뿐 아니라 통계생산기관과도 협조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즉, 통계관리기관은 통계 생산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통계 품질을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수집 및 분석해야 할 것이다.

51) 본 제안은 주재선 외(2022), 「2022년 국가성평등보고서」에서 제안했던 부분(pp.114~116)을 인용, 수정 및 보완하여 제시함

〈표 V-1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별 관리와 생산기관

분야	지표	관리기관	통계생산기관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성비(15~64세)	고용노동부	통계청
	성별 임금격차(성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상용근로자 성비	고용노동부	통계청
의사결정	국회의원 성비	국회사무처/각 정당	국회의원연맹(IPU)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관리자 성비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통계청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교육· 직업훈련	평균교육년수 성비	교육부	통계청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교육부	교육부
	직업교육훈련 경험률 성비	고용노동부	통계청
복지	비빈곤 인구 비율	보건복지부	통계청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장애인 고용률의 성비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의 성별 격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안전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성비	검찰청/경찰청	통계청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검찰청/경찰청	대검찰청
가족	가사노동시간 성비	여성가족부	통계청
	육아휴직 성비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여성가족부	통계청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성가족부	통계청
문화·정보	여가시간 성비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여가만족도 성비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성별정보화격차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둘째, 중앙행정 부처는 성평등 관리 지표에 대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과의 연계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성평등지수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과 연계하여 추진 되는 경우가 많으나, 국가성평등지수는 각 부처의 성별영향평가 혹은 성인지예산과 연계 되어 분석되는 비율이 높지 못하다. 국가성평등지수의 활용은 성주류와 제도와 결합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성평등 지수가 측정되면 성 불평등이 높거나 개선된 지표 혹은 성평등이 낮거나 개선되지 않은 지표로 분류하고, 성불평등이 높아진 지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수준과 관련된 사항을 작성해 양성평등위원회와 여성정책조정회의 등에 보고하고 성평등 수준이 부진한 분야와 지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점검 방법으로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불평등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공동으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성평등지수는 e-나라 지표와 같은 국정모니터링시스템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국가성평등지수는 부처 간 협의와 관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성평등 측정결과는 정책뿐 아니라 국민이 쉽게 한국의 성평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홈페이지 새로 구축하여 성평등지수를 게재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하거나, e-나라지표 등 국정모니터링 시스템에 국가성평등지수를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것이다. 특히 e-나라 지표는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 국정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통계 기반 국정운영을 목적으로 구축·서비스하는 것으로, 성평등지수와 같이 다 부처 간 관리가 필수인 성평등지표는 국정모니터링지표로써 e-나라지표로 구축이 적절할 것이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국정모니터링 지표로 e-나라지표에 28종의 통계를 제출 및 관리⁵²⁾하고 있다. 국가성평등지수의 측정과 발표 또한 법률에 기반하고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만큼, 이를 국정모니터링 지표로 e-나라 지표 DB로 구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단, e-나라 지표는 현행 영역별 지표 중 하나로 구축되어야 효과적으로 관리와 홍보가 가능할 것이다. 구축 시 지표의 관리 주체는 여성가족부로 하며, 통계의 분석과 원인 파악은 부처의 협력 하에 작성할 것을 제안한다.

52) 해당 지표는 e-나라지표에서 부처별 지표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index.go.kr/unity/potal/eNara/main/EnaraMain.do>

참고문헌

- 경찰청, 「범죄분석」.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 김경희·주재선·김수정·김은경(2019),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및 활용방안」, 여성가족부.
- 김경희·이민아·이은아·김은경(2020), 「2020년 국가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김은경·김복태·이수연·김민정·전선영(2020), 「국회 여성 비례대표 의원의 역할인식과 활동 성과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태홍·전기택·주재선(2010), 「2010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김태홍·주재선·박진표(2016),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대검찰청, 「범죄분석」.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
- 여성가족부(2018),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 여성가족부,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이행점검 결과」.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통계연보」.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 인사혁신처(2023), 「2023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
- 주재선·정성미·한진영·박송이(2019), 「2019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여성가족부.
- 주재선(2021), “국제성평등지수로 보는 한국의 성평등 수준”, 기관명
- 주재선·김영란·조선미·송치선(2021), 「2021년 국가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주재선·김효주·김은정·민보람(2022), 「2022년 지역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주재선·김효주·조선미·권도연(2022), 「2022년 국가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사회조사」.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e-나라지표.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Mukhopadhyay, T., Rivera-Vazques, C. and Tapia, H(2019), “Gender Inequality and Multidimensional Social Norms”, Working paper,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 New York.

UNDP(2014), Human Development Index 2014.

UNDP(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 Technical notes, https://hdr.undp.org/sites/default/files/2021-22_HDR/hdr2021-22_technical_notes.pdf (접속일: 2023.8.23.)

UNDP(2022A), Human Development Index 2021/2022.

UNDP(2023), Gender Social Norms Index: Breaking down gender biases - Shifting social norms towards gender equality

<https://hdr.undp.org/content/2023-gender-social-norms-index-gsni#/indicies/GSNI> (접속일: 2023.8.23.)

UNDP(2023), Technical note: Gender Social Norms Index,

https://hdr.undp.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additional-files/2023-06/gsni_2023_technical_note.pdf (접속일: 2023.8.23.)

WEF(2012), The Global Gender Gap Index, 2012.

WEF(2020), The Global Gender Gap Index 2020.

WEF(2022).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2.

WEF(2023). The Global Gender Gap Index 2023.

〈인터넷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법>.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11.2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시행(2006년) 이후 여성 근로자 비율 6.92%p, 관리자 비율 10.7%p 증가.

중앙일보 오피니언(2021.8.3.), ‘성과 추구하는 경영자라면 여성인재로 눈 돌려라’.

UNDP HDR 홈페이지, <http://hdr.undp.org>.

국제의원연맹 홈페이지, <https://www.ipu.org>.

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21.9.17.), 공공부문 모든 분야서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 달성.

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23.9.19.), 공공부문 양성평등·장애인, 임용목표 초과 달성.



부 록

〈부록 1〉	현행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설명	147
〈부록 2〉	현행 성평등지수의 분야별 성평등 지표의 통계표	151
〈부록 3〉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159
〈부록 4〉	여성폭력지표 통계표	162

<부록 1> 현행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설명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경제 활동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비(여성/남성) * 만 15~64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성별 임금격차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의 성비(여성/남성) *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자영업자 제외)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년
	상용근로자 비율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 취업자 중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상용, 임시, 일용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의사 결정	국회의원 비율	25세 이상 인구 대비 국회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IPU	4년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중 4급 이상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사통계」	1년
	관리직 비율	15세 이상 취업자 중 관리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 2018년 직업분류(제7차개정)상 관리직 - 공공 및 기업 고위직,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전문서비스 관리직,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등으로 구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중앙정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중앙정부 각종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위원 비율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1년
교육 직업 훈련	평균 교육년수	6세 이상 인구 중에서 재학중인 학생수를 제외한 전국민에 대한 평균 교육년수의 성비 (여성/남성) ※ 각 학교급별 중퇴자의 경우는 초등중퇴 3년, 중학중퇴 7.5년, 고교중퇴 10.5년, 전문대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 (원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1년 (5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중퇴 13년, 대학중퇴는 14년, 석사·박사 중퇴는 17년으로 계산함. ※ 국민의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문맹률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문맹자가 거의 없으므로 국민 평균 교육수준만 지표로 채택하였음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고등학교 졸업자 중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한 학생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포함), 각종 고등교육 기관을 포함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비율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재직자직업훈련에 참여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 사업체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지원금, 사업주 능력개발(유급휴가훈련 포함), 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카드제,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사업 등의 고용노동부 지원을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고용통계DB 분석	1년
복지	비빈곤인구 비율	전체 인구 중 비빈곤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 비빈곤인구: 경상소득 중간값 50% 이하 인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1년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15~59세 인구 중 공적연금*에 가입한 인구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 공무원연금, 사립·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수 합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	1년
	장애인고용률의 성비	만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성비(여성/남성)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3년 (1년)
보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 관련 삶의 질(EQ-5D)*의 성비(여성/남성) * 건강 관련 5개 지표, 즉, 자기관리(Self-care), 일상 활동(Usual activity), 통증/불편감(Pain/ Disability), 그리고 불안과 우울(Anxiety and Depression)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결과를 종합한 값(19세 이상 인구 대상으로 조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검진 대상자 중 건강검진 수검자가 차지하는 비율 * 건강검진 대상자: 1차 대상 인원 합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1년
	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사람의 성별 비율	질병관리공단, 「국민건강영향조사」	1년
안전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13세 이상 인구 중 전반적 사회 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 전반적 사회 안전: 국가안보(전쟁가능성, 북핵문제 등), 건축물 및 시설물(붕괴, 폭발 등), 교통사고, 먹거리(불량식품, 식중독 등), 정보보안(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해킹 등), 신종 전염병(신종 바이러스, 조류독감 등), 범죄위험 * 5개 척도: 안전(매우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불안(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통계청, 「사회조사」	2년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 비율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의 성비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
가족	가사노동시간	20세 이상 인구의 하루평균 평균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경제적 목적이 아닌 가사업무(음식준비, 청소 등)와 가족 보살피기(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부모 보살피기 등) 시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출생순위별로 셋째 출생아에 대한 성비(여성/남성)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년
	가족관계 만족도	만13세 이상 인구 중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자녀 등에 대한 가족관계 만족도 * 5개 응답척도: 만족(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통계청, 「사회조사」	2년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자 수의 성비 역수(남성/여성) * 육아휴직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5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여성 육아휴직자 수의 10%에 도달하는 것을 완전 성평등 기준점으로 설정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1년
문화 정보	여가시간	20세 이상 인구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 * 교제 활동, 미디어 이용,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교제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 구입, 일반인 학습 등과 관련된 교제와 여가활동 시간 ※ 여가시간이란 생활시간 이외의 자유로운 시간이며, 생계를 위해 필요한 의무적 시간이 아닌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한 자유로운 활동을 행하는 일을 말함.		
	여가만족도	13세 이상 인구 중 각종 여가활동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 5개 응답 척도: 만족(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통계청, 「사회조사」	2년
	성별정보화격차	정보화 수준에 대한 성비(여성/남성) * 정보화 수준은 접근지수, 역량지수, 활용지수(양적, 질적)를 종합한 값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1년

<부록 2> 현행 성평등지수의 분야별 성평등 지표의 통계표

가. 경제활동

〈부표 2-1〉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69.2	69.3	69.5	68.6	69.0	70.5
여성	59.0	59.4	60.0	59.1	59.9	61.8
남성	79.3	79.1	78.8	77.9	78.0	79.0

주: 1) 15세-64세 인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2-2〉 성별 임금 격차(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단위: 천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여성	1,946	2,087	2,197	2,239	2,314	2,485
남성	3,010	3,135	3,241	3,306	3,439	3,661
임금격차	64.7	66.6	67.8	67.7	67.3	67.9

주: 1) 1인 이상 기준

2) 월급여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상여금과 특별급여는 제외)

3) 남성대비 여성 임금 비율=여성근로자의 월급여총액/남성근로자의 월급여총액×10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부표 2-3〉 상용근로자

(단위: 천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13,428	13,772	14,216	14,521	14,887	15,692
여성	5,196	5,425	5,680	5,855	6,092	6,523
남성	8,232	8,347	8,536	8,667	8,795	9,170

주: 15세 이상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나. 의사결정

〈부표 2-4〉 국회의원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300	300	295	300	295	299
여성	51	51	51	57	55	57
남성	249	249	244	243	240	242
여성비율	17.0	17.0	17.3	19.0	18.6	19.1

자료: 국제의원연맹 홈페이지

〈부표 2-5〉 4급 이상 공무원

(단위: 명,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7,979	8,093	8,235	8,244	8,479	8,562
여성	1,057	1,186	1,330	1,464	1,672	1,848
남성	6,922	6,907	6,905	6,780	6,807	6,714
여성비율	13.2	14.7	16.2	17.8	19.7	21.6

주: 행정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연구·지도·우정직·전문직·외무·별정·일반임기제 제외

자료: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부표 2-6〉 관리자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313	371	408	395	393	436
여성	39	54	63	62	64	64
남성	274	317	345	334	329	373
여성비율	12.5	14.6	15.4	15.7	16.3	14.7

주: 15세 이상 인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2-7〉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중앙행정기관)

(단위: 명,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위원	7,901	9,060	8,700	9,129	9,450	9,398
여성위원	3,028	3,548	3,522	3,607	3,765	3,586
여성위원 비율	40.2	41.9	43.0	43.2	42.4	41.4

자료: 여성가족부,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이행점검 결과」

다. 교육·직업훈련

〈부표 2-8〉 평균 교육년수

(단위: 년)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전체	10.3	10.5	11.2	11.6	12.1	12.5
여성	9.4	9.8	10.5	10.9	11.4	12.0
남성	11.2	11.5	12.1	12.4	12.8	13.1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계표 분석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부표 2-9〉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단위: %)

구분	계	여성	남성
2017	68.9	72.7	65.3
2018	69.7	73.8	65.9
2019	70.4	74.5	66.6
2020	72.5	76.1	69.3
2021	73.7	77.4	70.3
2022	73.3	76.6	70.3

주: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포함), 각종고등교육기관 진학자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부표 2-10〉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단위: 천 명, %)

구분	전체	여성(A)	남성(B)	여성비율 (A/(A+B))
2016	11,252	4,694	6,558	41.7
2017	11,333	4,694	6,640	41.4
2018	11,326	4,802	6,523	42.4
2019	11,075	4,706	6,369	42.5
2020	10,664	4,535	6,129	42.5
2021	10,019	4,303	5,716	42.9
2022	10,243	4,403	5,840	43.0

주: 임금근로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원자료 분석

라. 복지

〈부표 2-11〉 빈곤율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19.8	19.7	19.9	20.8	21.3	20.8
여성	21.7	21.8	22	22.8	23.2	22.6
남성	17.8	17.6	17.8	18.7	19.4	18.9

주: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사적 이전지출) 중위값 50% 이하 기준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부표 2-12〉 공적연금 가입자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계	19,436,115	20,093,494	20,458,317	20,558,200	20,854,360	21,047,850
	여성	8,646,882	9,035,169	9,271,909	9,385,592	9,602,726	9,707,426
	남성	10,789,233	11,058,325	11,186,408	11,172,608	11,251,634	11,340,424
국민연금	계	17,998,055	18,612,582	18,939,569	19,009,014	19,262,617	19,433,625
	여성	7,968,295	8,322,391	8,531,930	8,619,802	8,807,043	8,888,985
	남성	10,029,760	10,290,191	10,407,639	10,389,212	10,455,574	10,544,640
공무원연금	계	1,120,458	1,160,586	1,195,051	1,221,322	1,261,421	1,280,994
	여성	506,810	536,205	58,708	579,527	605,802	623,723
	남성	613,648	624,381	636,343	641,795	655,619	657,271
사학연금	계	317,602	320,326	323,697	327,864	330,322	333,231
	여성	171,777	176,573	181,271	186,263	189,881	194,718
	남성	145,825	143,753	142,426	141,601	140,441	138,513

주: 국민연금가입자 내 지역가입자에서 납부예외자 제외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 및 내부자료

〈부표 2-13〉 장애인고용률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36.5	34.5	34.9	34.9	34.6	34.3
여성	22.4	21.4	20.3	22.7	22.2	22.2
남성	46.8	44.1	45.6	43.8	43.8	43.3

주: 15세 이상 인구 기준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마. 보건

〈부표 2-14〉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단위: 점)

구분	전체	여성	남성	격차(여성/남성)
2016	0.953	0.941	0.965	0.975
2017	0.956	0.947	0.966	0.980
2018	0.953	0.941	0.966	0.974
2019	0.955	0.945	0.966	0.978
2020	0.960	0.951	0.969	0.981
2021	0.962	0.953	0.970	0.982

주: 19세 이상

자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부표 2-15〉 건강검진 수검률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77.7	78.5	76.9	74.1	67.8	74.2
여성	76.5	77.2	75.8	72.6	66.3	73.6
남성	78.9	79.7	78.0	75.6	69.2	74.8

주: 1) 수검률 = $\frac{\text{건강검진수검인원}}{\text{건강검진대상인원}} \times 100$

2) 건강검진대상인원 = 1차건강검진대상인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부표 2-16〉 생활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27.9	29.1	27.3	28.6	29.0	26.4
여성	28.8	30.7	29.6	29.8	30.6	28.1
남성	27.0	27.5	24.9	27.4	27.5	24.7

주: 19세 이상 인구,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바. 안전

〈부표 2-17〉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단위: %)

구분	2016	2018	2020	2022
전체	13.2	20.5	31.8	33.4
여성	10.6	16.6	27.6	29.7
남성	15.9	24.5	36.0	37.0

주: 13세 이상(전반적 안전의식은 매우 안전+비교적 안전 합)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부표 2-18〉 강력범죄(흉악범죄) 피해자

(단위: 건,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2016	30,868	27,542	3,326	89.2
2017	33,937	30,490	3,447	89.8
2018	32,851	29,313	3,538	89.2
2019	32,831	29,304	3,527	90.3
2020	30,989	27,640	3,349	89.3
2021	32,242	28,228	4,014	89.2

주: 미상 제외.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사. 가족

〈부표 2-19〉 성별, 취업여부별 평균 가사노동 시간

(단위: 시:분)

구분	1999		2004		2009		2014		2019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전체	3:57	1:26	3:44	1:22	3:38	1:24	3:30	1:27	2:52	1:30
여성	5:14	2:50	4:54	2:36	4:41	2:34	4:02	2:27	3:50	2:24
남성	0:54	0:27	0:55	0:30	1:04	0:36	0:54	0:40	1:06	0:49

주: 주: 20세 이상 인구(2019년 15세이상)의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시간(요일평균)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2-20〉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단위: 명, 여아 백 명당)

구분	계	여아	남아	성비
2017	34,962	16,940	18,022	106.4
2018	28,164	13,673	14,491	106.0
2019	25,654	12,627	13,027	103.2
2020	22,564	10,919	11,645	106.6
2021	21,236	10,282	10,954	106.5
2022	16,875	8,219	8,656	105.3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부표 2-21〉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구분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전체	55.7	54.6	56.5	56.7	58.8	64.5
여성	54.2	53.8	54.7	54.4	56.1	63.5
남성	58.2	56.6	58.3	59.0	61.5	65.5

주: 13세 이상 인구, 가족관계만족도 매우만족+약간만족 합 기준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부표 2-22〉 육아휴직자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90,122	99,199	105,165	112,040	110,555	131,129
여성	78,080	81,537	82,868	84,617	81,516	93,245
남성	12,042	17,662	22,297	27,423	29,039	37,88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아. 문화·정보

〈부표 2-23〉 성 및 취업상태별 여가시간

(단위: 분)

구분		2009	2014	2019
미취업자	여성	363	338	267
	남성	503	453	391
취업자	여성	203	195	159
	남성	251	231	200

주: 20세 이상 인구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부표 2-24〉 여가만족도(전 연령)

(단위: %)

구분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계	27.0	26.0	27.2	28.8	27.0	34.2
여성	25.8	24.9	26.9	28.2	26.1	33.7
남성	28.4	27.1	27.6	29.4	27.9	34.9

주: 13세 이상 인구(매우만족+약간만족 합)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부표 2-25〉 성별 정보화 격차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여성	95.0	95.9	95.1	96.1	94.4	96.4
남성	105.1	104.1	104.9	103.9	105.6	103.6
여성/남성×100	90.4	92.1	90.7	92.5	89.4	93.1

주: 일반국민을 100.0으로 두었을 때 남성과 여성의 수준을 구함, 종합지수는 디지털정보접근 수준(0.2), 디지털 정보역량 수준(0.4), 디지털정보활용 수준(0.4) 구성되어 있음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부록 3>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목표	영역	지표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동등한 권한	의사 결정	국회의원 비율	25세 이상 인구 대비 국회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로 측정 *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지역구와 비례 대표 의원	국제의원연맹(IPU)	4년
		장관 비율	장관 비율의 성비	국제의원연맹(IPU)	1년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 기준 일반직(연구, 지도직 포함), 외무, 별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공무원 인원 비율로 조정된 4급 이상 공무원 성비로 측정	인사혁신처, 「공공부문통합인사 연차보고서」	1년
		법원, 검찰, 경찰 고위직 비율	판사(법관), 검사,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남녀 비율의 성비로 측정	인사혁신처, 「인사혁신통계연보」	1년
		관리자 비율	15세 이상 취업자 중 관리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로 측정 ※ 2018년 직업분류(제7차 개정)상 관리직 - 공공 및 기업 고위직,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전문서비스 관리직,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등으로 구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자원의 동등한 접근	고용	고용률	15~64세 고용률 성비로 측정 * 만 15~64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정규직 비율	임금근로자 중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한 비정규직 형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성별 비율, (100-비정규직 비율)의 성비로 측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1년
		노동시장 직종 분리	단간의 성별 상이성지수(Index of Dissimilarity)로 측정된 값 * 산정에 활용된 직종은 통계청의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를 활용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1년
		경력단절 여성 비율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가족 돌봄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비율 * 측정 지표는 비취업이 경력단절 사유가 아닌 비율 활용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부가조사	1년
	소득	임금 격차	시간당 임금에 대한 성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 조사」	1년

목표	영역	지표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평등한 관계	교육	빈곤위험(빈곤율)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중위 50% 이하 소득자 비율 성비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1년
		국민연금 수급률	60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수급자 비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년
		평균 교육 연수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재학중인 학생수를 제외한 전국민에 대한 평균 교육연수의 성비(여성/남성)로 측정 ※ 각 학교급별 중퇴자의 경우는 초등중퇴 3년, 중학중퇴 7.5년, 고교중퇴 10.5년, 전문대중퇴 13년, 대학중퇴는 14년, 석사·박사중퇴는 17년으로 계산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분석	1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만 18~21세 인구 중 고등교육기관(전문대 이상)에 재적학생 비율의 성비로 측정 ※ $\frac{\text{고등교육기관 재학생}}{18\sim 21\text{세 인구}} \times 100$, 휴학생 제외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년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19세 이상 인구 대상 조사 결과, 자신의 전반적 건강상태에 대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응답한 인구 비율의 성비로 측정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1년
		건강수명	기대여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수명의 성비	통계청, 「생명표」	2년
		스트레스 인지율	만19세 이상인구 중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사람의 성별 비율로 스트레스 비인지율 성비로 측정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년
	돌봄	가사노동 시간	20세 이상 인구의 하루평균 평균 가사노동 시간. 가사노동시간: 경제적 목적이 아닌 가사업무(음식준비, 청소 등)와 가족 보살피기(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부모 보살피기 등) 시간이며, 취업자비율 조정된 가사노동시간(가정관리+돌봄노동) 역성비로 측정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육아휴직 참여	당해연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 역성비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1년
		노인돌봄 부담	일상생활 수행이 불편한 노인들의 비공식 돌봄자의 역성비로 측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3년

목표	영역	지표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양성 평등 의식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여성 인권에 대한 존중 수준 여성인권에 대해 '매우 존중된다'와 '존중되는 편이다'의 합 비율로 측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1년
		성차별 경험률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받은 차별 경험 * 차별 유형 ① 신체적/언어적 차별: 폭행, 위협, 놀림, 조롱, 폭언, 인격적 모욕, 무시 ② 고용 관련 차별: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정년, 퇴직, 해고 등의 불이익 ③ 재화/용역 차별: 교통수단,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당하는 거절이나 불이익 ④ 사회적 차별: 결혼·친구 관계의 회피, 집단으로부터 따돌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1년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12세 이상 인구 중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비동의(전혀 동의하지 않음+동의하지 않음)하는 비율 * 성역할 고정관념 4개 질문에 대한 비동의 비율 평균으로 계산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가족의 의사 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가족 돌봄(자녀, 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3년

<부록 4> 여성폭력지표 통계표

〈부표 4-1〉 성폭력 범죄 발생비

(단위: 건)

연도	발생건수	발생비
2017	32,234	62.3
2018	31,396	60.6
2019	31,396	60.6
2020	29,467	56.9
2021	32,080	62.1
2022	40,515	78.8

주: 발생비는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를 의미함

자료: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내부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부표 4-2〉 여성 살해 발생

(단위: 명, %)

연도	전체	여성	남성	미상	발생비		여성 비율
					여성	남성	
2017	301	153	147	1	0.59	0.57	51.0
2018	309	154	152	3	0.59	0.59	50.3
2019	297	154	138	5	0.59	0.53	52.7
2020	308	138	164	6	0.53	0.63	45.7
2021	270	128	142	-	0.49	0.55	47.4
2022	275	137	137	1	0.53	0.53	50.0

주: 1) 발생비는 인구 10만명당 피해건수를 의미함

2) 여성 비율은 미상을 제외한 비율임

자료: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부표 4-3〉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 경험률

(단위: %)

구분	성폭력 유형	여성	남성
2019	성추행 (폭행/협박 미수반)	0.7	0.0
	성추행 (폭행/협박 수반)	0.0	-
	강간미수	0.0	-
	강간	-	-
	성희롱	0.8	0.0
	성기노출	0.6	0.1
	스토킹	-	-
	음란 전화 및 메시지	2.0	2.3
	불법촬영	0.1	0.0
2023	PC,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	5.6	6.6
	불법촬영 피해	0.3	0.1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의 유포 피해	0.1	0.1
	성기노출 피해	0.2	-
	성추행 피해	0.3	0.1
	강간(미수) 피해	0.0	-

자료: 여성가족부, 「성폭력안전실태조사」

〈부표 4-4〉 지난 1년간 가정폭력 피해 경험률

(단위: %)

구분	가정폭력 유형	여성	남성
2019	신체적 폭력	2.1	0.9
	성적 폭력	3.4	0.1
	경제적 폭력	1.2	0.8
	정서적 폭력	8.1	5.8
	통제	23.9	23.4
2022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신체적 폭력	1.3	1.0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성적 폭력	3.7	0.8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경제적 폭력	0.7	0.2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정서적 폭력	6.6	4.7

자료: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부표 4-5〉 직장 성희롱 피해 경험률

(단위: %)

구분	2015		2018		2021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6.0	1.0	9.7	2.4	5.8	1.8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전화, 문자 및 SNS 포함)	4.2	1.1	5.5	2.0	2.8	1.8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0.8	0.3	0.6	0.3	0.7	0.4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0.8	0.1	1.1	0.2	0.8	0.2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0.1	0.0	0.3	0.0	0.1	0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3.9	0.5	5.4	1.0	2.4	0.6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2.1	0.3	3.1	0.5	1.1	0.3
성인 잡지(각종 이미지)나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0.4	0.1	0.4	0.4	0.2	0.1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행위	0.3	0.1	0.5	0.1	0.2	0.1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6	0.1	2.6	0.3	1.0	0.2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0.3	0.0	0.3	0.1	0.2	0.2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평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0.1	0.0	0.0	0.0	0.2	0.1
성적 요구를 전제조건으로 고용, 평가 등의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0.0	0.0	0.1	0.0	0.2	0.1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적 관계를 하거나 시도한 행위	0.1	0.0	-	-	-	-

주: 지난 3년간 1회 이상 발생했다고 응답한 비율

자료: 여성가족부, 「성희롱안전실태조사」

〈부표 4-6〉 성폭력 및 범죄피해 두려움

(단위: %)

구분		2019	2022
여성	평소에 폭행, 강도, 절도 등의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	58.1	47.7
	지하철, 버스 등에서 성추행을 당할까봐 두렵다	45.8	39.7
	택시, 공중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렵다	62.1	51.0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무섭다	73.1	63.4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	63.9	52.9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촬영되었거나 내가 찍힌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을까봐 두렵다	41.7	-
	길거리를 지날 때 남자들이 모여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다	46.5	-
	성별을 이유로 범죄의 표적이 될까봐 두렵다	48.7	36.6
	온라인상에서 나의 성별을 이유로 음란썹지, 음란채팅, 욕설 등을 당할까봐 두렵다	34.2	30.7
남성	평소에 폭행, 강도, 절도 등의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	20.6	13.5
	지하철, 버스 등에서 성추행을 당할까봐 두렵다	10.9	8.6
	택시, 공중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렵다	11.2	10.3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무섭다	13.4	10.3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	12.1	9.8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촬영되었거나 내가 찍힌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을까봐 두렵다	12.6	-
	길거리를 지날 때 남자들이 모여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다	13.0	-
	성별을 이유로 범죄의 표적이 될까봐 두렵다	11.0	11.9
	온라인상에서 나의 성별을 이유로 음란썹지, 음란채팅, 욕설 등을 당할까봐 두렵다	10.7	10.5

주: 두려움은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 비율

자료: 여성가족부, 「성폭력안전실태조사」

2023년 국가성평등보고서

2023년 12월 17일 인쇄

2023년 12월 20일 발행

발행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6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1030-10